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

-대전·공주·연기·예산·청양·천안·아산·논산·서천-

【결정사안】

한국전쟁 당시 충남 중동부지역(대전·공주·연기·예산·청양 등)에서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이 예비검속되어 이 중 일부는 대전으로 이송되어 사살되었고, 일부는 해당 지역에서 군(軍)·경(警)의 후퇴 직전에 사살되었는데 그중 박준(朴準) 등 58명에 대한 희생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전·공주·연기·청양·예산 등 충남 각 지역에서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이 예비검속되었다. 이 중 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 사살되었고, 일부는 해당지역의 경찰서나 지서 및 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군(軍)·경(警)의 후퇴 직전에 사살되었다.

2.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박준(朴準, 다-661호) 등 34명이며, 희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박봉양(朴鳳陽, 다-8300호) 1명이다. 또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자는 문충환(文忠煥) 등 20명이며, 희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김사예(金四禮) 등 3명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주로 해당지역 경찰이었으며, 대전·공주 등 형무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헌병대도 가담하였다. 또한, 연기지역 등 주(主)전투지역에서는 제17연대도 부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당시 경찰과 헌병대의 가해행위는 희생자의 불법행위유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예비검속 후 사살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5. 예비검속에 이은 총살행위는 대전·충남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남 경찰국의 지시나 명령은 상부기관인 내무부와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책임은 이들을 관리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군인·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평화인권교육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전 문]

[사 건] 다-661호 등 25건,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Ⅱ)

[신청인] 박준수 등 25명

[결정일] 2009. 9. 8.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신청인 박준수(朴準綏) 등 25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초기 대전·공주·연기·예산·청양 등 충남지역(Ⅱ)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원(예비검속자 포함) 집단희생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10월 10일 사건번호 다-661호(신청인 박준수)외 5건, 2007년 2월 13일 사건번호 다-6137호(신청인 허린)외 16건, 2007년 4월 3일 사건번호 다-5187호(신청인 서창임)외 1건에 대하여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신청서 접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 현황

지역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	1	661	2006.01.13.	박준수 (朴準綏)	박준 (朴準)	남	25	형	
	2	1480	2006.02.15.	박성관 (朴成寬)	박만호 (朴萬鎬)	남	28	부	
	3	2843	2006.04.06.	윤순득 (尹順得)	고광선 (高光善)	남	26	남편	
	4	3982	2006.06.20.	김용규 (金龍奎)	김용호 (金龍虎)	남	23	형	
	5	4064	2006.06.29.	유정렬 (柳貞烈)	유을득 (柳乙得)	남	35	숙부	
	6	5187	2006.09.18.	서창임 (徐昌任)	서창원 (徐昌源)	남	21	오빠	
	7	6137	2006.10.23.	허린 (許遴)	허정 (許旌)	남	52	부	
	8	6407	2006.10.30.	김인태 (金仁泰)	김진태 (金進泰)	남	24	형	
	9	8047	2006.11.29.	고인선 (高仁善)	고영원 (高泳源)	남	33	부	
	10	8300	2006.11.29.	박주양 (朴珠陽)	박봉양 (朴鳳陽)	남	27	형	
	11	8755	2006.11.30.	고군선 (高君善)	고영균 (高泳均)	남	24	숙부	
	12	8991	2006.11.30.	김인성 (金仁性)	김우영 (金宇泳)	남	40	조부	
	13	8992	2006.11.30.	허상균 (許祥均)	허준 (許竣)	남	30	부	
공주	14	6210	2006.10.24.	윤웅림 (尹雄林)	윤청림 (尹淸林)	남	26	사촌	
	15	6288	2006.10.25.	정일赫 (鄭一赫)	정필창 (鄭必昌)의 7인	남	22~40대 중반	마을주민	
	16	6761	2006.11.14.	이충섭 (李忠燮)	이영식 (李永植)	남	40	부	
	17	6907	2006.11.17.	조병기 (趙炳起)	조성갑 (趙成甲)	남	43	부	

제 4 권

지역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공주	18	7535	2006.11.23.	김원동 (金原東)	김용진 (金容鎭)	남	58	조부	
					김순한 (金順한)	여	19	고모	
	19	7948	2006.11.28.	우정규 (禹鼎圭)	우창규 (禹昶圭)	남	39	형	
	20	8797	2006.11.30.	김진환 (金珍煥)	김동석 (金童錫)	남	40	부	
					김동찬 (金童瓚)	남	34	숙부	
					김동수 (金東洙)	남	35	당숙	
21	9846	2006.11.30.	이재옥 (李載玉)	이용중 (李龍重)	남	32	부		
연기	22	2425	2006.03.17.	박영애 (朴英愛)	박윤신 (朴潤信)	남	22	부	
	23	6351	2006.10.27.	진근식 (陳根植)	진태식 (陳泰植)	남	20	삼촌(백부)	
예산	24	10778	2006.11.30.	이대열 (李大烈)	성백환 (成百煥)	남	34	예산군민	
청양	25	6131	2006.10.23.	이필재 (李弼載)	이경재 (李景載)	남	32	형	

나. 조사대상 지역

진실규명을 신청한 지역은 대전(13건), 공주(8건), 연기(2건), 예산(1건), 청양(1건) 5곳 이나, 국민보도연맹사건(이하 '보도연맹사건')이 전국 규모의 희생 의혹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나 주장 등을 감안하여 진실규명 신청이 없는 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금산군은 사건 당시에는 전라북도에 속하였으므로 전라북도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분류 되어 제외되었고, 또한 이미 진실규명이 결정된 충남 서부지역에 속하는 6개시군(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태안군, 홍성군, 부여군)도 제외되었다.¹⁾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을

1)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전북 국민보도연맹사건」은 2009년 1월 19일 진실규명이 결정되었다.

제외한 충남지역(Ⅱ)의 9개 지역(대전시(계룡시 포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예산군, 연기군, 청양군, 서천군²⁾)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³⁾

다. 신청 요지

유족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대전·공주 등 충남중동부지역 일원에서, 적계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신청인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명예회복, 국가의 사과, 위령탑 건립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유족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2. 조사의 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2006년 10월 10일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⁵⁾

3. 조사의 목적과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올바른 과거 역사를 정립하고 국민의 화해와 통합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에게 법적·제

- 2) 서천군은 지리적으로 충남의 서부에 위치하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신청사건 위주로 조사한 충남 서부지역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가 금번조사에 포함되었다.
- 3) 1950년 당시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은 1시 14군 11읍 161면으로 이루어졌다. 1개시는 대전시를 의미하며 14개군은 대덕군, 연기군, 공주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보령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아산시, 천안군을 의미한다.(대한행정학회,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49, 73쪽.).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당시 기준에 따라 대전시도 충남지역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 4) 한국전쟁전후간인학살진상규명법국민위원회, 『간인학살 주요 사건』, 2006, 104~107쪽.
- 5)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이 희생된 사건으로 희생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건수도 전체의 34.2%(7,539건 중 2,576건)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사건이다.

제 4 권

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극복하고 인권국가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규명과정으로는 신청 건이 있는 지역은 희생 경위, 희생 규모 및 희생자의 신원, 가해주체 및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신청 건이 없는 지역은 사건의 실재(實在)여부 등의 파악에 주력하였다.

4. 조사방법

조사는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와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규명과정 중 희생경위, 희생규모 및 희생자 신원 등은 각 지역별로 조사하였고 보도연맹의 조직과 활동, 가해책임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직권조사의 취지를 살려 전체 사건의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미신청인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가. 자료 조사

1) 경찰관련자료

가) 충남경찰연혁사

- 생산기관 : 충남경찰청 경무과
- 생산시기 : 1950, 1951년⁶⁾
- 주요내용 :

해방 이후부터 각 경찰서의 연혁을 비롯하여 주요 변동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성은 각종 제도의 신설·개폐를 비롯하여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6) 국가기록원(관리번호:BA0411767~BA0411771, BA0411774)에는 1950년, 1951년 생산 자료로 나와 있으나, 검토결과 1958~1959년도에 충남 경찰국의 「경찰연혁사작성제출의 건」에 따라 각급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남

7)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다. ①제도의 신설·개폐 및 경찰구역, 경찰직원의 배치, 청사 및 부지 증감 변경사항. ②법령, 훈령, 고시 등 발표, 개폐 및 이에 대한 집행사항. ③경찰서장의 임면 및 보직사항. ④직원 순직 및 중대조난 사항. ⑤직원의 중대한 공적 또는 실□ 및 상훈사항. ⑥ 중대한 회의 또는 ○○ 및 ○○○○ 사항. ⑦중대한 시설계획 및 이에 대한 집행사항. ⑧지방에 있어서 특이사항. ⑨중대한 폭동, ○○, 쟁의, 범죄 기타 사회의 이목을 끈 경찰사항. ⑩민심동향. ⑪중대한 水火震災 상황. ⑫중요한 지방병 전염병 및 獸질. ⑬조장행정 기타 ○○ 외 사무원조 및 집행중요사항. ⑭6.25사변 중 중요한 경찰사항. ⑮기타 중요참고사항.

나)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

- 생산기관 : 청양경찰서
- 생산시기 : 1981년
- 주요내용 :

청양군 관내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중 현존자(現存), 행불자(不在), 처형자(處刑), 시찰대상자(視察)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처형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은 총 95명으로 대부분 9.28 수복 후 부역혐의로 처형된 자들이며, 그중에는 6.25 당시 보도연맹원이었던 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 신원기록편람

- 생산기관 : 대전중부경찰서
- 생산시기 : 1981년
- 주요내용 :

대전중부경찰서 관내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로 6.25 당시 부역자 중 현존자(現存), 행불자(不在), 처형자(處刑), 시찰대상자(視察) 등이 파악되어 있다. 처형자 명부에는 5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중 3명의 처형사유는 '6.25 당시 보도연맹원으로 활약타 검거'이다.

라) 기타자료

- 『사령부』, 충남지방경찰청, 1950.
- 『경찰10년사』, 내무부 치안국, 1958.
- 『한국경찰사 I』, 내무부 치안국, 1972.
- 『한국경찰사 II』, 내무부 치안국, 1973.
-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백서』, 경찰청, 2007.

2) 「피해자현황용역조사」 결과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 용역조사 (이하 '피해자현황조사')'를 전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공주시의 피해자 현황조사는 총 9명의 조사원이 2007년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현재 공주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6개 동, 1개 읍, 10개 면의 한국전쟁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후손 39명, 목격자 8명, 전문가 199명을 면담하여 모두 365명의 피해자를 확인하

제 4 권

였다.⁸⁾ 이 중에서 보도연맹사건 관련 피해자는 모두 134명이다.

3) 「기초사실조사」 결과보고서

기초사실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집단희생의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4~12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군·구(읍·면·동)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사실을 조사하였다.

충남의 경우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예산, 청양 등 11곳이 그 대상이며, 조사결과 충남지역(Ⅱ)의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다는 신고가 있는 곳은 연기 6건, 논산(계룡시 포함) 3건 등 9건이다.

4) 「유해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희생실태를 파악하고 유해발굴을 통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향후 위령화해사업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에 처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 2007년 한국전쟁 집단희생 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2008년까지 9개개 지역에서 모두 983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⁹⁾ 충남지역(Ⅱ) 중 유해발굴이 진행된 곳은 대전 산내 골령골과 공주시 상왕동 왕촌 두 곳이며 조사기간은 대전은 2007. 6. 25.~9. 22., 공주는 2009. 6.11.~2009. 7.20.이다.

5) 외국 자료

- 1차 문헌

○ 「미 대사관 밥 에드워드의 보고서」 : 1950년 7월 첫째 주 대전 정치범 1,800여 명에 대한 처형사실과 해당 사진 18매가 포함되어 있다.¹⁰⁾

○ 「미군 제25 CIC 분견대의 전투일지 및 활동보고서」 : 1950년 7월 1일 1,400여 명의

8) 피해자현황조사결과와 확인된 피해자 유형으로는 보도연맹피해자 외에 부역혐의 피해자 117명, 지방좌익에 의한 학살피해자 68명, 인민군에 의한 학살피해자 28명 등이 있다.

9) 2007년도 유해발굴은 충북 청원 분터골, 전남 구례 봉성산,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대전 산내 골령골 등이며, 2008년도는 충북 청원 분터골과 지경골,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경남 산청 외공리와 우너리, 전남 진도 갈명도 등이다. 2009년도에도 경남 진주시 명석면 일원, 전남 함평 불갑산, 경산 코발트 광산, 충남 공주시 상왕동 등 4개 지역에서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10)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 23 Sept 1950,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G-2 ID File, Box 4622, Item 715579. : 이들 문서는 제주 4·3사건을 추적해온 재미동포 이도영이 미정부에 비밀해제를 요청해 공개된 것이다.(한국일보, 2000.1.6.).

민간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¹¹⁾

○ 『I Was A Captive in Korea』 : 런던 「옵서버」지의 종군기자로 활동하다가 1950년에 북한군 포로가 된 필립 딘이 대전에서 총살현장을 목격한 프랑스 신부 카다르(72)의 말을 빌려 '대전에서 남한 경찰이 1,700명의 죄수들을 총살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¹²⁾

- 보도자료 및 기타

○ 『I saw the truth in Korea』 : 영국의 좌익계 언론사 종군기자였던 앨런 워닝턴이 1950년 영국에서 발행된 팜플릿에 게재한 것으로 대전에서 민간인(형무소 정치범 포함) 3,000~7,000여 명이 총살당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¹³⁾

○ 『미 육군 G-2 에이할트 대령의 비밀통신문』 : 한국 경찰이 대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해서 처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¹⁴⁾

6) 당시 발행된 신문과 기타자료

동방신문, 충청매일, 매일신보 등 당시 신문과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국내 일간지를 비롯하여 각 시·군지 및 향토사 관련 자료도 참고하였다.

○ 동방신문 : 해방 후 대전에서 창간된 최초의 신문으로 중선일보, 중앙일보, 인민일보, 동방신문으로 제호가 변경되었고 한국전쟁으로 폐간되었다. 그중 일부(1949.7.1~1950.6.15.)가 현재 남아 있어 당시의 시대상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충청매일 : 해방 후 대전에서 창간된 신문으로 동방신문과 더불어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일부(1949.7.1~12.31.)가 현재 남아 있다.

11) *War Diary and Activity Report* : 7 October 1950, NARA, RG 407, Entry 429, Box 3758. 25TH CIC DETACHMENT(1950.11.2.).

12) Philip Deane, *I Was A Captive in Korea*, Norton, New York, 1953.

13) 앨런 워닝턴은 런던 「데일리 워커」의 기자로 1950년 7월 16일 한국에 도착하여 5주간 머물며, 그 기간 동안 산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는 미국과 남한 정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정치성향이 있었으며, 그것이 보도내용을 크게 좌우했기 때문에 그의 보도내용 중 희생규모 추산은 신빙성이 약하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전쟁 연구가인 브루스 커밍스에 의하면 미국 측도 워닝턴이 보도한 내용 중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rmy intelligence on July 2 rated as "probably true" a report that the KNP in Teajon were "arresting all Communists and executing them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VOLUME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700쪽.)

14) *OUTGOING CLASSIFIED MESSAGE*(RG 319, BOX 85, File 9123-00-00789)

나. 신청인 조사

신청인 25명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23일부터 2009년 3월 16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조사(진술조서, 면담보고서), 전화조사(통화보고서)이며, 조사내용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신원과 특성, 연행, 희생과정, 희생이유 및 가해자 그리고 시신수습 여부 등이었다. 또한 참고인 중에서 유족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때에는 ‘미신청인’으로서 조사하였다.

다. 참고인 조사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참고인 100여 명과 군·경측 참고인 24명을 조사했으며, 주요 대상자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자, 사건의 재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자, 가해책임의 소재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당시 경찰) 등이다.

라. 현장 조사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 동구 낭월동을 비롯하여, 공주의 상왕동 왕촌·의당면 청룡리 여찬·송원리 옥골(현, 연기군 남면), 연기 수명재(은고개와 비성골)·떡뱅이(전동면 봉대리), 그밖에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뒷산 등을 현장 조사하였다.

II. 조사결과

1. 사건 배경 - 충남 국민보도연맹조직과 활동

가. 충남도(道)연맹의 조직

충남 보도연맹이 조직되기 전 충남지방의 검·경당국에서는 1949년 11월 1일부터 30일 까지 한 달 동안 자수주간¹⁵⁾을 설정하고 자수·전향을 독려했다.¹⁶⁾ 이 결과 11월 20일 현재 도내 자수자는 539명¹⁷⁾이던 것이 25일부로 1,054명¹⁸⁾으로 늘어났고, 불과 5일 후인

15) 이에 앞서 (중앙)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10월 25일부터 자수주간을 설정하였다.(동아일보, 1949. 10. 29.)

16) 충청매일, 1949.11. 2.

17) 충청매일, 1949. 11. 23.

18) 충청매일, 1949. 11. 29.

30일엔 4배에 가까운 3,902명으로 증가하였다.¹⁹⁾ 자수자 수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당시 검경의 치열한 자수독려가 밑바탕이 되었다. 실제로 충청매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11월 하순에는 거의 매일 자수를 독려하는 기사가 실렸다.²⁰⁾

이들 좌익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지부의 결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 보도연맹 결성식이 1949년 12월 27일 거행되었다. 이날 대전검찰청 회의실에서 고문 권영옥·이영진(李寧鎭)·송호성(宋虎聲), 지도위원장 정재환(鄭在煥), 지도위원 윤준영·서광순(상임지도위원 겸임), 참사(參事) 김진권(金振權) 외 30명, 그밖에 이사회 소속으로 명예 이사장 이영진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하오 2시 반부터 4시까지 거행되었다. 여기서 선임된 충남도연맹 임원으로는 간사장에 강창우(姜昌祐), 사무국장에 조강희(趙岡熙), 총무부장 임완빈(任完彬), 심사부장 송영호(宋永鎬), 보도부장 이진구(李鎭求), 사업부장 박문규(朴文圭), 선전부장 송재선(宋在旋), 조직부장 김지수, 부녀부장 권유진(權有鎭), 문화실장 서하(徐霞) 등이 있다.²¹⁾

충남도연맹 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고문 권영옥은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며, 이영진(李寧鎭)은 충남도지사, 송호성(宋虎聲)은 중부전투총사령관 겸 125부대장이다. 그밖에 지도위원장 정재환(鄭在煥)은 대전지검 검사장이며, 이사장 이순구는 충남경찰국장, 지도위원 윤준영은 차장검사, 지도위원 서광순은 도사찰과장, 참사(參事) 김진권(金振權)은 판사였다. 이처럼 충남도연맹의 조직과 운영에는 행정·사법·군·경찰 등 각 분야의 정부기관 수뇌부가 중심축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보도연맹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충남의 경우 다른 도연맹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부서로 심사부와 문화실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도연맹의 지도방향에 따라 필요한 부서를 추가했던 것으로 보인다.²²⁾

나. 충남도(道)연맹의 활동

도연맹의 활동내용도 중앙조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주된 활동은 좌익전향자

19) 시·군별 자수자 수는 본청 27명, 서산 75명, 당진 36명, 온양 396명, 천안 181명, 홍성 1,380명, 예산 56명, 조치원 58명, 보령 126명, 청양 234명, 공주 278명, 서천 163명, 부여 91명, 강경 429명, 대전 65명, 태안 29명, 대덕 278명이다.(동방신문, 1949. 12. 2; 충청매일, 1949. 12. 2.)

20) '자수만이 살길(11.19)', '증명서도 발급-앞으로 10일 주저말라(11.20)', '전향자수자 좌담회(11.22)', '자수기한 드디어 박두(11.23)', '경찰국장 담화: 다시 안 올 천재일우의 기회(11.25)', '검사장 담화: 관대한 은전도 이달뿐-悔悟자수하지 않으면 제재 준엄(11.26)', '불순학도 자수하라(11.26)', '자수자 좌담회(11.28)', '은전은 앞으로 3일간(11.28)', '자수자 陸續!-25일 현재 1천명 돌파(11.29)'

21) 동방신문, 1949. 12. 28.

22)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현실』 제45권, 한국역사연구회, 2002, 307쪽.

제 4 권

를 포섭하여 계몽 지도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1950년 5월 6일 온양에서 개최된 제1회 충남도연맹 간사장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지도위원장, 상임지도위원, 경찰국장과 사찰담당 간부들, 각 시·군연맹 간사장 등이 모인 가운데 가맹(加盟) 보도사업, 도선거(5·30선거) 불간섭, 탈맹(脫盟) 추천, 타공(打共)에의 협조사항 등을 토의하였다.²³⁾

2. 지역별 사건경위

충남지역(Ⅱ)의 경우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는 25건에 불과하다. 금번 조사에서는 신청사건이 있는 지역(대전, 공주, 연기, 예산, 청양)과 신청사건이 없는 지역(천안, 아산, 논산, 서천)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사건경위를 파악하였다.

가. 대전(시)지역

1) 신청인 조사

대전지역 신청인 조사에는 전쟁 당시에는 충남에 속하였으나 현재는 대전시에 속한 대덕군의 신청건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신청인이 당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참고인을 대동한 경우 참고인임을 표기하여 신청인 조사 시 함께 조서에 반영하였다. 신청인(미신청인 포함)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대전지역 신청인(미신청인 포함) 조사내용

연번	신청인 (사건 번호)	조사일시 조사장소	출생 연도	진술 형태	주요 진술내용
1	박준수 (661)	2008.8.26. 예산군청 상황실	30년생	진술 조서	형(兄) 박준은 전쟁 전에 죄의사상으로 재판을 받은 후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으며, 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6일 유성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두함. 그 후 대전 산내에서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
2	박성관 (1480)	2008.8.30. 대전시 오정동 염광교회	46년생	진술 조서	신청인이 대동한 참고인 정광임(신청인의 모(母), 28년생)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父) 박만호는 반회(마을회의) 때 도장을 찍어 주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함. 전쟁 후인 1950년 7월 14일(음력 5.29.) 저녁에 경찰들에게 연행된 후 그 이튿날 산내에서 희생당했음.

23) 동방신문, 1950. 5. 9.

연 번	신청인 (사건 번호)	조사일시 조사장소	출생 연도	진술 형태	주요 진술내용
3	윤순득 (2843)	2008.1.31. 대전시청 회의실	31년생	진술 조서	부(夫) 고광선이 1950년 6월 26일(음력 5.11.) 같은 마을의 고태준, 고연수, 변판성 및 이웃마을의 고영준, 고영원, 고주낙(고영균) 등과 함께 연행되었으며 그 후 산내에서 희생당했다고 들었음.
4	김용규 (3982)	2008.1.30. 대전시청 회의실	35년생	진술 조서	형(兄). 김용호는 1950년 6월 말경 대전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와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연행해 갔으며 약 10일 후에 대전 골령골(산내)로 데리고 가서 희생당했음.
5	유정렬 (4064)	2008.2.1. 대전시청 소회의실	39년생	진술 조서	숙부(叔父) 유율득은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으며 전쟁 직후 대전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대전형무소에 구금되었다고 함. 그 후 같은 동네에 살던 대전교도소 간수(한○○)에게 사망소식을 들었음.
6	서창임 (5187)	2008.1.30. 대전시청 회의실	33년생	진술 조서	오빠 서창원은 전쟁 발발 며칠 후 대전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대전 산내에서 희생당함. 그 후 신청인의 당숙과 숙부가 산내에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시신들이 뒤엉켜 있어 수습은 못했으나 바지하고 벨트는 확인했음.
7	허린 (6137)	2008.6.10. 부산시 남구청	32년생	진술 조서	부(父) 허정은 전쟁 발발 며칠 후 밤중에 경찰(혹은 군인)에게 불러 나갔으며, 그 후 대전 산내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음.
8	김인태 (6407)	2008.1.23. 위원회 조사실	36년생	진술 조서	형(兄) 김진태는 전쟁 전 유성지역에서 좌익 활동을 했으며 그 일로 수감생활을 한 후 보도연맹 사무실로 출근을 했음.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6월 30일경 보도연맹 사무실로 출근 하여 잡혀간 후 산내에서 희생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9	고인선 (8047)	2008.9.11 태안읍자택 2009.4.2. 위원회	52년생	진술 조서	신청인은 전쟁 당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참고인 고정선과 신청인의 모(母) 이종내(29)의 진술에 의하면, 부(父) 고영원과 삼촌 고영균 등은 전쟁 발발 직후 마을사람 몇 사람과 함께 연행되었으며 그 후 산내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음.
10	박주양 (8300)	2008.2.13. 위원회 조사실	35년생	진술 조서	형(兄) 박봉양은 1949년 좌익혐의로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나온 후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며,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6월 27~8일경 '보도연맹원들은 인전을 위해서 경찰서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대전경찰서로 나간 후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당했음.
11	고군선 (8755)	2008.1.30. 대전시청 회의실	50년생	진술 조서	삼촌 고영균은 갈전리의 인민공화당 면위원장 고익순을 따라 다녔으며, 그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했음. 전쟁 발발 후 고영균은 신탄진지사로 출두하였으며, 그 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12	김인성 (8991)	2008.1.30. 대전시청 회의실	57년생	진술 조서	조부(祖父) 김우영이 1950년 7월 5일(음력 5월 20일) 기성지서의 연락을 받고 자발적으로 출두하였으며, 그 후 산내 낭월에서 희생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제 4 권

연 번	신청인 (사건 번호)	조사일시 조사장소	출생 연도	진술 형태	주요 진술내용
13	허상균 (8992)	2008.1.31. 대전시청 회의실	43년생	진술 조서	부(父) 허준이 허림(당숙)의 영향으로 좌익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 후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고 함. 그 후 1950년 7월 초에 경찰관 1명이 '지서에 회의가 있다'면서 데리고 갔음. 그 후 들은 바에 의하면 유성경찰서(혹은 대전경찰서)로 집합한 후 산내로 가서 희생되었음.
14	문규열 (미신청)	2007.4.17. 민원(우편)	49년생	통화 보고서	부(父) 문충환(文忠煥, 30) 전쟁 당시 남선전기주식회사(한전의 전신)에 근무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참고인의 어머니가 1950년 7월 1일까지 대전경찰서로 도시락을 배달했으나 그 후 행불되었으며 산내에서 희생당했다고 들었음.
15	류충언 (미신청)	2009.6.9. 위원회 조사실	40년생	진술 조서	부(父) 류주열(호적이름:柳聖業, 45)은 양복점(양복상조합 조합장)을 운영하던 중 연행되어 대전 산내에서 희생당했음. 그 후 현장 참관자의 도움으로 시신을 수습함.
16	윤여성 (미신청)	2009.6.4. 위원회 조사실	40년생	진술 조서	부(父) 윤석보(尹錫輔, 30)는 안성유기 집판장을 경영하던 중 전 쟁 발발 며칠 후에 연행되어 대전 산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제삿날은 음력 5월 29일(양 7.14일)임.
17	조재희 (미신청)	2009.6.17. 계룡시 자택	31년생	면담 보고서	형(兄) 조용희(趙容禧, 23)는 대전시 대흥동에 거주하던 중 전쟁 전에 10일 정도 경찰서에 잡혀갔다 나온 후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추측됨. 전쟁 발발 후에 연행된 후 행불되었음.
18	유기선 (미신청)	2008.6.23. 대전시청 회의실	39년생	진술 조서	시숙(媿叔) 고태준(高泰準, 18)이 1950년 6월 26일(음력 5.11)경 에 경찰에 연행된 후 대전형무소를 거쳐 산내에서 희생당한 것으 로 추정됨.
19	고순예 (미신청)	2008.6.23. 대전시청 회의실	50년생	진술 조서	부(父) 고연수(高連壽, 25)는 1950년 6월 26일(음력 5.11)경에 경찰에 연행된 후 대전형무소를 거쳐 산내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됨.
20	김홍균 (미신청)	2009.7.15. 위원회 조사실	44년생	면담 보고서	부(父) 김백현과 숙부(叔父) 김백만이 한국전쟁 발발 후에 군경에 게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누님으로부터 들었음. 숙부 김 백만은 당시 대전형무소에 있었다고 들었음.

2) 참고인 조사

참고인조사에는 희생자확인, 참전경찰, 현장목격자 등 사건의 재구성에 필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표 3〉 대전지역 참고인 조사내용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신태순 (22)	김용호 희생증언	2009.2.11. 통화보고서	· 김용호(3982호, 참고인의 남편)는 당시 24세로 대전 문창동 독 옆에 살았으며, 전쟁 전에 보도연맹으로 자수한 적이 있음. 전쟁 발발 후 어느 날 저녁 사복 입은 남자가 와서 '뭘 좀 물어본다'면서 데리고 갔음.
2	황내서 (20)	산내현장 입초자	2009.2.23. 진술녹취록	· 전쟁 발발 후 약 1주일간 산내면 낭월리에서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보도연맹원 포함)이 희생당했으며, 그때 일주일간 근처 산에서 보초를 섰음. 사실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음.
3	김기형 (21)	산내현장 참관자 (대한 청년단)	2009.2.23. 진술녹취록	· 참고인은 당시 대한청년단으로 이를 동안 현장에 동원됨. 경찰이 총을 쏘면 참고인등 대한청년단이 시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 구덩이 속에는 시신위에 시신을 겹쳐서 장작처럼 쌓았으며 근처는 핏물이 발목까지 잠겨서 물 눈 같았음.
4	고정선 (16)	갈전리 주민 7명의 희생증언	2009.3.26. 통화보고서	· 참고인은 전쟁 당시 충남 대덕군 북면 갈전리에 거주하였으며 당시 갈전리는 옷갈밭과 아랫갈밭, 양지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아랫갈밭에서 고광선(2843호), 고태준(미신청), 고연수(미신청), 변판성, 김상수, 고영균(8755호), 고영원(8047호) 등이 잡혀갔으며 시기는 모심을 때였음.
5	허경 (許穎) (17)	허준 희생증언	2009.4.22. 통화보고서	· 허준(8992호, 참고인의 형)이 연행된 날은 6월 27~28일경으로 경찰 보조원이 유성경찰서로 데려감. 그 후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산내현장을 한번 판 적이 있었으나 시신이 서로 얽혀 있어서 수습하지 못하였음.
6	오월룡 (11)	허정 희생증언	2009.4.24. 통화보고서	· 허정(6137호, 참고인의 외삼촌)은 전쟁 전에 대덕군 동면에 살고 있었음. 참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허정(외삼촌)이 산내로 잡혀가서 희생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7	허경 (許逵) (14)	허정 희생증언	2009.5.13. 통화보고서	· 허정(6137호, 참고인의 아버지)은 전쟁 발발 며칠 후 밤에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감. 잡혀간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끌고 가서 사살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오월룡의 집으로 피난 갈 때 아버지는 이미 잡혀가고 없었음.
8	곽태진 (15)	박준 희생증언	2009.5.13. 통화보고서	· 박준(661호, 참고인의 고종사촌)은 집에서는 박준형으로 불렸으나 호적상 이름은 박준임. 박준은 사상문제로 잡혀갔다가 풀려났으나 전쟁 발발 후 또 다시 잡혀갔음.
9	유정자 (11)	유을득 희생증언	2009.5.13. 통화보고서	· 유을득(4064호, 참고인의 삼촌)은 전쟁 당시 순경들에게 붙잡혀 가서 죽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음. 그밖에 연행되어간 이유나 날짜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
10	강원근 (24)	김진태 희생증언	2009.5.13. 통화보고서	· 김진태(6407호, 참고인의 처남)는 전쟁 전에도 사상관계로 감옥을 들어갔다 나왔음. 그 후 풀려났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관계로 다시 잡혀가서 산내에서 죽었음.
11	김세영 (29)	김우영 희생증언	2009.5.13. 통화보고서	· 김우영(8991호, 참고인의 사촌)에 대해서는 1.4후퇴 후에 서로 집안의 안부를 물을 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전쟁 발발 후 경찰에게 끌려가 죽었다고 함.

제 4 권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2	김영태 (17)	김진태 희생증언	2009.5.13. 통화보고서	· 김진태(6407호, 참고인의 사촌)는 해방 후 대전형무소에 1년 정도 복역하였고 출소 후 보도연맹 사무실에 출근하였음.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사무실로 출근 하였으나 행방되었으며 그 후 듣기로는 산내에 가서 총살당했다고 들었음.
13	손월봉 (27)	유을득 희생증언	2009.5.14. 통화보고서	· 유을득(4064호, 참고인의 시아주버님(남편의 셋째형))은 산감(산림청)다니면서 동네 반장일을 보았음. 경찰에게 잡혀간 시점은 인민군들이 수원 정도 내려올 때이며 이후 산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14	김읍창 (23)	박준 희생증언	2009.5.18. 통화보고서	· 박준(661호)은 참고인보다 4세 정도 위로 박준이 살던 집과 참고인의 집은 200여 미터 정도 거리였음. 박준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죽었으며, 당시 잡혀간 사람들은 형무소에 가두었다가 전부 산내면에서 집단 총살시킴.
15	서태원 (12)	서창원 희생증언	2009.6.2. 통화보고서	· 서창원(5187호)은 참고인과 4촌간으로 바로 이웃에 살았음. 서창원은 전쟁 발발 후 사상문제로 경찰에 잡혀갔으며 그 후 산내에서 총살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음.
16	서종원 (32)	서창원 희생증언	2009.6.3. 통화보고서	· 서창원(5187호)은 참고인보다 10세 정도 아래로 6촌간임. 참고인이 영등포 방직공장 근무하다 일주일 정도 걸어서 고향으로 피난을 갔을 때 서창원이 잡혀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17	윤석철 (25) 민홍기 (18)	윤석보 류주열 희생증언	2009.6.4. 위원회 조사실	· 참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한국전쟁 당시 윤석보(미신청)와 류주열(미신청)이 잡혀간 사실을 증언함. 윤석보는 전쟁 전에 죄악관련 일을 했으며 경찰에게 잡혀 갔다 온 일이 있음. 그 후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나 이웃에 사는 류주열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모름.
18	민갑기 (16)	류주열 희생증언	2009.6.4. 위원회 조사실	· 참고인은 전쟁 당시 대전 중학 3학년이 재학중이었음. 윤석철이 참고인의 매형으로 그 딸(조카)과 류주열(미신청)의 딸(참고인의 처)이 동창생임.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안 내력을 잘 알고 있었음. 장인 류주열은 보도연맹으로 연행되어 산내에서 사살당했음.
19	최육천 (25)	박만호 희생증언	2009.6.11. 통화보고서	· 참고인은 전쟁 당시 대전에 거주하였으며 박만호(1480호)는 전쟁 당시 군인(혹은 경찰)에게 잡혀갔으며, 그 이후 돌아오지 않음.
20	이용우 (17)	김용호 희생증언	2009.6.11. 통화보고서	· 김용호(3982호)는 참고인의 이웃이며 그의 동생 김용규(신청인)와는 친구 사이임. 김용호는 한국전쟁 당시 사망관계로 끌려가 산내 골령골에서 사살되었음.
21	정○○ (25)	참전경찰 (유성경찰서 기성지서)	2009.6.13. 면담보고서	· 대전형무소의 죄수들은 산내에서 헌병과 교도관들이 전부 죽었음.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름. 지서에서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서로 가라'고 통보만 했음.
22	김달순 (16)	조유희 희생증언	2009.6.17. 통화보고서	· 조유희(미신청)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조유희는 고종사촌 오빠로 전쟁 당시 잡혀가서 죽은 것은 분명하다 함.
23	정○○ (23)	참전경찰 (대전서 역전파출소)	2009.6.18. 면담보고서	· 충남지역 관할의 보도연맹원들은 대전으로 집결시켜 대전형무소에 수감하였음. 대전형무소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헌병하고 경찰이 산내로 데려가서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24	류○○ (26)	참전경찰 (충남경찰국)	2009.6.18. 면담보고서	· 전쟁 때 충남경찰국 수사과에 근무했으나 경찰서의 독찰반(응원부대)에 선발되어 부여, 청양, 서천 등으로 다녔으므로 대전의 보도연맹처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25	박달수 (24)	문충환 희생증언	2009.7.7. 통화보고서	· 이종사촌 문충환(미신청)이 남선전기주식회사(한전의 전신) 대전지점 송전계에 근무하던 중 경찰에 연행된 후 사살됨.
26	양두이 (26)	문충환 희생증언	2009.7.7. 통화보고서	· 문충환(미신청)은 참고인의 남편으로 해방 후 남로당가입에 도장을 찍어 준 적 있으며(참고인은 정부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음) 그 일로 전쟁전에 경찰조사를 받은 적 있음. 전쟁 발발 후 대전경찰서로 연행된 남편에게 7월 1일까지 도시락 배달을 했음.
27	김중현 (12)	고영균 외 5인 희생증언	2009.7.15. 진술조서	· 대덕군 북면 갈전리 갈밭마을에서 10여 명 이상이 전쟁 발발 후에 신단진지서로 연행되었음. 고광선(2843호), 고영균(8755호), 고영원(8047호), 고연수(미신청), 고태준(미신청) 등이며 다른 사람은 기억나지 않음.
28	김순희 (13)	김백현 희생증언	2009.7.16. 통화보고서	· 아버지 김백현은 6월 25일 일요일 모내기를 하기 위해 논을 갈다가 친구 부름을 받고 나간 후 행방되었으며, 그 후 화요일 경에 어머니가 도착한 대전경찰서로 도시락 배달 갈 때 따라 간걸 기억함. 숙부 김백만은 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에 구금되어 있었음.(죄목은 모름)
29	김영수 (24)	김백현 희생증언	2009.7.22. 통화보고서	· 참고인 전쟁 당시 기관사로 근무했으며 대전시 동구 성남동에 살았으며, 이종사촌 형 김백현(7살위)이 대전철도국 전기과 발전소에 근무하던 중 형사들에게 끌려가 산내에서 사실당했다는 이야기를 형수로부터 전해 들었음.
30	김도영 (21)	김우영 희생증언	2009.7.24. 통화보고서	· 김우영(8991호)은 집안의 대종손으로 진천에서 바로 이웃에 살았으나 전쟁나기 전에 대전으로 이사 갔음. 김우영은 왜정 때부터 독립운동도 하고 사회주의와 관련된 일을 했음. 참고인이 의용군에 갔다 와서 형수(김우영의 처)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전쟁 발발 후에 경찰에게 잡혀간 후 행방되었다 함.
31	송덕순 (8)	허준 희생증언	2009.7.24. 통화보고서	· 허준(8992호)은 참고인의 매형으로 당시 살던 곳은 기성면과 진잠면의 경계지점이며 참고인은 진잠면에 살았으며 아주 가까운 곳임. 전쟁 발발 후 허준은 경찰에게 잡혀간 후 행방되었는데 그때 누님이 참고인의 집에 와서 울고불고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

3) 현장조사

대전의 희생현장인 낭월동(일명: 골령골, 곤룡골²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광역시

24) 곤룡산은 낭월동과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 걸쳐 있고 높이 327m의 산으로, 산의 모양이 마치 곤룡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곤룡산의 남쪽과 북쪽 사이, 낭월동의 동남쪽 편에 있는 고개 이름을 곤룡

제 4 권

동구 낭월동 1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행정동은 현재 산내동이다.

남쪽으로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는 충북 옥천군 군서면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접하고 있다.²⁵⁾

2007년 대전 산내 골령골의 유해발굴 결과, 4개 지점을 조사해서 그중 2개 지점에서 유해를 확인하였는데 각각 29구, 5구가 발견되어 모두 34구가 발굴되었다. 그중 29구의 배치는 대략 7행 4열 구조로 대부분 무릎이 굽혀지고 상체가 엷어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아 비좁은 매장지 안에 들어가 앉은 자세에서 집단사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해들에서 다량의 탄알과 탄피가 출토되었다는 점과 유해들의 정형적인 매장자세 등이 이를 입증해 준다.²⁶⁾

그러나 대전 산내에서는 총 7개 지점으로 추정되었던 유해매장지 중에서 4개 지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유해발굴작업을 실시하게 되어 발굴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유는 당초 유력한 집단매장지로 선정되었던 두 지점에서는 토지 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다른 한 지점은 토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1] 낭월동 현장과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



재(곤룡티, 골령이)라고 부르는데 본래 이 곤룡재는 산의 형국이 마치 용과 같다는 데서 따와 붙여졌다고 하지만, 지금 이곳에 사는 노인들은 6.25 당시 양민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대량 학살하여 죽은 사람의 뼈가 산처럼 쌓였었으니 골룡이는 골령의 예언적 지명이라고 한다. (대전동구문화원, 동구 지명소개, http://dgcc.or.kr/h_004.htm).

25) 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외남면의 대벌리 일부와 응전리를 병합하여 구도리라하고 대전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다.

26) 진실화해위원회 · 충남대학교박물관, 『大田 山內 골령골 遺骸埋葬地 發掘報告書』, 2007.

4) 사건경위

가) 대전 국민보도연맹 조직

대전시 보도연맹 결성식은 1950년 2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시내 각 관공서장 및 지방유지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여기서 피선된 임원으로는 지도위원장에 윤준영(尹峻榮)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상임지도위원 겸 상임이사에 강의□, 명예이사장에 손수도(孫水道) 대전시장, 이사장에 박몽실(朴蒙實) 대전경찰서장, 사무국장 박로정, 간사장 □구택, 총무부장 남영□, 선전부장 김세근 등이다.²⁷⁾

나)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예비검속

대전지역의 예비검속은 1950년 6월 25일로 전쟁 발발 당일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인 양두이(26)는 '전쟁 나던 날 저녁에 남편(문충환, 미신청)이 경찰에 연행되어 갔으며, 그 이튿날 남편이 대전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시동생이 알아왔다'고 한다.²⁸⁾ 신청인 박준수(다-661호)는 '1950년 6월 26일 당시 군인으로 휴가 나온 상태에서 형 박준(朴準)이 유성경찰서로 출두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을 본 후 부대로 복귀하였다' 한다.²⁹⁾ 또한 윤순득(다-2843호)은 '남편 고광선(高光善)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나간 날이 음력 5월 11일(양력 6월 26일)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제삿날을 정했다'고 한다.³⁰⁾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에 살던 참고인 허경(당시 17세, 다-8992호 관련)은 형 허준(許煥)이 경찰서로 간 날이 1950년 6월 27일이나 28일경이라 하며 경찰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흑석리에 사는 사람(참고인은 경찰 보조원으로 추정)이 와서 유성경찰서로 데려갔다 한다. 당시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그냥 '가자'고 했는데 참고인도 흑석리 굴까지 약 1km를 따라갔다 한다.³¹⁾ 이러한 진술로 미루어 이 시기의 예비검속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경찰의 소집명령을 받고 출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 동방신문, 1950.2.16.

28) 참고인 양두이 통화보고서(2009.7.7.).

29) 신청인 박준수 진술조서(2008.8.26.).

30) 신청인 윤순득 진술조서(2008.1.31.).

31) 참고인 허경 통화보고서(2009.4.22.).

○ 구금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대전경찰서, 유성경찰서(서대전경찰서), 대전형무소 등에서 며칠 동안 분산 구금되었으며, 일부는 예비검속 후 바로 골령골 현장으로 끌려갔다.³²⁾ 대전형무소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은 대전을 비롯하여 충남 여러 지역에서 이송되어온 보도연맹원들로 보인다. 당시 충남의 여러 지역에서 대전형무소로 이송된 사실은 각종 기록³³⁾과 증언³⁴⁾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충남 여러 지역에서 이송되어온 보도연맹원중 어느 정도의 수가 어떤 이유로 대전형무소에 구금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중 희생자가 구금된 장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김용규(다-3982호)의 4촌 매형(장씨, 현재 사망)은 당시 대전 산내 현장부근에 살다가 구덩이 파는데 동원이 되었는데, 대전형무소에서 끌려온 사람가운데 신청인의 형(兄) 김용호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³⁵⁾

신청인 유정렬(다-4064호)은 숙부 유을득이 대전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산내에서 희생된 사실을 당시 같은 동네 주민이며 대전형무소에 근무하였던 한○○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³⁶⁾

신청인 박주양(다-8300호)은 조카 박승호(현재 작고)가 당시 방위군 소속으로 대전형무소 수용자들을 산내 골령골로 수송하던 중 대전경찰서에서 산내로 끌려온 사람 중에 보도연맹원이었던 숙부 박봉양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³⁷⁾ 참고인 정광임(당시

32) 구금장소에 대한 신청인들의 진술은 박준(다-661호) 유성경찰서, 박만호(다-1480호) 대전경찰서, 김용호(다-3982호)는 대전형무소, 고광선(다-2843호) 등 갈전리 사람들은 모름, 유을득(다-4064호) 대전형무소(추정), 서창원(다-5187호) 대전형무소(전문), 허정(다-6137호) 대전형무소(추정), 김진태(다-6407호) 모름, 고영일(다-8047호) 모름, 박봉양(다-8300) 대전경찰서, 고영균(다-8755호) 대전경찰서(추정), 김우영(다-8991호) 모름, 허준(다-8992호) 유성경찰서(추정) 등이다.

33) 『서산경찰서 연혁사』 중 ‘직원순직 급 중대조난사항’ 항목에서 경위 조정찬의 순직사유에는 ‘동년(1950년) 7월 9일 좌익극렬분자(보련)등을 대전형무소로 압송도중 홍성 장곡면에서 자동차 발화사고로 소사(燒死)순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충남서부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1, 40쪽.); 또한, 7월 6일경 충남 서산에서 보도연맹원 400여 명이 트럭에 실려 대전으로 이송되는 것을 미군 군속이 목격하였다.(Conditions in north Korean Held Terrioty, NARA RG 338, AMERICAN CONSULAR OFFICE(1950, 8.12)).

34) 태안경찰서 당시 순경으로 근무하였던 참고인 이○○과 전쟁 당시는 소방대원이었다가 수복 후에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이○○ 등도 태안의 보도연맹원중 중동자급은 대전형무소로 이송했다고 진술하였다.(충남서부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1, 16쪽.);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9.6.18.); 참고인 여운형 면담보고서(2009.6.17.)

35) 신청인 김용규 진술조서(2008.1.30.).

36) 신청인 유정렬 진술조서(2008.2.1.).

37) 신청인 박주양 진술조서(208.2.13.).

22세, 다-1480호 관련)³⁸⁾은 남편 박만호(朴萬鎬)와 동네(대전시 중구 대사동)사람 8명이 1950년 7월 14일(음 5.29.) 저녁에 경찰에게 연행되자 그 이튿날 대전경찰서로 남편을 찾아 갔다. 오후 5시경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린 후 차도 사람도 다닐 수 없을 때 경찰서에서 그 전날 잡혀온 사람들이 경찰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참고인은 경찰서 앞 나무 밑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한다.³⁹⁾

또한, 당시 대한청년단원으로 현장에 동원된 김기형(21)에 따르면 현장에는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죄수들 외에 들판에서 일하다 붙잡혀 온 사람과 여자들도 있었다고 한다.⁴⁰⁾

○ 사살 및 시신수습

참고인 황내서(20)는 당시 방위대원으로 호국군들과 함께 골령골 부근 산등성이에서 일주일간 보초를 서면서 대전형무소 죄수와 보도연맹원들이 사살당하는 총소리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이 동네 사람들을 시켜서 구덩이를 파게 했으며, 사살은 7월 초순 어느 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4시경까지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다고 한다.⁴¹⁾

참고인 김기형(21)에 의하면 경찰과 헌병들이 뒤에서 총을 쏘아 사살하면 참고인 등 대한청년단원들이 그 시신을 구덩이로 던져넣는 일을 담당했다. 당시 대한청년단원들은 돌아가면서 동원되었는데 참고인은 이틀간 동원되어 하루는 직접 구덩이 파고 시신 묻는 일을 도왔으나 하루는 도로 보수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⁴²⁾

도 경찰국 사찰주임으로 대전형무소 및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총살집행 책임자 중 한사람이었던 변○○은 지난 92년에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3일 동안은 나무에 묶어놓고 죄수들을 처형했고, 그 이후에는 죄수들을 앉히거나 눕혀놓고 처형했으며, 죄수처형이 끝난 그 뒤 3일 동안은 보도연맹원과 불순분자로 끌려온 5백여 명을 계속 처형했다’고 밝힌 바 있다.⁴³⁾

38) 정광임은 신청인 박성관의 모(母)로서 참고인 자격으로 신청인 조사에 동참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은 박성관의 진술조서에 실려 있다.

39) “경찰들이 사람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사람들을 엮드리게 한 다음 그 위에 거적 데기(가마떼기)로 덮어서 가렸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 옆으로 둘러앉아서는 어디 룬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날 데리고 온 사람들을 싣고 갔으니 그 속에서 있었겠지요. 사람들을 싣고 간 그 이튿날 다시 경찰서를 갔더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마당에 서류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신청인 박성관 진술조서(2008. 8. 30.)).

40) 참고인 김기형 면담보고서(진술녹취-2009.2.23.).

41) 참고인 황내서 면담보고서(진술녹취-2009.2.23.).

42) 참고인 김기형 면담보고서(진술녹취-2009.2.23.).

제 4 권

한편, 산내 희생자의 유족들은 대부분 시신수습을 하지 못했다. 사살 당시는 현장 접근이 어려웠으며 경찰 후퇴 직후 인공점령시기에 유족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시신들의 부패가 심해 수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참고인 정광임의 다음 진술이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시신수습도 못 했습니다.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보도연맹으로 죽은 사람들 시신을 찾아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꿩이하고 흠이불을 가지고 산내를 갔습니다. 산내에 갔더니 구덩이를 파고는 사람들을 죽여서 묻어 놓았는데 뼈가 땅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고,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뼈를 당기면 뼈만 썩 뽑혀 나왔기 때문에 시신수습할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마침 비가 쏟아져서 전부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산내에 간 적이 없습니다.”⁴⁴⁾

대전 산내에서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과 형무소 수형자들에 대한 집단총살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 등 UN군 측에서 나온 기록은 대체로 1950년 7월 초순(1일, 2일, 첫째 주 3일 등)경으로 잡고 있다. 당시 현장 목격을 했거나 취재한 기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⁴⁵⁾

①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보관되다가 1999년 12월 16일 비밀 해제된 문서에는 ‘대전에서 벌어진 정치범(Political prisoners) 1800여 명에 대한 처형은 1950년 7월 첫째 주 3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서는 주한 미 대사관 육군무관 밥 에드워드 중령이 50년 9월 23일 보고한 것으로 여기에는 대전 정치범 처형장면을 찍은 사진 18장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⁴⁶⁾

② 미군 제25 CIC 분견대의 1950년 10월 7일자 전투일지 및 활동보고서에는 ‘1950년 7월 1일 한국정부의 지시로 경찰이 대전과 그 인접지역에서 1,400여 명의 민간인(Civilians)들을 살해했다. 이들은 과거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⁷⁾

43) 노가원, 「대전형무소 4천3백명 학살사건-최초공개」, 『말』 68호(1992, 2.), 122~131쪽.

44) 신청인 박성관 진술조서(2008. 8. 30.).

45) 이에 대해 당시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 부대장이었던 이○○은 현병대가 대전형무소에 구금된 정치범(보도연맹원 포함) 등을 넘겨 달라고 한 것이 1950년 7월 7일이며, 8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이들을 산내에서 사살했다고 한다. 이○○은 이들을 산내로 이송할 때 수송책임을 맡았으며 현병대의 지시에 의해 확인사살도 직접 했다고 한다.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 진실화해위원회·충북대학교 박물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관련 2007년 유해발굴보고서』(이하 ‘2007년 유해발굴보고서’), 제2권 인문사회조사(상), 2008, 251쪽.

46)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 23 Sept 1950,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G-2 ID File, Box 4622, Item 715579.

③ 미 육군성 G-2 에이할트(Ahalt) 대령은 7월 3일 유럽지구 총사령관 등 해외지구 사령관에게 보낸 비밀통신문에서 ‘한국경찰이 대전에서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해 시 외곽에서 처형하고 있다’면서 ‘7월 2일 오후 6시께 한국 국방부장관 신성모가 수원에서 지프를 타고 대전으로 왔고 채(병덕) 장군과 한국군 G-2 강대령 등 참모 6명이 동행했다’고 전하고 있다.⁴⁸⁾

④ 영국 『데일리워크』 기자 앨런 위닝턴은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라는 8월 9일자 기고에서 ‘7월 4일, 5일, 6일 형무소와 대전부근의 집합소에 모여 있던 정치범들이 트럭에 실려 이 계곡(산내 낭월동)으로 끌려와 총에 맞아 구덩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농부들이 그 위에 흙을 덮었다’고 적고 있다.⁴⁹⁾

대전형무소 정치범들과 구금된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사살이 1950년 7월 1일부터 행해진 것인지는 현재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7월 1~2일경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침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1950년 7월 1일 새벽 무렵 임시수도 대전에는 인민군이 몇 시간 내에 대전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한다.⁵⁰⁾ 대전에 머물던 정부요인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나는 과정에서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했으며,⁵¹⁾ 따라서 이 시점 이후 대전형무소 측에 이들에 대한 처형명령이 하달되었던 것 같다. 당시 형무소 특별경비대 부대장 이○○은 “7월 1일 새벽 세시경 검사장으로부터 ‘공산당 우두머리, 책임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다.⁵²⁾

47) *War Dirary and Activity Report* : 7 October 1950, NARA, RG 407 Entry 429, Box 3758, 25TH CIC DETACHMENT(1950.11.2.).

48) *OUTGOING CLASSIFIED MESSAGE*(RG 319, BOX 85, File 9123-00-00789).

49) *Winnington, I saw the truth in korea*, 1950.

50) 당시 재무차관이며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유택(金裕澤)은 그때 상황을 “1일 새벽녘인데 총무처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직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맥아더 전방지휘소의 비치중령의 체보라면서 적의 탱크가 대저 한강을 도하, 벌써 평택에 들어왔고 몇 시간 후면 대전으로 내려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허둥지둥 대전역에 나가 피난길에 올랐지요. 전주까지 갔다가 그게 오보라는 것이 판명되어 그날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983, 270쪽.).

51)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李瑄根)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7월 1일 새벽에 성남장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데 충남지사 관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면서 급히 오라는 호출이 왔어요. ~ (중략) 즉 문제는 대전형무소에 있는 2천여 명의 적색수감자들인데, 지금 형편 같아서는 이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 이것을 절대 막아야 한다.(하략)”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983, 283쪽.).

52) “6.25가 나가지고서, 보도에 의하면 인민군 탱크가 평택평야를 달린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던 말이며, 근데 7월 초하루, 제가 2층 교회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계동이라고 하는 당직 간수장이 허겁지겁 오더니 ‘이대장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검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새벽 미명을 기해서 대규모 적의 공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우두머리, 책임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 (하략)~”.(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7년 유해발굴보고서』, 제2권 인문사회조

제 4 권

또한, 참고인 양두이(26)는 7월 1일까지 대전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남편 문충환(미신청)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였고 7월 2일 도시락을 가지고 갔을 때 이미 경찰서가 비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⁵³⁾

이러한 여러 기록과 증언으로 미루어 대전과 그 인접지역의 보도연맹원등 예비검속자에 대한 사살은 7월 1~2일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에서 사살이 진행된 기간에 대해서 당시 총살책임자 중 한사람인 충남도경 사찰주임인 변○○의 증언 중 '구덩이 앞에서 10여 명씩 사살'한 장면은 형무소 특경대장이○○이 증언한 '형무소 정치범(구금된 보도연맹원 포함)'의 사살과정과 일치한다. 이로 미루어 그가 말하는 '형무소 정치범'들이 사살당하기 전, 즉 7월 7일 이전과 10일 이후에도 보도연맹원등에 대한 사살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⁵⁴⁾

또한 앨런 워닝턴에 의하면 '7월 4~6일 동안 형무소 정치범들이 처형당하고 나머지 10일 동안 다른 지역의 죄수들이 「비어 있는 감옥」으로 집중적으로 옮겨왔으며 이들은 금강방어선이 무너진 직후인 7월 17일 살해(slaughter) 되었다'고 한다.⁵⁵⁾ 이 내용 중 「비어 있는 감옥」을 채운 다른 지역의 죄수」들이 곧 충청도 각지에서 대전으로 이송되어 온 보도연맹원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서도 본바와 같이 당시 충남의 각 지역에서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었다는 것은 각종 기록과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⁵⁶⁾

런던 「옵서버」지의 중군기자로 활동하다가 1950년에 북한군 포로가 된 필립 딘(Philip Deane)은 대전에서 총살현장을 목격한 프랑스 신부 카다르(72)의 말을 빌려 '미군이 대전에서 철수하기 직전 남한 경찰에 의한 대규모의 죄수처형' 사실을 전하고 있다.⁵⁷⁾ 공식적으로 미군이 대전에서 철수한 날은 7월 20일이나 시내에 북한군이 나타난 것은 7월 19일

사(상), 2008, 239쪽.). 그러나 7월 1일 당일은 이들에 대한 사살이 없었으며 도경(道警)기동대와 웅진부대(17연대)의 응원으로 형무소는 유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형무소를 응원한 부대가 웅진반도에서 후퇴한 백인엽의 17연대라는 사실은 정훈국장 이선근의 증언과 일치한다.(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983, 283쪽.).

53) 참고인 양두이 통화보고서(2009.7.7.).

54) 변○○에 따르면 '구덩이 앞에서 10여 명씩 엮어놓고 사살'하기 전에는 죄수들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살했다고 한다.(노가원, 「대전형무소 4천3백명 학살사건-최초공개」, 『말』, 1992, 2, 122~131쪽.; 변○○의 증언 내용은 당시 학살현장에 동원되었던 대한청년단원 김기형의 증언, 기타 미국문서에서 발견된 사진과도 일치한다.

55) Alan Winnington, 앞의 글, 1950.

56) 각주 34), 35) 참조.

57) 런던 「옵서버」지의 필립 딘(Philip Deane)은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평양에 머물고 있으면서 스파이가 아님을 입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던 중 알렌 워닝턴을 만나 대전의 일을 전해 들었으나 카다르 신부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기 전까지는 워닝턴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Philip Deane, *I Was A Captive in Korea*, 1953, 91~92쪽.).

정오경⁵⁸⁾이었으므로 카다르가 말한 시점은 위닝턴의 보도내용(7월 17일)과 비슷한 시기라고 보인다.

요약하면 대전형무소 정치범(일부 보도연맹원 포함)의 사살 날짜에 대한 증언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기간은 3일로 일치한다. 즉, 위닝턴은 7월 4, 5, 6일이라고 한 반면⁵⁹⁾ 이○○은 7월 8, 9, 10일이라고 증언하였다. 변○○은 이 날짜를 포함하여 그 전·후의 3일 동안 또 다른 ‘처형’이 있었으며 특히 마지막 3일은 보도연맹원과 좌익불순분자 등이 처형되었다고 기억한다.

이러한 여러 내용에 의하면 대전경찰서·형무소에 구금되었거나 충남 여러 지역에서 곧바로 실려 온 대전지역의 보도연맹원에 대한 사살은 50년 7월 1~2일경에 시작되어 경찰과 헌병대의 후퇴 시점인 7월 17일경까지 이어졌으며, 그 사이 3일간은 주로 대전 ‘형무소 정치범(일시 구금된 보도연맹원 포함)’이 사살된 것으로 보인다.

다) 희생규모와 희생자 신원

대전 산내에서 희생된 수형자 및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수(數)에 대해서는 600~700여 명,⁶⁰⁾ 1400여 명,⁶¹⁾ 1,700여 명,⁶²⁾ 1,800여 명,⁶³⁾ 3,000여 명⁶⁴⁾, 3,500여 명,⁶⁵⁾ 7,000여 명⁶⁶⁾ 이상 등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이는 대전형무소 정치범과 대전을 비롯한 충남일대에서 이송된 보도연맹원이 포함된 전체 희생규모이다. 이 중에서 형무소 정치범을 제외한 보도연맹원의 희생규모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군 제25 CIC 분견대의 1950년 10월 7일자 전투일지 및 활동보고서에는 「1950년 7월

58)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부도』, 황금알, 2003, 48쪽.

59) Alan Winnington, 앞의 글, 1950.

60) 이○○은 산내에서 사살된 형무소 정치범을 대략 600~700여 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도연맹원들이 포함되지 않을 때의 규모라고 한다.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 『2007년 유해발굴보고서』, 제2권 인문사회조사(상), 2008, 239쪽.)

61) ‘War Dirary and Activity Report’ : 7 October 1950, NARA, RG 407, Entry 429, Box 3758. 25TH CIC DETACHMENT(1950.11.2.).

62) Philip Deane, *I Was A Captive in Korea*, Norton, New York, 1953, 91쪽.

63)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 23 Sept 1950,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G-2 ID File, Box 4622, Item 715579.

64) 당시 좌익세력이 강했던 논산군 성동면의 참고인 여운형에 따르면 인민군이 진주했을 때 인민위원회에서 대전 산내 사망자통계를 낸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정치범을 포함한 총인원이 약 3,0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참고인 여운형 면담보고서, 2009.6.17.; 노동신문, 1950. 8.11.; 신경득, 『조선중군 실화로 본 민간학살』, 살림터, 2002, 139쪽).

65) 노가원, 「대전형무소 4천3백명 학살사건-최초공개」, 『말』68(월간 말), 1992, 2, 122~131쪽.

66) Alan Winnington., 앞의글, 1950.; 해방일보, 제67호, 1950년 9월 6일.(신경득, 앞의 책, 127쪽).

제 4 권

1일 한국정부의 지시로 경찰이 대전과 그 인접지역에서 1,400여 명의 민간인(Civilians)들을 살해했다. 이들은 과거 공산단체에 가입했거나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⁶⁷⁾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과거 공산단체에 가입했거나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민간인(Civilians)’들은 정치범(Political Prisoners) 혹은 수형자(Prisoners)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에서 보도연맹사건 관련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중 6월 25~30일경에 출두 혹은 연행되었다는 진술이 많은 점, 그리고 7월 1일까지 면회를 했으나 7월 2일경 대전경찰서가 비어 있었다는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⁶⁸⁾

또한 앨런 워닝턴에 의하면 ‘금강방어선이 무너진 7월 17일 수많은 여자를 포함하여 각각 100명씩 37대 트럭분 3,700명 이상이 살해(slaughter)되었다’고 한다.⁶⁹⁾

런던 『옵서버』지의 필립 딘(Philip Deane)은 프랑스 신부 카다르(72)의 말을 빌려 ‘미군이 대전에서 철수하기 직전 남한 경찰이 1,700명의 죄수들을 트럭에 겹겹이 싣고 와서는 자기가 있던 교회 부근 숲에서 처형했다’고 한다.⁷⁰⁾

그밖에도 1992년 총살집행책임자 변○○을 인터뷰한 월간 『말』지의 기사는 당시의 여러 증언들로 미루어 ‘국군과 경찰은 후퇴하기 직전 대전형무소 재소자 3,000여 명과 대전과 대전인근에서 잡아들인 보도연맹원 및 좌익불순분자 500~1,000여 명을 집단학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¹⁾

그러나 이러한 기록과 증언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미군 CIC 보고서 내용

67) *War Dirary and Activity Report* : 7 October 1950, NARA, RG 407, Entry 429, Box 3758. 25TH CIC DETACHMENT(1950.11.2.).

68) 신청인 박준수 진술조서; 신청인 윤순득 진술조서; 신청인 김용규 진술조서; 신청인 김인태 진술조서; 신청인 박주양 진술조서; 신청인 허상균 진술조서; 미신청인 유기선 진술조서; 참고인 허경 통화보고서; 참고인 양두이 통화보고서 등.

69) 앨런 워닝턴의 기사내용 중 희생규모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계속해서 수많은 ‘정치범’들이 그 근처에서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서울과 대전사이의 도시들에서 살해당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어떤 이는 3,000명, 어떤 이는 4,000명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종종 그렇듯이 사실은 소문보다 훨씬 나빴다. ~중략~7,000명이 넘는 남녀의 시신들이 얇은 흙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Alan Winington., 앞의 글, 1950.)

70) 카다르 신부는 인민군들이 대전을 접수했을 때 그곳에 있었다. 그에 의하면 미군이 대전에서 철수하기 바로 직전 남한 경찰들이 1,700명의 남자들을 그가 있던 교회 근처의 숲속으로 트럭에 다 겹겹이 싣고 왔다. 이 죄수들은 기도량을 파도록 명받았으며 그것을 카다르 신부와 몇 명의 미군장교들이 지켜보았다. 얼마간의 구멍이 완성되었을 때 남한 경찰들은 죄수들 중 절반을 뒤에서 사살했으며 나머지 절반에게 그 시신을 파묻도록 명령했다. (중략) 그들은 매번 반씩 줄어들었고 살아남은 절반이 그들 차레가 돌아올 때까지 시신들을 묻었다.(Philip Deane, 『I Was A Captive in Korea』, 1953, 91쪽.).

71) 노가원, 앞의 글, 127쪽.

으로는 7월 1일 이후에 희생된 규모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위닝턴의 보도내용은 전체 희생규모를 산출하는 방식(100×37=3,700명)에 문제가 있다. 한국전 당시 촬영된 사진과 각종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군용트럭 1대에 탈 수 있는 인원은 최대 40여 명 정도이고 아무리 겹겹이 실었다고 해도 트럭 1대의 수용인원이 100명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⁷²⁾

또한, 필립 딘의 증언은 프랑스 신부 카다르로부터 전해들은 전문(傳聞)에 불과한 한계가 있으며, 변○○의 증언 또한 몇 차례의 면담과정에서 진술이 서로 달라졌다는 점⁷³⁾에서 희생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엔 무리가 따른다.

현재까지 나온 기록과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대전 산내에서 희생된 보도연맹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지, 미군 제25 CIC 분견대의 보고서 내용인 7월초의 희생자와 프랑스신부가 증언한 후퇴 직전(7월 17일경)의 희생자들은 대전과 충남 여러 지역에서 온 보도연맹원일 가능성은 크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기록, 법원기록, 제적부⁷⁴⁾ 등 각종 국가기관 생산자료에 희생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며 다른 정황이 뒷받침될 때는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둘째, 가해자 및 제3자가 사건현장에서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셋째, 연행과정 및 시신수습 등에 가족의 증언만 있을 경우라도 주변정황(예:족보 등의 사망일이 일치하는 경우)이나 참고인의

72) 트럭에 태워진 인원에 대해서,

①당시 총살집행책임자 중 한사람이었던 변○○은 1992년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럭에다 2중 3중으로 실었습니다. …트럭 적재함에 쭉그러뜨리고 앉으면 위에 또 얹고 차곡차곡 싣고 왔습니다.”라고 하며 트럭 1대당 대략 60여 명씩 실어왔다고 증언하고 있다.(노가원, 『대전형무소 4천3백명 학살사건-최초 공개』, 『말』, 1992, 2, 127쪽.)

②낭월리 주민 임선기(2000년 당시 77세)는 “골령골로 들어가는 트럭마다 사람들이 겹겹이 포개 실려 있었어.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면 군인들이 총끝으로 내리찍고 무작스럽게 두들겨 패더라고. 하두 포개실어 놔으니 몇 명이 났는지도 모르지. 울타리 틈새로 그걸 봐노니까 무서워 살 수가 있다. 마을사람들이 하두 무서워 방문꺼정 걸어 잠겼어.”(심규상, 『1950년 7월 8일 낭월동을 기억하라』, 『말』, 1992, 2, 77쪽.)

③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참고인 중 당시 학살현장에 동원된 김기형(21)과 황내서(20)는 트럭 1대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약 30~40명 정도라 하였다.(김기형 진실녹취록(2009.2.23.); 황내서 진실녹취록(2009.2.23.)).

73) 변○○은 첫 번째 인터뷰에서 당시 산내면 낭월리 골짜기에서 학살한 숫자가 “몇 천 명이 됐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가 두 번째 인터뷰 때는 “형무소 재소자들과 보도연맹원 등 1천여 명 정도”였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노가원, 앞의 글, 130쪽)

74) 제적부의 사망사실은 대부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신고를 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정확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전쟁 발발 시점인 1950년 6월 25일(음력 5월 10일)부터 대전지역의 총살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7월 17일(음력 6월 3일)사이에 사망한 경우는 전부 희생사실 확인의 근거로 삼았다. 단 음력을 주로 사용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적부에 등재된 기간 중 始期는 음력을, 終期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1950년 5월 10일~7월 17일 사이에 사망한 기록은 희생사실 ‘확인’의 근거로 삼았다.

제 4 권

진술이 뒷받침될 때는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넷째, 신청인이나 참고인의 증언을 통해 희생자로 거론된 경우에는 유족에 대한 조사 및 제적부 등을 통한 신원확인을 거쳐 희생자로 확인하였다.⁷⁵⁾

이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는 희생자로 '추정'하였다. 첫째, 국가기관 생산자료에 단순히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며, 정황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희생자로 추정하였다. 둘째, 각종 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다소 의심되는 경우 희생자로 추정하였다. 셋째, 연행과정이나 시신수습에 관하여 가족의 증언만 있을 경우에도 주변정황에 비추어 희생자일 개연성이 높으면 희생자로 '추정'하였다.

현재까지 경찰자료상 공식적으로 산내 사건을 직접 다룬 것은 찾아내지 못했다. 단지 서대전경찰서에서 작성한 『신원기록편람』(1981년)의 일부 내용 중에는 '6.25 당시 산내에서 처형'된 자를 포함한 처형자명부가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총 5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중 보도연맹관련자는 3명이다. 그러나 자료의 생산시점이 전쟁 당시가 아닌데다 일부내용에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⁷⁶⁾

〈표 4〉 대전지역 희생자 명단

연번	사건 번호/ (미)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희생 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당시 주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관련 기록	
1	661 박준수	박준 (朴準)	남	25	형	충남 대덕군 회덕면 읍내리	○	○77)			확인
2	1480 박성관	박만호 (朴萬鎬)	남	28	부	충남 대전 중구 대사동	○	○78)			확인
3	2843 윤순득	고광선 (高光善)	남	26	남편	충남 대덕군 북면 갈전리	○	○79)			확인
4	3982 김용규	김용호 (金龍虎)	남	23	형	충남 대전 중구 문창동	○	○80)			확인

75) 참고인의 진술로 보아 희생자일 개연성이 높으나 유족미확인(제적부 부재) 등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희생자 확인'을 못 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들로서는 대덕군 북면 갈전리의 변관성·김상수,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의 박찬규 등이 있다.

76) 처형자 명부에 기재된 3명은 김사예(金四禮, 1909년생, 충남 대전시 동구 성남동), 송준호(宋俊鎬, 1921년생, 대전시 중구 옥계동), 박관하(朴觀夏, 1910년생, 대전시 중구 대흥동) 등이다. 그중 송준호의 특이사항란에는 '6.25 당시 주소지에서 보도연맹으로 활동. 50년 4월 대덕군 산내면에서 처단된 자'라고 되어 있어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

연번	사건 번호/ (미)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희생 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당시 주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관련 기록
5	4064 유정렬	유을득 (柳乙得)	남	35	숙부	충남 대전시 판암동	○	○81)		제적부 ⁸²⁾	확인
6	5187 서창임	서창원 (徐昌源)	남	21	오빠	충남 대덕군 동면 신촌동	○	○83)			확인
7	6137 허린	허정 (許挺)	남	52	부	충남 대전시 신안동	○	○84)			확인
8	6407 김인태	김진태 (金進泰)	남	24	형	충남 대덕군 유성면 구암리	○	○85)			확인
9	8047 고인선	고영원 (高泳源)	남	33	부	충남 대덕군 갈전리	○	○86)			확인
10	8300 박주양	박봉양 (朴鳳陽)	남	27	형	충남 대전시 은행동	○				추정 87)
11	8755 고군선	고영균 (高泳均)	남	24	숙부	충남 대덕군 북면 갈전리	○	○88)			확인
12	8991 김인성	김우영 (金宇泳)	남	40	조부	대덕군 기성면 장안리	○	○89)			확인
13	8992 허상균	허준 (許焮)	남	30	부	충남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	○	○90)			확인
14	미신청 문규열	문충환 (文忠煥)	남	30	부	충남 대전시 인동	○	○91)			확인
15	미신청 류종언	류주열 (호적: 류성업, 柳聖業)	남	45	부	충남 대전시 인동	○	○92)	○93)		확인
16	미신청 윤여성	윤석보 (尹錫輔)	남	30	부	충남 대전시 인동	○	○94)		족보 ⁹⁵⁾	확인
17	미신청 유기선	고태준 (高泰準)	남	18	시숙 (媿叔)	충남 대덕군 북면 갈전리	○	○96)			확인
18	미신청 고순예	고연수 (高連壽)	남	25	부	충남 대덕군 북면 갈전리	○	○97)			확인
19	미신청 김홍균	김백현 (金百鉉)	남	32	부	충남 대전시 동구 가양동	○	○98)			확인
20	미신청 조재희	조용희 (趙容禧)	남	23	형	충남 대전시 대흥동	○	○99)			확인
21	미신청	김사예 (金四禮)	여	41		충남 대전시 동구 성남동				신원기록편람 100)	추정

제 4 권

연 번	사건 번호/ (미)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희생 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당시 주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관련 기록
22	미신청	송준호 (宋俊鎬)	남	39		충남 대전시 중구옥계동				"	추정
23	미신청	박관하 (朴觀夏)	남	40		충남 대전시 중구 대흥동				"	추정

라) 가해주체

가해주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진술은 일관되게 경찰 현병을 지목하고 있다. 가해주체와 관련된 진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77) 참고인 광태진 통화보고서(2009.5.13.); 참고인 김읍창 통화보고서(2009.5.18.).
- 78) 참고인 정광임(신청인 박성관 진술조서:2008.8.30.); 참고인 최육천 통화보고서(2009.6.11.).
- 79) 참고인 고정선 통화보고서(2009.3.26.); 참고인 김종현 진술조서(2009.7.15.).
- 80) 참고인 신태순 통화보고서(2009.2.11.); 참고인 이용우 통화보고서(2009.6.11.).
- 81) 참고인 유정자 통화보고서(2009.5.13.); 참고인 손월봉 통화보고서(2009.5.14.).
- 82) 제적부 사망일자: 단기 4283년(1950년) 6월 23일
- 83) 참고인 서태원 통화보고서(2009.6.2.); 참고인 서종원 통화보고서(2009.6.3.).
- 84) 참고인 오월룡 통화보고서(2009.4.24.); 참고인 허경(許逕) 통화보고서(2009.5.13.).
- 85) 참고인 강원근 통화보고서(2009.5.13.); 참고인 김영태 통화보고서(2009.5.13.).
- 86) 참고인 고정선 통화보고서(2009.3.26.); 참고인 김종현 진술조서(2009.7.15.).
- 87) 신청인의 진술내용(2008.2.13.)으로 미루어 산내에서 사살되었을 개연성은 높아 보이나 희생자를 확인한 참고인이나 기록(제적부 등)의 흠결 등 근거가 부족하며, 또한 신청인 조사 후 신청인의 사망(가족의 연락 불능)으로 관련사항을 문의할 수도 없어 '추정'으로 하였다.
- 88) 참고인 고정선 통화보고서(2009.3.26.); 참고인 김종현 진술조서(2009.7.15.).
- 89) 참고인 김세영 통화보고서(2009.5.13.); 참고인 김도영 통화보고서(2009.7.24.).
- 90) 참고인 허경(許穎) 통화보고서(2009.4.22.); 참고인 송덕순 통화보고서(2009.7.24.).
- 91) 참고인 박달수 통화보고서(2009.7.7.); 참고인 양두이 통화보고서(2009.7.7.).
- 92) 참고인 윤여성 진술조서(2009.6.4.); 참고인 민갑기 면담보고서(2009.6.4.).
- 93) 대전 산내지역의 경우 시신들이 서로 엉겨 붙어 있어 시신수습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으나 류주열의 경우 고향인 옥천 주민 중 산내 현장에 작업자로 부역을 갔다 온 사람이 '세신 양복점 주인이 어디쯤 묻혔다' 라고 정확한 장소를 알려 주어서 시신수습이 가능했다 함. 당시 옷가지와 버클을 보고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 버클은 현재도 보관중이라 함. 참고인 류충언 진술조서(2009.6.9.)
- 94) 참고인 류충언 진술조서(2009.6.9.); 참고인 윤석칠 면담보고서(2009.6.4.).
- 95) 윤석보의 사망일: 경인(1950)년 5월 29일(양 7.14) 후.(파평윤씨노종파보(1983년))
- 96) 참고인 고정선 통화보고서(2009.3.26.); 참고인 김종현 진술조서(2009.7.15.).
- 97) 참고인 고정선 통화보고서(2009.3.26.); 참고인 김종현 진술조서(2009.7.15.).
- 98) 참고인 김순희 통화보고서(2009.7.16.); 참고인 김영수 통화보고서(2009.7.22.).
- 99) 참고인 김달순 통화보고서(2009.6.17.).
- 100) 신원기록편람(대전중부경찰서, 1981)의 '처형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음.

〈표 5〉 가해 관련 참고인 진술

사건 관련성	진술자	출처	주요 진술내용
대한청년단원 학살현장참관	김기형 (21)	진실화해위원회 면담보고서 (2009.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은 당시 대한청년단원으로 현장에 동원되었음. 참고인에 따르면 경찰과 헌병이 총으로 사람들을 사살하면 참고인등 대한청년단원이 그 시신을 구덩이에 던져넣었음.
방위대원 현장입초자	황내서 (20)	진실화해위원회 면담보고서 (2009.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은 당시 방위대원으로 일주일 정도 현장 부근 산등성에서 보초를 섰음. 사살은 경찰과 헌병들에 의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일주일동안 계속해서 있었음.
참전경찰 (대전경찰서 역전파출소)	정○○ (25)	진실화해위원회 면담보고서 (2009.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에 따르면 아래지방의 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된 것은 서울 지역 보도연맹 때문임. 서울지역 보도연맹원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풀려나와 양민들을 다 죽인다고 하였음. 그래서 '양민들을 다 죽인다. 보도연맹을 전부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임. 당시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죄수들은 산내에서 헌병(소속은 모름)들과 교도관들이 전부 죽었다 함.(경찰 관련성은 모른다고 함)
참전경찰 (유성경찰서 기성지서)	정○○ (23)	진실화해위원회 면담보고서 (2009.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이 당시 들은 바에 의하면 충남지역 관할의 보도연맹원들은 대전으로 집결시켜 대전형무소에 수감하였음. 대전형무소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헌병들하고 경찰이 산내로 데려가서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대전형무소 특경부대장	이○○ (26)	2007년 유해발굴보고서 (20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7월 7일경 헌병대 심용현 중위가 형무소로 찾아와서 특경법 위반, 국방경비법 위반, 여순사건, 간첩죄, 보도연맹원, 10년 이상 강역법 등을 인도하라고 지시함. 형무소 수인들을 수송하여 현장에 갔다가 헌병대 심중위의 명령으로 일부 확인사살에 동참했음. 당시 사수는 경찰과 헌병이 맡았음. 현장에는 교도관으로 있다가 경찰관이 된 정구상이 사수로 차출되어 왔음. 정구상은 당시 대전경찰서 소속이었을 것임.
도경찰국 사찰주임	변○○	월간 『말』 (19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 3일 동안은 나무에 묶어놓고 죄수들을 처형했고, 그 이후에는 죄수들을 앉히거나 눕혀놓고 처형했으며 죄수처형이 끝난 뒤 3일 동안은 보도연맹원과 불순분자로 끌려온 5백여 명을 계속 처형했음.
형무소소장 직무대리	이○○	월간 『말』 (20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석간수로서 몇 차례 법원장과 검사장을 찾아갔으나 재소자 처리지침과 분류 기준을 하달 받지 못했음. 분류작업은 백모 소령이 신분장을 보고 석방 가부를 결정했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살행위에는 당시 대전경찰서 경찰들과 헌병대가 직접 개입되어 있었다. 사살에 직접 관여한 헌병부대는 육군형무소 헌병대가 유력하다. 그러나 당시 대전이 가진 정치적·지역적 특수성과 참고인의 증언을 고려하면 육군형무소 헌병대 외에 다른 부대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전형무소 특경부대장 이○○이 학살현장 책임자로 언급한 심용현¹⁰¹⁾이 제2사단 헌병대에서 제1군단 헌병대로 배속 된 것이 1950년 7월 7일이다.¹⁰²⁾ 대전형무소 정치범들을 처형한 시기가 워닝턴의 기사대로 7월 4~6일 사이라면 제2사단 헌병대가, 이○○의 증언대로 7월 8~10일 사이라면 제1군단 헌병대가 개입했을 것이다.

한편, 『한국헌병사』는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육군형무소 헌병대는 7월 6일 오전 9시경 대전에 도착하였으며 7월 7일 대전형무소에 육군형무소 및 포로수용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중략)… 그 후 전황은 지연작전으로 말미암아 점점 긴박하여 중범자 보련관계 적색분자들을 처벌하고 7월 15일에는 헌병사령부에 집결하니 …(하략)…’라고 하여 보도연맹 집단살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¹⁰³⁾ 또한, 미국문서에서 나온 당시 사진에는 헌병들이 경찰과 함께 사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요약

조사결과 1950년 6월 25일 경부터 예비검속된 대전지역 보도연맹원들은 대전경찰서, 대전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7월 1일 경부터 경찰의 후퇴시인 7월 17일경¹⁰⁴⁾까지 대전시 동구 산내면 낭월동에서 대전경찰서 소속 경찰 및 헌병(육군형무소 헌병대 추정)에게 사살되었다. 사살된 보도연맹원들은 충남의 각 지역에서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온 보도연맹원들¹⁰⁵⁾과 대전과 그 인근지역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이며(형무소 정치범 제외) 그 규모는 최소 1,400여 명(미군 CIC 보고서 기준)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보관되다가 1999년 12월 16일 비밀 해제된 문서에는 주한 미 대사관 육군무관 밥 에드워드 중령이 50년 9월

101) 대전형무소 특경대 부대장 이○○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 심용현 중위가 7월 7일경 형무소로 찾아와서 특경법 위반자, 국방경비법 위반자, 보도연맹원, 10년 이상 강력범 등을 인도하라’고 했다고 한다.(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7년 유해발굴보고서』, 제2권 인문사회조사(상), 2008, 249쪽).

102) 1950년 7월 7일 제2사단 헌병대에서 김창영, 심용현 중위가 제1군단 헌병대로 부임하고 (중략) 심용현은 제 4과장에 편성되었다.(육군본부, 『육군헌병약사(1945~1967년)』, 헌병약사편찬위원회,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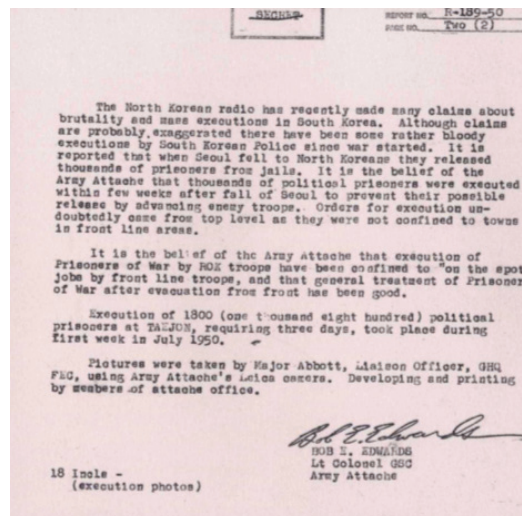
103)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대건출판사, 1952, 368쪽.

104) 대전경찰서, 『경찰연혁사』, 국가기록원 소장, 1951, 168쪽.

105) 지역별로 이송된 인원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된 기록과 증언을 정리하면 서산지역 400명(미 군속보고서: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푸른역사, 2006, 49쪽), 부여 트럭 1대(충남서부지역 신청인 유익렬 진술 조서(2008.7.30.)), 논산 20여 명(참고인 여운형 면담보고서(2009.6.17.)), 서천 20여 명(참고인 김○○ 면담 보고서(2009.6.18.)), 공주 트럭 2~3대(참고인 서준식 면담보고서(2009.7.9.)) 등이며, 그밖에 홍성, 청양, 보령 등에서도 대전형무소로 이송이 있었다는 증언은 있었으나 몇 명 정도가 이송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서산지역에 많은 인원이 목격된 것은 태안(당시 서산에 포함됨)이나 당진, 아산 등 인근지역의 보도연맹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3일 보고한 것으로 여기에는 대전 정치범 처형장면을 찍은 사진 18장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¹⁰⁶⁾

[그림 2] 미국문서 원본



○내용: 북한 라디오 방송은 남한에서의 만행과 대량학살에 대해서 최근에 수많은 주장을 하였다. 주장들은 비록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전쟁이 시작된 후 남한경찰들에 의한 상당히 무자비한 처형들이 행해져 왔다. 서울이 북한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수천 명의 죄수들이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육군 무관부가 믿는 바로는 진격해오고 있는 적군에 의해서 죄수들이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이 함락된 후 1-2주내에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처형되었다.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층부(from top level)로부터 내려졌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처형들은 전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중략)... 대전에 있는 1,800명의 정치범을 처형하는 데는 3일이 걸렸으며, 1950년 7월 첫째 주에 일어났다.

사진은 극동사령부 연락장교인 에버트 소령이 주한미대사관 육군무관의 라이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대사관 직원들이 인화한 것이다.

밥 E 에드워드, 육군 무관 참모 중령(18장의 처형사진 첨부)

106)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 23 Sept 1950,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G-2 ID File, Box 4622, Item 715579.

[그림 17] 미국문서에 첨부된 처형(execution) 장면 중 일부



위 사진은 첨부된 사진 중 일부이며 ‘논산읍’이란 글씨가 선명한 트럭이 보인다. 또한, 사람들을 구덩이 앞에 엎어놓고 사살하는 장면 등은 당시 현장 참관자들의 증언과 일치한다.¹⁰⁷⁾

107) 참고인 김기형 면담보고서(진술녹취-2009.2.23.).

다음은 참고인 김기형의 진술녹취록 중 일부이다.

질: 거기서 일주일간 총 쏘고 사람 죽었다고 하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답: 여여 돌씩 묶어가지고서 차에서 띄어놓으면... 쿵... 인자 고개 숙여서... 나와서 세워놓으면. 인자 우리가 양쪽에서 하나 돌씩(옆에서 잡는 시늬) 끌어다가 구덩이 파놓은 데 엎어놓지. 그러면 경찰이 총을 쏘면 우리가 또 구덩이로 떠넘기고...

질: 경찰이 총을 쏘았어요?

답: 경찰도 하다가... 헌병... 헌병은 전부 몇 안 되었지.

질: 구덩이를 몇 개쯤 팠는지요?

답: 나 두 개를 팠어. 두 개... 한 오십 미터 그렇게 길죽하게.(중략)

질: 죽은 사람들이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답: 근데 일반 들판에서 일하다 붙잡혀 온 사람들, 한복 입은 사람도 있었어, 물논에서 온 사람도 있어... 그때 한창 모심을 팠데... 여자들도 오고 뭐.

질: 여자도 있었나요?

답: 하이고 그때 모시옷이라면 제일 부자사람들이여. 모시옷 깨끗이 입고 처녀, 부인, 여자들 한 도락꾸 실어왔어. 한 도락꾸에는 전부 그 사람들만 싣고 왔었어.

질: 애들은 없었어요?

답: 애들은 없었어.(하략)

나. 공주(시)지역

1) 신청인 조사

공주지역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한 건수는 총 8건이며, 그중 신청인의 개인사정(외국거주, 건강 등)으로 직접 면담이 어려운 4건에 대해서는 통화조사로 갈음하였다. 신청인(미신청인 포함)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 공주지역 신청인(미신청인 포함) 조사내용

연 번	신청인 (사건번호)	조사일시 조사장소	출생 연도	진술 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윤웅림 (6210)	2009.3.16. 공주시청 상설감사실	34년생	진술 조서	• 사촌 윤청림은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며 1950년 6월 29~30 일경 의당지서 소속 경찰이 와서 동네 사람 3명을 연행해 감. 공주경찰서에 2~3일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트럭에 묶여 어딘 가로 실려 감.
2	정일혁 (6288)	2009.3.16. 계룡면 금대리 마을회관	28년생	진술 조서	• 마을주민 8명(정필준, 정필용, 정일각, 정필배, 정필창, 정익 상, 박병덕, 박덕중)이 보도연맹에 가입된 이유로. 전쟁 발발 후 경천파출소 순경이 와서 연행해 갔으며 그 후 왕촌 어디서 총살당했다는 말을 들었음.
3	이충섭 (6761)	2009.3.6. 통화조사	34년생	통화 보고서	• 부(父) 이영식(이창림)은 전쟁 1~2년 전에 재판을 받고 출 소한 적이 있으며, 전쟁 발발 후 경찰이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연행해 감. 그 후 공주경찰서 유치장에 3일 정도 구금되어 있다 가 어딘가로 실려 감.
4	조병기 (6907)	2008.6.2. 통화조사	45년생	통화 보고서	• 부(父) 조성갑이 전쟁 발발 며칠 후 연행된 후 공주 어디서 희생당함. 제사일은 음력 5월 25일(양력 7월 10일)이며 같은 날 제사지내는 사람이 많음. 마을사람 약 30명이 보도연맹으로 희생당함.
5	김원동 (7535)	2008.5.28. 통화조사	37년생	통화 보고서	• 조부 김용진은 해방 후 좌익운동을 했다며 여러 번 경찰서에 불러 갔으며, 그 후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50년 6월 2 9~30일경에 의당지서 경찰에 연행됨. 고모 김순환은 좌익운 동도 하지 않고 보도연맹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나 7.2~3일 새 벽에 연행되어 감.
6	우정규 (7948)	2008.2.15. 위원회 사무실	28년생	진술 조서	• 형(兄) 우창규는 전쟁 전에 좌익운동을 한 혐의로 한두 번 정도 감옥에 간 적이 있으며 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전쟁 나던 날 저녁 아니면 그 이튿날 새벽에 경찰에 의해 연행됨. 당시 마을에는 '보도연맹원들은 다 잡아 죽였다'는 소문 이 있었음.
7	김진환 (8797)	2009.3.16. 의당면 자택	41년생	진술 조서	• 부(父) 김동석, 숙부 김동찬, 당숙 김동수가 월곡지서의 소집명 령을 받고 지서로 출두하였음. 신청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월곡지서에는 각 부락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함.

제 4 권

연 번	신청인 (사건번호)	조사일시 조사장소	출생 연도	진술 형태	주요 진술내용
8	이재옥 (9846)	2009.3.13. 통화조사	36년생	통화 보고서	•부(父) 이용중은 타인의 무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으며 그 후보도연맹에 가입 하게 됨.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정복순경 한사람이 와서 이용중을 연행해 감.
9	박옥희 (미신청)	2009.4.23. 위원회 조사실	33년생	진술 조서	•부(父) 박동면(朴東冕, 31, 공주군 의당면 율정리)은 전쟁 당시 농사일을 하며 동네 반장을 보던 중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유로 연행되어 총살되었음. 마을에서 잡혀간 사람으로는 이 보국, 김동석과 그의 딸 김정애, 김용진, 그 딸 김순한 등 20여 명정도 됨. 제삿날 음력 5월 25일(양 7. 10)
10	김영배 (미신청)	2009.5.11. 위원회	40년생	통화 보고서	•부(父) 김관국(金觀局, 65)은 무학이며 농업에 종사하던 중 전쟁 발발한 후 연행되어 사실 당했음. 연좌제 관련하여 외국에 산업인력으로 취업코자 했으나 신원조회에 걸려 불합격함.
11	김기성 (미신청)	2009.5.21. 탄천면 자택	33년생	면담 보고서	•형(兄) 김중관(金重寬, 23세)은 음력 5월 22일(양력 7월 7 일)에 면으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면 숙직실에 이를 정도 있다가 헌병들이 와서 차에 싣고 갔으며 그 후 희생당했다는 소문 들음.
12	유찬종 (미신청)	2009. 7. 4. 의당면 자택	37년생	면담보 고서	•의당면 율정리의 주민 2~30명이 전쟁 1년 전쯤에 사상관계 로 잡혀갔음. 그중 몇 명은 풀려나왔다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혐의로 다시 연행되어 공주형무소로 잡혀갔으며 그 후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음. 그들은 유희종(형), 김창화, 윤 재덕, 박동면, 이보국, 이상덕의 형, 이광래의 부 등임.
13	소재성 (미신청)	2009.7.17. 위원회	40년생	통화 보고서	•부(父) 소구섭(39,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은 휘문고보와 전주 사범을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후 국민학교 교감을 자임. 전쟁 전에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갔다 온 일이 있으며 보령가입여 부는 모르나 전쟁 발발 후 연행되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됨.

2) 참고인 조사

참고인조사에는 피해자현황조사에서 드러난 참고인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참전경찰관 등 사건의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7> 공주지역 참고인 조사내용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이호섭 (14)	이영식 희생증언	2009.3.9. 진술조서	•부(父) 이영식(6761호)(아명:이창림)은 전쟁 전 사상문제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전쟁 발발 후 연행되어 공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참고인이 목격하였음. 2~3일 후에 어디론 가로 실려 갔으며 그 후 사실당한 것으로 추정됨.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2	김인배 (25)	장기면 산학리 (김관국 외 수 인) 희생증언	2009.3.25.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의 부(父) 김관국은 친구가 도장을 달라고 해서 준 후 보도연맹에 가입했음. 김관국을 비롯한 한 마을사람 여러 명이 장기지사로 예비검속되어 현재의 연기군 남면 돌새뿌리 근처에서 학살당함.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사짓는 사람들이었으며 김관국, 임인수, 엄주동, 전상옥, 장철봉 등이 있음.
3	이의규 (15)	장기면 산학리 (김관국 외 수 인) 희생증언	2009.3.25.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면 산학리에서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은 김동찬, 장재룡, 엄주동, 김동필, 허개명, 박원규(?), 남구현, 임인수, 김관국 등임. 참고인 김인배가 희생자로 진술한 장철봉과 전상옥은 모른다고 하며, 장철봉에 대해서는 호적상 이름이 장재룡이라고 함.
4	이장직 (14)	장기면 산학리 (김관국 외 수 인) 희생증언	2009.3.25.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면 산학리에서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은 김동찬, 장재룡, 엄주동, 김동필, 허개명, 박원규, 남구현, 임인수, 김관국 등임. 장철봉과 전상옥은 모른다고 함. 당시 산학리는 보도연맹으로 인해 마을이 엉망이었다고 함. 이장(박원규)이 '도장 찍어라'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어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함.
5	전영배 (21)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3.26.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면 도계리에서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은 박종렬(박창순의 아버지)이며 그밖에 보도연맹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음.
6	윤여현 (22)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4.3.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대학(공주사범대) 2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으로는 송석진, 유혁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름. 송석진 등은 공주고등학교 동창이며 공주시 봉황동에 살았음. 이 사람들의 희생사실을 증언해줄 친척이나 후손은 아무도 없음.
7	이은섭 (16)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4.3.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연맹원들은 6.25전쟁 나기 전에 봉화사건으로 잡혀갔음. 이호준(22세가량 용암리), 이대해(용암리), 이명렬 (용현리), 용암2구 박창근(25세가량), 박창선(23세가량) 형제 등이 잡혀 가서 대전 산내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희생자들의 후손들도 없으며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죽고 없음.
8	이남규 (16)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4.7.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연맹원들은 6.25전쟁 발발 후 탄천지사로 연행되었으며, 장선에서 두 사람 송기중, 이종하가 끌려갔으며 그 후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됨. 두 사람 모두 삼십대로 그 후손들도 전부 딴 곳으로 이사 갔으며 마을에서 증언해줄 사람은 없음.
9	민○○ (23)	전임 공주형무소 형무관	2009.4.8.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형무소 형무관으로 재직 중일 때(6.25 발발 두 달 전에 사표) 형무소에는 대략 4~500명 정도의 죄수들이 있었으며, 여순사건관련 자들과 잡범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음. 보도연맹원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10	한○○ (26)	침전경찰 (공주 정안지서)	2009.4.8.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안면의 보도연맹원은 의사였던 정헌보가 기억나며 정헌보는 의사였기 때문에 연행되지 않았으며, 그 아들이 연행됨. 보도연맹관련 일은 사찰계 직원들이 대부분 처리했음.

제 4 권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1	권○○ (26)	참전경찰 (공주 신평지서)	2009.4.10.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의 보도연맹원도 몇 백 명 정도는 되었으며, 전쟁 발발 후에 그들을 도살장 뒷산의 고랑에서 구덩이를 파고 처형했다는 말을 들었음. 당시 보도연맹원 중 일부는 경찰서에 가두고 일부는 교도소에 보내고 했을 것임.
12	양승모 (21)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4.9.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면 구왕리에서 보도연맹으로 잡혀간 사람으로는 양휴석, 최한갑, 백이선, 이갑중, 최정봉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당시 정부방침으로 잡혀갔음. 특히 양휴석은 ‘몸이 아파서 못간다’고 했음에도 이장하고 집안사람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가야 한다’면서 데려다 주었음.
13	장국정 (18)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4.9.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면 내흥리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은 장기현(참고인의 삼촌), 오인표, 오세욱, 지규옥 등이 있음. 이들은 전쟁 발발하자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계룡지서에서 소집했음. 구왕리의 김천수, 김창수 형제도 그 무렵에 잡혀 갔음.
14	소인섭 (15)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4.9.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의 부 소병완, 재종형님 소구섭, 당숙 소병우 등이 전쟁 발발 후 계룡지서를 거쳐 공주경찰서로 잡혀 갔음. 소병완은 소방대원이 잠깐 ‘지서로 가져’면서 데려갔음.
15	소재인 (23)	소구섭 희생증언	2009.4.9.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면 중장리에서 보도연맹으로 연행된 사람으로는 소구섭(39세 정도, 참고인의 삼촌), 소병우(40세 정도), 소병완(41세 정도) 등이며 소구섭은 휘문고보를 나와서 교원을 지냈으나 잡혀갈 당시는 무직이었음. 계룡지서를 거쳐 공주경찰서로 넘겨졌으며, 당시 들은 바에 의하면 대전으로 넘겨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왕촌에서 희생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음.
16	이병림 (20)	이영식 희생증언	2009.4.22.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의 4촌 이창림(이영식), 6촌 이봉림, 이홍림 형제가 전쟁 발발 후 잡혀가서 공주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인민군들이 내려올 때 상왕리 가나무재(왕촌)으로 데려가 죽었음.
17	원봉상 (33)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4.29.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은 전쟁 당시 서대문형무소에 복역다가 인민군들이 풀어주어 석방됨. 석방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지 인민군에 동조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피해자현황조사시 보도연맹으로 희생당했다고 진술한 박동은, 이갑석, 김경배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
18	윤영태 (34)	윤청림 희생증언	2009.5.13.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당면 월곡리에서 보도연맹으로 연행된 사람은 윤영록(윤성록)(16세 정도, 소학교졸업), 윤경림(30세 정도, 무학), 윤청림(26세 정도, 중졸)(6210호) 3명임. 당시 의당 지서에 2~30여 명이 잡혀 있는 것을 보았음.
19	김용연 (31)	윤청림 희생증언	2009.5.13.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군들이 내려올 때 공산당 물들은 사람들을 의당면 청룡리 도살장 고랑에서 죽였음. 일부는 대전으로 실어가고 또 일부는 청벽의 산에서 죽였음. 의당면 월곡리의 윤청림(6210호)도 그때 죽었음.
20	오연화 (15)	우창규 희생증언	2009.5.14.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곡면 화월리의 우창규(7948호)는 전쟁 발발 후 사상문제로 공주경찰서에 호송당한 후 공주에서 반포면 대전가는 구 도로변에서 사살당했음.
21	배춘식 (15)	이용중 희생증언	2009.5.18.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천면 삼각리의 이용중(9846호)은 참고인의 이웃에 살던 사람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그 후 행불임.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22	윤범선 (22)	이용중 희생증언	2009.5.18.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천면 사람들은 탄천지사로 잡혀간 후 공주로 넘겨졌음. 공주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후퇴 당시 전부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으로 추측함. 탄천면의 이용중도 그때 잡혀갔음.
23	이택수 (16) 김기성 (18) 최황삼 (23)	김중관 희생증언	2009.5.21.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들은 탄천면 남산리 주민임. 참고인 이택수는 탄천면 남산리의 보도연맹 희생자는 김명환, 김중관, 이길선 3인으로 진술하나 참고인 최황삼과 김기성에 따르면 위 3인이 모두 전쟁 전에 좌익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김중관(최황삼의 남편)만 풀려나고 나머지 2인은 형무소에서 전쟁을 맞이했다고 진술함. 김중관은 음력 5월 22일(양력 7월 7일)에 면으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면 숙직실에 이를 정도 있다가 헌병들이 와서 차에 싣고 갔으며 그 후 사살된 것으로 추정됨.
24	심규철 (20) 이동식 (27)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5.21.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천면 덕지리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혐의로 희생된 사람은 심우석, 심준석, 김재복 등 3인임.
25	윤석신 (13) 정해선 (15)	피해자 현황조사내용확인	2009.5.21.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천면 화정리에서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으로는 박병호(박병오), 김덕배, 장영덕임. 희생자들은 대부분 30대였으며 좌익이 뭔지도 모르는 무고한 사람들임. 그 때문에 그 후 그 가족들이 복수를 하였으며 이는 곧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을 몰고 왔다 함.
26	이○○ (22)	참전경찰 (공주 계룡지서)	2009.5.22.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은 전쟁 전에 있었던 보도연맹원 관리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했으나 전쟁 당시 공주 보도연맹원 예비검속과 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함. 당시 웅진반도의 연백경찰서 직원들이 후퇴하여 공주경찰서에 있다가 대전으로 갔다 함.
27	윤정남 (23)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6.2..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은 정안면 사현리에 거주함. 보도연맹 희생자로는 광정리의 김대수, 의사였던 정원보, 심명호 등임. 당시 정안면 보도연맹원들은 대전 가는 곳에 있는 대평리(현재 연기군)에 구덩이를 파고 전부 총살한 다음 끌어 묻었다 함.
28	조병호 (14)	조성갑 유희중 희생증언	2009.6.11.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당면 율정리에서 조성갑(6907호), 이재근(이재천의 형), 유희중 등 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으로 희생되었음. 인민군들이 아직 공주에 내려 오기 전에 줄줄이 엮어서 여천(산이름)으로 데리고 간 후 총살시켰음.
29	이종국 (15)	우창규 희생증언	2009.6.11.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은 사곡면 화월리에 거주하는 자로 우창규(7948호)와는 이웃임. 우창규는 전쟁 당시 경찰에 연행되어 간 후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후 처형당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돌았음.
30	송인수 (20)	옥골 현장 목격	2009.6.12.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군 남면 나성리(전쟁 당시 공주군 장기면 산학리)에 전쟁 당시 17연대가 주둔하여 마을사람들이 밥을 해다 주었음. 옥골(마을 뒤편)에서 장기면 산학리의 지병빨갱이(보도연맹원) 10여 명을 사살하기 위해 묶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함.
31	오종운 (18)	박동면 외 5인 희생증언	2009.6.26.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은 의당면 율정리에 거주. 율정리 마을주민 약 30명 정도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을에서 잡혀 갔음. 당시 잡혀간 사람으로는 박동면(미신청), 유희중, 김동석(김재관), 김동찬(집-김동석), 이관용, 김용진 등임.

제 4 권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32	김옥태 (16)	박동면 김정애 희생증언	2009.6.29.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은 의당면 울정리 양촌에 거주. 당시 울정리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 기억으로는 박옥희 아버지(박동면)와 친구 2명(한명은 김정애)이 기억남. 친구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끌려가서 죽임을 당함.
33	이화선 (27)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6.29.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서해욱이 전쟁 났을 때 여름 밤에 경찰에 연행됨. 동네에서 남편을 포함하여 세 명(임서방네 2명과 남편)이 잡혀 갔으며 당시 시아버지가 대전형무소에 가서 남편 서해욱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음.
34	서해만 (27)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6.29.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포면 공암리에서 보도연맹으로 잡혀가 죽은 사람은 서해욱(27세), 임봉수, 임병수, 임동수 등이며 당시 이들은 대전형무소 잡혀가서 산내에서 총살당함.
35	송○○ (23)	참전군인 (17연대)	2009.7.8.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은 50년 6월 27일 대전에서 입대하여 며칠간 교육을 받은 후 제17연대 2대대 5중대 1소대로 배속되었음. 첫 근무지는 공주 금강다리 부근의 팔각정 근처로 경계임무를 보았음. 당시 연대장은 백인엽이었으며, 소대장은 권대위(성명 미상)였음.
36	이규성 (13)	왕촌현장 인근주민	2009.7.9.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은 당시 13세로 상왕동 희생현장 바로 너머 마을에 거주함. 당일 총소리는 아침 9:30분경부터 오후 4~5시까지 들렸으며 비는 오지 않음. 농사를 지으려면 현장을 지나야 하는 데 당시 사람을 파묻은 곳은 주변보다 가라앉은 상태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음. 동네 어른들의 전언에 의하면 공주형무소로부터 15대의 트럭이 사람들 싣고 왔다고 함.
37	서준식 (17)	피해자 현황조사 내용확인	2009.7.9.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포면 공암리에서 보도연맹으로 잡혀가서 사망한 사람으로는 이재만, 이재덕 형제, 임철수, 서경식(공암1구, 참고인의 4촌), 서해욱(공암2구) 등임
38	박선주 (47년생)	유해발굴 조사단장	2009.8.25.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 상왕동 유해매장지 발굴결과 5개지점에서 총 286구의 유해 및 1,170점 유품출토. 발굴허가구역 밖에 위치하여 발굴하지 못한 지점을 포함하면 최소 400명 정도가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 희생자에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유품은 단추이며 총 340점의 단추가 발견됨. 민간인 복장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추는 191점(흰색 147점, 검정색 29점, 감색 14점, 파란색반투명 1점)임.

3) 현장 조사

공주군 각지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이 사살된 곳은 왕촌 살구쟁이(공주시 상왕동), 의당면 청룡리 도살장 뒷산(의당면 청룡리 공주식품(910번지) 뒷산), 인근 연기군 남면 송원리 욱골 등이다.

한편, 상왕동 왕촌은 행정구역상 충남 공주시 상왕동 산29-19번지에 위치하며 공주대학교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금강을 따라 공주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구 도로가에

있는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다. 2009년 6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유해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공주형무소 수인(囚人)과 보도연맹원들로 보이는 유해 305구와 유품 1,170점이 총 5개 지점에서 발굴되었다¹⁰⁸⁾.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등을 마주한 채 얼굴은 양쪽 벽면을 향하고 결박되거나 일부는 목에 깎지를 끼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사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굴된 유물(단추)로 미루어 희생자 중 1/4 정도는 민간인들로 보이며,¹⁰⁹⁾ 이들은 공주형무소에 일시적으로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품 중에는 안경이나 단추를 제외한 개인 물품은 거의 발굴되지 않았는데, 이는 인근 지역의 예¹¹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살 직전에 개인물품을 전부 압수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¹¹¹⁾

의당면 청룡리 도살장 뒷산은 공주경찰서 등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이 사살된 곳으로 추정된다.¹¹²⁾ 그 위치는 의당면 청룡리 910번지(공주식품)의 뒷산으로 의당면에서 공주시내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주경찰서나 공주형무소에서 자동차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다.

송원리 욱골은 지금은 연기군 남면에 속하지만 전쟁 당시에는 공주군 장기면 산학리에 속해 있었다. 이곳은 현재 행정도시 건설공사로 전쟁 당시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다음 [그림 4, 5, 6] 참조)

108) 2009. 7. 9. 상왕동현장에서 진행된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에는 '공주형무소 수인과 보도연맹원들로 보이는 유해 234구의 시신이 총 4개 지점으로 추정된 매장지중 3곳에서 발굴되었다(2009년 7월 4일 현재)'고 되어 있었으나, 2009.9.10. 개최된 '유해발굴감식 중간보고회'에서는 그 후 추가발굴된 유해수를 합하여 305구의 유해가 발굴되었다고 한다.(2009유해발굴감식 및 인문사회조사 중간보고회(2009.8.25.)).

109) 참고인 박선주 면담보고서(2009.8.25.).

110) 연기군의 희생현장인 전동면 봉대리의 '떡방이' 지역의 경우 당시, 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에서 희생자들 것으로 보이는 치약, 신발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 지역 주민이 보았다고 한다.(참고인 신항식 면담보고서(2009.7.1.)).

111) 유해발굴팀의 조사단장인 박선주는 신발 등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신발을 벗도록 조치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이는 다른 발굴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였다.(참고인 박선주 면담보고서(2009.8.25.)).

112) 참고인 권○○ 면담보고서(2009.4.10.).

〈공주지역 희생 현장〉

[그림 4] 왕촌 희생현장과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 단추, 카빈 탄피 및 탄두



[그림 5] 의당면 청룡리 여찬(도살장 뒷산)



[그림 6] 송원리 옥골(연기군 남면)의 예전 모습과 공사로 파헤쳐진 현재 모습



공주군 국민보도연맹 결성식은 1950년 1월 9일 공주극장에서 군내 각계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¹¹³⁾ 위원장에는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김황진(金晄鎭)이 피선되었으며 이사장에는 타 지역의 경우로 미루어 당시 공주경찰서장인 전봉수(田鳳秀)가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예비검속

일부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6월 26일 새벽(혹은 6월 25일 저녁)에 연행이 된 경우¹¹⁴⁾가 있으나 대부분은 6월 29~30일경부터 본격적인 예비검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일부지역의 예비검속일을 살펴보면 의당면은 6월 29~30일경이며 의당지서에 2~3일(일부 진술은 일주일) 정도 구금되었다가 공주경찰서 유치장 혹은 공주형무소로 이송되었다.¹¹⁵⁾

공주군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계룡면은 6월 말~7월 13일경까지로 비교적 늦게까지 예비검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예비검속이 공주경찰의 후퇴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¹¹⁶⁾ 계룡면 금대리의 경우는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지서에 출두하였다가 풀

113) 연합신문, 1950. 1. 14.

114) 신청인 우정규 진술조서(2008. 2. 15.).

115) 유찬중 통화보고서(2009. 4. 6.); 참고인 박옥희 진술조서(2009. 4. 23.).

116) 공주경찰서의 후퇴와 관련하여 『공주경찰서연혁사』에는 1950년 7월 13일 오후 3시경 공주시내에 인민군의 포탄공격이 개시되면서 계룡면의 경천지서로 임시경찰서를 이동하였다. 그 후 결사대 30명을 기동순

제 4 권

려났으나 서울이 함락되자 전부 연행해 갔다는 진술도 있다.¹¹⁷⁾ 금대리의 정필용이 논에서 일하다가 잡혀간 날은 7월 13일(음력 5월 28일)이다.¹¹⁸⁾ 7월 13일은 공주경찰서가 계룡면의 경천지서에 임시경찰서를 설치하면서 실제로 공주시내에서 후퇴한 날이다. 탄천면 남산리의 경우 7월 7일경(음력 5월 22일)에 면으로 출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¹¹⁹⁾ 장기면 산학리에서 예비검속된 김관국이 장기지서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 7월 8일(음력 5월 23일)이다.¹²⁰⁾

예비검속 방법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서로 직접 출두를 명하거나, 경찰이 의경과 청년방위대원을 대동하고 직접 보도연맹원의 집을 방문하여 연행하는 것이었다.

참고인 소재인에 따르면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은 전쟁 전에도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행해졌다고 한다.¹²¹⁾ 당시 계룡지서에 근무했던 이○○에 의하면 ‘보도연맹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찰서에서 소집명령이 내려왔으며, 이때 소집한 것은 구금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전환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소집되어도 지서나 면사무소 등지에서 놀다가 오는 것이 전부였다’한다.¹²²⁾ 결국 이러한 평상시 소집 훈련은 전쟁 발발 후 수많은 보도연맹원들이 지서의 소집명령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자발적으로 출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구금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지서나 면사무소를 거쳐 공주경찰서 유치장 및 공주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 일부 참고인에 따르면 구금기간동안 집에서 식사를 배달하기도 하였으며,¹²³⁾ 일부 면의 경우는 어느 정도 출입도 자유로웠다고 한다. 당시 예비검속된 형에게 식사를 날라주었다는 의당면의 유찬중에 의하면 ‘당시 의당지서에는 2~30명 정도

찰대로 조직하여 시내기동순찰에 종사하였으나, 14일 오후 6시 미군이 후퇴를 개시하면서 경찰직원도 모두 경천지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경천에도 포탄이 무수히 낙하하며 계룡산에 인민군이 출현하자 오후 10시경에 강경경찰서로 후퇴하였다.(공주경찰서, 『연혁사』, 국가기록원소장자료, 1951, 102쪽.)

117) 신청인 정일혁 진술조서(2009.316.).

118) 참고인 남상수(정일혁 진술조서 2009. 3. 16.).

119) 참고인 김기성 면담보고서(2009. 5. 21.).

120) 참고인 김인배에 따르면 부 김관국이 장기지서로 연행된 후 가족들이 식사 배달을 몇 번 하였다고 한다. 김인배의 형이 지서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음력 5월 23일(양력 7월 8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제사를 모신다고 한다(김인배 통화보고서(2009.3.25.)).

121) 참고인 소재인 면담보고서(2009. 4. 9.).

122)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9. 5. 22.).

123) 참고인 박옥희 진술조서(2009. 4. 23.); 참고인 이효섭 진술조서(2009. 3. 9.); 신청인 윤용림 진술조서(2009.3.16.).

가 있었으며, 창고 같은 데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서 운동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였다. 심지어 볼 일이 있는 경우는 집에도 왔다 갈 수 있었다.’고 한다.¹²⁴⁾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예비검속 초기에는 일부 지서에서조차 전쟁 전부터 빈번하게 있어 왔던 소집명령의 일환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주경찰서 등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자 일부는 공주형무소에 구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인 유찬중에 의하면 율정리 사람으로 당시 공주형무소 간수로 근무했던 조모(某)의 고모부가 예비검속된 사람들이 공주형무소에 구금된 것을 보았다고 한다.¹²⁵⁾

또한, 공주에서도 비교적 남쪽에 위치한 반포면 공암리에서 예비검속된 일부 보도연맹원은 대전형무소에 구금된 것이 목격되었다는 진술이 있으며,¹²⁶⁾ 당시 반포면 공암리에 살던 참고인 서준식(17)은 공주를 나와서 대전으로 향하는 트럭 2~3대에 사람(보도연맹원 추정)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묶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¹²⁷⁾

○ 사살 및 시신수습

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된 날짜와 관련해서 북한자료에는 7월 7~8일이라고 하고 있으며,¹²⁸⁾ 공주 지역 피해자현황조사결과에서는 여러 증언이나 제삿날 등을 기준으로 7월 9일경으로 추측¹²⁹⁾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로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

단지 공주경찰서가 경천지서로 후퇴한 날이 7월 13일 오후 3시경,¹³⁰⁾ 공주형무소가 완전 소개된 것이 7월 12일경¹³¹⁾임을 고려하면 7월 9~11일 사이가 유력해 보인다. 한편, 보도연맹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곳 중 한곳인 의당면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족보, 제적부 등에는 7월 11일(음력 5. 26.)이 사망일로 기록되어 있다.¹³²⁾ 다만 7월 11일 이후에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공주경찰의 후퇴 전(13일경)까지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희생된

124) 참고인 유찬중 면담보고서(2009.7.4.).

125) 참고인 유찬중 면담보고서(2009.7.4.).

126) 참고인 이화선 통화보고서(2009.6.29.); 참고인 서해만 통화보고서(2009.6.29.).

127) 참고인 서준식 면담보고서(2009.7.9.).

128) 신경득, 『조선중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살림터, 2002, 141쪽.

129) 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7, 260쪽.

130) 공주경찰서, 『경찰연혁사』, 국가기록원소장자료, 1951, 113쪽.

131) 피해자현황조사:참고인 김남식 진술녹취록(2007. 8. 24.).

132) 윤청림(6210호), 조성갑(6907호), 김용진(7535호), 김동찬(8797호) 등의 제적부에는 사망일이 1950년 5월 26일로 동일하다. 당시 음력을 주로 사용했던 관행으로 비추어 동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950년 7월 11일이다.

것으로 보인다.

공주지역에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대전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인민군치하에서 왕촌 등지에 시신수습을 하기 위해서 갔으나 시신들은 부패가 심하고 서로 엉키어 있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왕촌이나 여찬 이외의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사살된 경우는 일부 시신을 수습했다는 증언도 있다.¹³³⁾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으로 보면 공주 지역의 보도연맹원 희생과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첫째, 집 → 지서(혹은 면사무소) → 공주경찰서 유치장(혹은 공주형무소) → 희생현장이며, 이 경우 희생현장은 상왕리 왕촌과 의당면 청룡리(여찬)가 유력하다. 둘째, 집 → 지서 → 대전형무소 → 산내 낭월동에서 희생된 경우이며, 이들은 초기에 검속된 주동자급이거나 지리적으로 대전에 인접하여 검속 후 곧바로 대전으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집 → 희생현장인 경우인데 이 경우의 유형으로 장기면 산학리의 일부 보도연맹원이 송원리 옥골(당시는 공주군 장기면이었으나 현재는 연기군 남면)로 잡혀가서 희생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중 일부는 시신을 수습했다고 한다.¹³⁴⁾

한편, 2007년 실시된 공주지역 피해자현황조사¹³⁵⁾ 결과에 따르면 의당면(특히 울정리)이 보도연맹 희생자가 많았으며, 의당면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확인된 면은 장기면, 유구면, 계룡면, 탄천면 등이다. 반면에 이인면, 사곡면,¹³⁶⁾ 신평면의 경우 보도연맹원 희생 사실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다) 희생규모와 희생자 신원

공주지역 보도연맹원 희생규모에 대해서 2007년 실시된 피해자현황조사에 서는 최소

133) 참고인 송인수 면담보고서(2009.6.12.).

134) 참고인 김인배 통화보고서(2009.3.25.)

135) 공주지역 피해자현황조사 :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7월 19일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단(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를 중심으로 학계의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과 '2007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조사 용역'에 관한 정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주지역의 경우 2007년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현재 공주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6개동, 1개 읍, 10개 면의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공주 지역에서는 보도연맹관련 피해자 134명을 확인하였다.

136) 사곡면의 경우는 상당수의 보도연맹원들이 예비검속되어 있었으나, 집단살해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당시 사곡지서 의경이었던 한○○의 증언에 따르면, 사곡면의 경우 대략 150여 명의 보도연맹원이 면사무소에 예비검속되어 있었으나 이런 저런 사유로 다 빠지고 70~8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당시 시국대책위원회에 재정지원이나 뇌물 등을 주고서 빠져나갔다고 함). 당시 의경의 주요 임무는 치안업무를 보조하였으며 특히 보도연맹원들을 상부지서에 의거 연행하는 역할과 일부 취조를 담당했다. 공주경찰서로부터 사곡지서에 이들을 죽이고 후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으나 의경 12명이 같은 마을사람들을 죽이지 말자고 지서장에게 건의하여 그냥 풀어주고 후퇴했다고 한다. (참고인 한○○ 면담보고서(2009.8.26.)).

250명, 최대 3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¹³⁷⁾ 한편, 유해발굴조사팀에 따르면 상왕동 왕촌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는 2009년 8월 현재, 5개 지점에서 305구이나 허가구역 밖에 위치하여 발굴하지 못한 지점까지 고려하면 이곳에서만 최소 400여 명 이상이 희생당했을 것이라고 한다. 발굴된 유품 중 단추는 총 340점이고 이 중에서 수형자가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죄수복장의 단추는(갈색·녹색) 145점이며, 민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추는 195점(흰색 147점·검정색 29점·감색 14점·금속제 4점·파란색반투명 1점)이다.¹³⁸⁾ 조사팀 관계자는 출토된 유물(단추, 버클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중에서 민간인은 약 1/4 정도(약 100명)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¹³⁹⁾

공주지역의 보도연맹희생자 규모는 피해자현황조사에서 추정한 250~300명 정도가 사실관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주 지역의 보도연맹원이 희생된 곳이 왕촌 이외에도 의당면 청룡리(여찬)와 송원리 옥골 등 여러 곳인데다(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송됨), 1949년도의 자수자 현황(278명) 및 일부 면단위에서도 희생이 있었을 개연성¹⁴⁰⁾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공주지역 희생자로는 2007년 피해자현황조사에서 보도연맹 희생자로 거명된 134명중 이미 진실규명을 신청한 진실규명대상자들과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유족의 진술이 일치하며, 제적부 등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희생여부를 확인한 사람은 23명이다.¹⁴¹⁾

137) 이에 대해 공주지역 피해자현황조사 책임자인 공주대 지수걸교수는 당시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던 공주지역 보도연맹가입자(1949년 12월 2일자 동방신문에 의하면 공주지역 자수자는 278명임), 공주형무소 수용인원, 면단위에서 조사되는 희생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수치라고 한다.(참고인 지수걸 면담보고서(2009.8.24)).

138) 2009 유해발굴감식 및 인문사회조사 중간보고회(2009.9.10.), 한편, '2009 유해발굴중간보고' 자료집에는 발굴된 유해가 235구이며, 단추는 184개로 되어 있으나 이는 '09년 7월 4일 현재까지 발굴수이며,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것은 이후 발굴된 것을 포함한 수치이다.

139) 참고인 박선주(유해발굴조사단장) 면담보고서(2009.8.25.).

140) 당시 사곡면의 의경을 지냈던 참고인 한○○에 따르면 공주경찰서로부터 보도연맹원들을 처리하고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바,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이러한 명령이 사곡면에만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41) 피해자현황조사에서 희생자로 거론되었으나 여기서 희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유족에 대한 사실 확인 곤란(유족 부존재 등), 제적부 등 공식문서 통한 신원미확인, 참고인의 진술 불일치 등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그 명단은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표 8〉 공주지역 희생자 명단

연 번	사건번호/ (미)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희생 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당시 주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관련 기록	
1	6210 윤응림	윤청림 (尹淸林)	남	26	사촌	충남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	○142)		제적부 ¹⁴³⁾	확인
2	6288 정일혁	정필준 (鄭必俊)	남	26	정만철 의 부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	○144)			확인
		정익상 (鄭翊相)	남	41	정필중 의 부	"	○	○145)			확인
		정필용 (鄭必龍)	남	22	정기철 의 부	"	○	○146)			확인
		정필배 (鄭○○)	남	22		"		○147)			확인 148)
		정필창 (鄭必昌)	남	26	정화철 의 부	"	○	○149)			확인
		정일각 (鄭一珏)	남	21	정일구 의 형	"	○	○150)			확인
		박병덕 (朴丙惠)	남	35	박종철 의 부	"	○	○151)			확인
		박덕중 (朴惠鍾)	남	24	박덕용 의 형제	"	○	○152)			확인
3	6761 이충섭	이창림 (李昌林) 호적이름: 이영식 (李永植)	남	41	부	충남 공주시 중동	○	○153)			확인
4	6907 조병기	조성갑 (趙成甲)	남	43	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울정리	○	○154)		제적부 ¹⁵⁵⁾	확인
5	7535 김원동	김용진 (金容鎭)	남	58	조부	"	○	○156)		제적부 ¹⁵⁷⁾	확인
		김순한 (金順한)	여	19	고모	"	○	○158)			확인
6	7948 우정규	우창규 (禹昶圭)	남	39	형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	○159)			확인

연 번	사건번호/ (미)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희생 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당시 주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관련 기록	
7	8797 김진환	김동석 (金童錫)	남	40	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울정리	○	○160)		제적부 ¹⁶¹⁾ 족보	확인
		김동찬 (金童瓚)	남	34	숙부	"	○	○162)		제적부 ¹⁶³⁾ 족보	확인
		김동수 (金東洙)	남	35	당숙	"	○			제적부 ¹⁶⁴⁾ 족보	확인
8	9846 이재옥	이용중 (李龍重)	남	42	부	충남 공주시 탄천면	○	○165)			확인
9	미신청 박옥희	박동면 (朴東冕)	남	31	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울정리	○	○166)			확인
10	미신청 김영배	김관국 (金觀局)	남	65	부	충남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	○167)			확인
11	미신청 김기성	김중관 (金重寬)	남	23	형	충남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	○168)			확인
12	미신청 유찬중	유희중 (劉熙鍾)	남	27	형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울정리	○	○169)		제적부 ¹⁷⁰⁾	확인
13	미신청 소재성	소구섭 (蘇龜燮)	남	38	부	교사/대졸	○	○171)		제적부 ¹⁷²⁾	확인

142) 참고인 윤영태 통화보고서(2009.5.13.); 참고인 김용연 통화보고서(2009.5.13.).

143) 제적부상 사망일정이 전쟁 발발 시점인 1950년 6월 25일(음력 5월 10일)부터 공주지역의 총살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7월 13일(음력 5월 28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는 전부 희생사실 확인의 근거로 삼았다. 단 음력을 주로 사용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적부에 등재된 기간 중 始期는 음력을, 終期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1950년 5월 10일~7월 13일 사이에 사망한 기록은 희생사실 '확인'의 근거로 삼았다.(윤청림의 제적부 사망일: 단기 4283(1950)년 7월 11일)

144) 신청인 정일혁 진술조서(2009.3.16.); 참고인 박명순 진술조서(2009.7.23.).

145) 신청인 정일혁 진술조서(2009.3.16.); 참고인 박명순 진술조서(2009.7.23.).

146) 신청인 정일혁 진술조서(2009.3.16.); 참고인 박명순 진술조서(2009.7.23.).

147) 신청인 정일혁 진술조서(2009.3.16.); 참고인 민병희(진술내용은 정일혁 진술조서에 포함)

148) 정팔배는 후손이 없어서 유족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나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잡혀가서 사망한 것이 확실시됨으로 희생자로 확인함.

149) 신청인 정일혁 진술조서(2009.3.16.); 참고인 박명순 진술조서(2009.7.23.).

150) 신청인 정일혁 진술조서(2009.3.16.); 참고인 민병희(진술내용은 정일혁 진술조서에 포함)

151) 신청인 정일혁 진술조서(2009.3.16.); 참고인 민병희(진술내용은 정일혁 진술조서에 포함)

152) 신청인 정일혁 진술조서(2009.3.16.); 참고인 박명순 진술조서(2009.7.23.).

라) 가해주체

공주지역의 가해주체는 공주경찰서 경찰과 헌병대가 유력하며 부분적으로 국군 제17연대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공주에 제17연대(웅진부대)와 헌병대가 주둔했다는 것은 『공주경찰연혁사』, 서덕순¹⁷³⁾의 『피난실기』¹⁷⁴⁾ 및 그밖에 참전군인¹⁷⁵⁾과 지역주민의 증언¹⁷⁶⁾으로 확인된다.

한편, 『공주경찰연혁사』에 따르면 ‘7월 9일 야간부터 공주경찰은 국군 제17연대 8중대와 금강연안에서 공동작전을 펼쳤으며, 또한 파견 헌병대와는 《형무소 수인(囚人)의 처치(處置), 보도연맹원의 조치(措置)》 등을 협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들의 개입사

- 153) 참고인 이효섭 진술조서(2009.3.9.); 참고인 이병림 통화보고서(2009.4.22.).
- 154) 참고인 조병호 통화보고서(2009.6.11.).
- 155) 제적부 사망일: 단기 4283(1950)년 5월 26일(양 7.11.).
- 156) 참고인 박옥희 진술조서(2009.4.23.); 참고인 오중운 통화보고서(2009.6.26.).
- 157) 제적부 사망일: 단기 4283(1950)년 5월 26일(양 7.11.).
- 158) 참고인 박옥희 진술조서(2009.4.23.).
- 159) 참고인 오연화 통화보고서(2009.5.14.); 참고인 이종국 통화보고서(2009.6.11.).
- 160) 참고인 오중운 통화보고서(2009.6.26.).
- 161) 제적부 사망일(단기 4283(1950)년 5월 15일(양 6.30.)); 족보 사망일(1950년 5월 26일(양 7.11)).
- 162) 참고인 오중운 통화보고서(2009.6.26.).
- 163) 제적부 사망일(단기 4283(1950)년 5월 26일); 족보 사망일(1950년 5월 26일(양 7.11)).
- 164) 제적부 사망일(단기 4283(1950)년 5월 15일(양 6.30.)); 족보 사망일(1950년 5월 26일(양 7.11)).
- 165) 참고인 배춘식 통화보고서(2009.5.18.); 참고인 윤범선 통화보고서(2009.5.18.).
- 166) 참고인 유찬중 면담보고서(2009.7.4.); 참고인 오중운 면담보고서(2009.6.26.).
- 167) 참고인 김인국 통화보고서(2009.3.25.); 참고인 이의규 통화보고서(2009.3.25.).
- 168) 참고인 이택수 면담보고서(2009.5.21.); 참고인 최황삼 면담보고서(2009.5.21.).
- 169) 참고인 오중운 통화보고서(2009.6.26.); 참고인 조병호 통화보고서(2009.6.11.).
- 170) 제적부 사망일: 단기 4283(1950)년 5월 26일(양 7. 11.).
- 171) 참고인 소인섭 면담보고서(2009.4.9.); 참고인 소재인 면담보고서(2009.4.9.).
- 172) 제적부 사망일: 단기 4283(1950)년 7월 10일.
- 173) 서덕순은 1892년 공주읍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일제하에서 공주청년회 부회장, 공주신간지회 부회장, 공주시민 부회장, 공주금융조합 조합장을 역임하였으며, 해방후 미군정기에는 충남 내무부장과 도지사(1947.11.22~1948.10.18.)를, 한국전쟁 시에는 공주시국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충남피란민연락사무소 회장을 지냈다.
- 174) “7월 6, 7일경부터의 일이다. 어디서인지 포탄이 간혹 우리 공주에도 들려오는 것이다. 수일 전에 조직된 공주시국대위원회에는 타지방에서 避來한 군인가족이라 하여 식량의 특배, 숙사의 알선, 등 갖은 요구가 있는가 하면 또 일방에는 우리는 웅진부대이다. 백 수십 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숙사 외에 군량과 飢饉을 공급하라는 등, 어떤 헌병 놈은 저의 가족의 특호를 요구하다가 만족치 못하여 당시의 대책위원장 군수 이남선을 短銃으로 위협까지 한 일도 있다.”(서덕순, 『피난실기』, 웅진문화 13집, 공주향토문화원회, 2003.).
- 175) 군사편찬위원회, 『한전 HA01501』, 당시 소속 17연대 2대대 7중대 하사 이성기 증언: 참고인 송○○ 통화보고서(2009.7.8.).
- 176) 참고인 송인수 면담보고서(2009.6.12.).

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¹⁷⁷⁾ 여기서 보도연맹원의 조치내용은 ‘전쟁 발발 후에 보도연맹원들을 도살장 뒷산(의당면 청룡리 여찬)의 고랑에 구덩이를 파고 처형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참전경찰의 진술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¹⁷⁸⁾

공주에 일시 주둔한 17연대는 당시 금강연안의 방어진지 구축작업을 하면서¹⁷⁹⁾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 보도연맹원 사살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와 연기의 경계인 나성리(당시는 공주군 장기면이었으나 현재는 연기군 남면임) 주민 송인수(20)에 따르면 ‘인근에 17연대 군인들이 주둔하여 마을에서 밥을 해다 주었으며, 그들이 장기면 산학리의 보도연맹원을 마을 뒤편 옥골(현재 연기군 남면 송원리)에서 사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¹⁸⁰⁾

당시 공주에 파견된 헌병대는 현재까지 조사로는 육군형무소 헌병대가 유력하다. 『한국헌병사』에 따르면 ‘육군형무소 헌병대가 7월 5일 22시 평택을 출발하여 공주에서 일박하였으며 7월 6일 오전 9시경 대전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⁸¹⁾ 이로 미루어 이들이 공주에 머무는 동안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처리문제를 경찰과 협의했거나, 이 중 일부가 공주에 계속 남아 일을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주읍장 지현정 등은 ‘시국대책위원 뺄을 활용하여 김영배 등 여러 명의 보도연맹원, 특히 공주지역 유지가의 자제들을 학살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 걸로 봐서 시국대책위원회위원들도 직간접적으로 보도연맹원 희생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걸로 보인다.¹⁸²⁾

5) 요약

공주지역 보도연맹원 250~300여 명은 1950년 6월 26일경부터 지서 별로 소집·체포되어 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송되고, 나머지는 공주경찰서 유치장 및 공주형무소 등에 얼마간 구금되었다가 7월 9~11일경(추정) 공주시 상왕동 왕촌, 의당면 청룡리 도살장 뒷산(여찬), 송원리 옥골(연기군) 등지에서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과 헌병대(육군형무소 헌병대)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제17연대 국군도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177) 공주경찰서, 『경찰연혁사』, 국가기록원소장자료, 1951, 112쪽, 123쪽.

178) 참고인 권○○ 면담보고서(2009.4.9.).

179) 군사편찬위원회, 『한전 HA01501』, 당시 소속 17연대 2대대 7중대 하사 이성기 증언: 참고인 송○○ 통화보고서(2009.7.8.).

180) 참고인 송인수 면담보고서(2009.6.12.).

181)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1952, 368쪽.

182) 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현황조사용역결과보고서』, 2007, 261쪽.

다. 연기(군)지역

1) 신청인 조사

연기지역의 신청건수는 2건이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진실규명대상자들은 지서나 경찰서로 예비 검속된 후 공주 가는 구도로 옆에서 사살당했다고 한다. 신청인(미신청인 포함)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연기지역 신청인(미신청인 포함) 조사내용

연 번	신청인 (사건 번호)	조사일시 조사장소	출생 연도	진술 형태	주요 진술내용
1	박영애 (2425)	2008.5.22. 충북도청 서관2층	50년생	진술 조서	•부(父) 박윤신은 전쟁나기 얼마 전에 잡혀가서 경찰서에 열흘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지수서를 적고 나왔다고 함(보도연맹 기입). 그 후 경찰서의 호출을 받아 나갔으며, 얼마 후 연기군 아산에서 희생당함. 신청인의 조모가 직접 만들어 준 삼베적삼을 보고 시신을 수습함.(※신청인의 큰 고모 박순래(75)가 조사에 동참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음)
2	진근식 (6351)	2008.1.31. 대전시청 대회의실	68년생	진술 조서	•백부(伯父) 진태식은 전쟁 발발 직후 동면파출소 순경이 와서 논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서로 오라고 했다함. 마을에서 남자 3~4명, 여자 7~8명 정도 갔는데 그들은 전부 희생되었다 함. 연기에 서 공주가는 구도로 옆 아카시아 밭에서 동네사람들 시신을 수습함.
3	김영자 (미신청)	2009.3.6. 위원회 조사실	44년생	진술 조서	•부(父) 김순경(金淳卿, 1921년생), 이재경, 이철세가 연기군 남면 갈운리에서 희생되었음. 희생당한 날은 양 7월 9일(음 5.24.)이며 동네사람 세 명의 시신도 함께 수습함.(시신수습)
4	임동각 (미신청)	2009.6.30. 위원회	34년생	통화 보고서	•부(父) 임낙우가 근로인민당 당원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나 전쟁 발발 후 연행되어 희생되었으며 남면 갈운리에서 시신을 수습함(시신수습)
5	송재진 (미신청)	2009.7.3. 서면 자택	36년생	면담 보고서	•참고인의 부(父) 송신헌을 비롯하여 현선복, 현희복, 현후복, 현용희 등이 보도연맹원으로 조치원경찰서에 연행된 후 남면 갈운리에서 희생되었음.(시신수습)
6	현승근 (미신청)	2009.7.3. 서면 자택	37년생	면담 보고서	•서면 용암리의 현선복(父), 현희복(고모), 현후복(三寸), 현용희, 송신헌 등이 보도연맹원으로 조치원경찰서에 연행된 후 남면 갈운리에서 희생되었음.(시신수습)
7	이완행 (미신청)	2009.7.16. 위원회	50년생	통화 보고서	•부(父) 이재수가 전쟁 발발 후 방앗간을 다녀오다 동네사람들과 함께 연행되어 희생됨. 동네 어른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신안리 홍익대 자리에 매장함.(시신수습)
8	현상근 (미신청)	2009.7.17. 위원회	35년생	통화 보고서	•부(父) 현후복(38)은 무학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중 전쟁 발발 후 조치원경찰서로 연행되어 남면 갈운리에서 희생되었음. 현후복의 제삿날은 음력 5월 22일(양 7월 7일)임.(시신수습)

2) 참고인 조사

연기지역의 참고인조사는 기초사실조사 결과 보도연맹 희생사실을 증언한 6건을 포함하여 당시 참전경찰, 희생현장 주민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특히, 기초사실조사결과에서 보도연맹사건 관련성이 추정되는 6건에 대한 조사결과 1건은 연락두절, 1건은 무관, 2건은 전문(傳聞)자, 2건은 보도연맹 희생자로 나타났다.

〈표 10〉 연기지역 참고인 조사내용

연번	성명(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진태봉 (22)	진태식 희생증언	2008.8.29. 면담보고서	• 진태식(다-6351호)은 불무골(동면 갈산리) 주민 약 15명과 함께 보도연맹원으로 조치원경찰서에 연행된 후 공주 가는 도로가 고랑(수명재)에서 사살됨.(시신수습)
2	홍○○ (24)	참전경찰 (종촌 출장소)	2009.2.24. 진술녹취록	• 보도연맹원들은 전쟁나면서 전부 예비 검속했으며 그 후 처형명령이 내려와서 후퇴하던 응진서원들이 그 사람들을 대리로 처형했다고 들었음.
3	박복례 (19)	보덕리 주민 희생증언	2009.3.17. 면담보고서	• 전동면 보덕리의 보도연맹 희생자는 한근수의 아버지, 한달수 아버지와 어머니이며, 그중 한달수 어머니와 한근수 아버지 시신은 연기고개(은고개 지칭하는 듯)에서 수습함.
4	전병기 (15)	정현모 희생증언	2009.3.17. 면담보고서	• 보도연맹원 학살현장은 연기군 남면 갈운리와 고정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명재’라고 불림. 학교교사였던 친구 형(정현모)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수명재에서 총살됨.
5	서○○ (26)	참전경찰 (금남지서 주임)	2009.3.24. 진술녹취록	• 전쟁 발발 다음날 조치원서로부터 ‘보도연맹원들을 지서에 모아 놓아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음. 금남면에는 5명 정도의 보도연맹원들이 있었으며 조치원서에서 트럭으로 싣고 간 후의 상황은 모름
6	이재복 (30)	이재경 외 3인 희생증언	2009.4.24. 통화보고서	• 신안2구에서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은 이재경(동생), 김순경, 이재수(사촌), 이철세 등임. 당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들은 모두 보도연맹에 강제 가입시켰음.(시신수습)
7	이재국 (15)	김순경 외 3인 희생증언	2009.4.29. 면담보고서	• 신안2구에서 보도연맹으로 잡혀간 사람으로는 이재경(형), 김순경, 홍순천, 이철세 등이며 이들은 남면 종촌의 어느 아산에서 사살 당했음.(시신수습)
8	김○○ (28)	참전경찰 (남면 종촌지서)	2009.4.29. 진술녹취록	• 전쟁 당시 참고인은 외곽경비로 차출됨. 수복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수명재’에서 처형했다고 함.
9	정○○ (17)	정현모 희생증언	2009.7.1. 면담보고서	• 연남 초등학교 교사이던 정현모(형)의 시신을 ‘수명재’에서 수습했으나 조사받기를 원하지 않음. 당시 현장은 60~70m 이상 호를 길게 판 다음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꿰어얹힌 채 사살되어 묻혀 있었음.

제 4 권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0	신순용 (13)	갈우리 주민	2009.7.1.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은 전쟁 당시 연기군 갈우리 '수명재' 인근에 거주하였으며 전쟁 발발 후 어느 날 저녁때쯤 경찰들이 '사격 훈련하니까 나오지 마라. 나오면 큰일 난다'며 주민들을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음. 수명재 현장은 '은고개'와 '비성골' 두 곳으로 '은고개'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사살되었음.
11	신항식 (16)	노장리 주민	2009.7.1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와 봉대리사이 '떡뱅이'에서 타 지역 보도연맹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학살하였음. 당시 소방대원들이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한 후 총살했으며 현재도 시신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음.
12	임동길 (29) 임병석 (19)	임낙우 희생증언	2009.7.2.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기룡리에서 보도연맹원 3~4명이 잡혀 갔으며 임낙우, 유치극, 유진영·유진득 형제 등이며 임낙우의 시신은 참고인 임동길이 직접 수습함. 유치극의 시신도 수습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모름.(※참고인 임병석은 부재중이어서 통화로 사실을 확인함)
13	김○○ (23)	17연대 참전군인	2009.8.28.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퇴시 연기지역 대평리, 금강교부근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음(17연대 본부는 공주에 머물렀음). 당시 이등상사였던 참고인은 중대장으로부터 1개 분대를 받아 금강교에서 피난민 중에 섞여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받음. 명령은 잠정명령○호로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것임. 마침 친구형님이 전투경찰로 춘천에서 대평리 부근에 후퇴하여 그에게 보도연맹원 색출을 부탁하였음. 이렇게 색출된 보도연맹원들은 수명재 등 처형현장으로 보내졌음.

3) 현장 조사

조치원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들은 이후 연기에서 공주가는 구도로변의 일명 '수명재' (연기군 남면 갈우리와 고정리의 경계지역)옆 야산으로 끌려가 희생당했다고 한다. 수명재의 희생현장은 갈우리 쪽에 있는 '비성골' 과 고정리쪽에 있는 '은고개' 두 곳이며 두 지점은 약 600~7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두 곳 모두 현재 행정도시 건설 중이며 '은고개'는 옛 모습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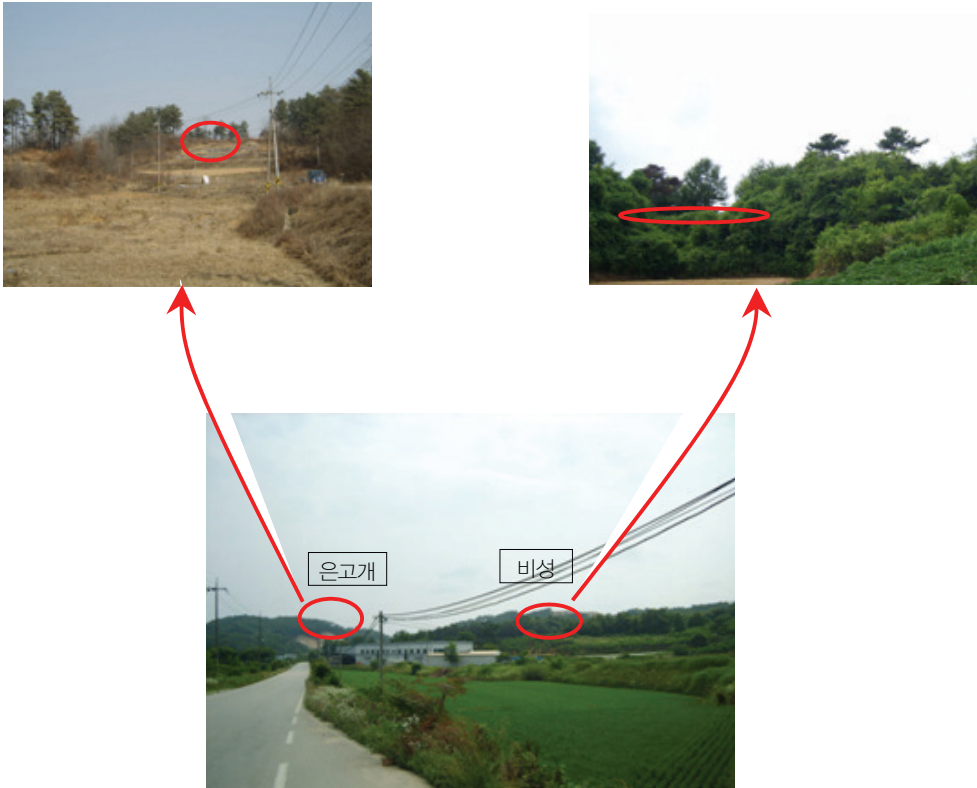
연기지역 희생현장 가운데 전동면 봉대리와 노장리의 경계지점인 '떡뱅이' 지역은 타 지방 보도연맹원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희생당했다고 한다. 참고인 신항식에 의하면 당시 떡뱅이로 들어가는 초입에 희생자들 것으로 보이는 신발과 치약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고 한다.¹⁸³⁾

현장 주변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수명재'에서는 인민군 점령시 유족들이 많은 시신

183) 참고인 신항식 면담보고서(2009.7.1.).

을 수습하였으나, ‘떡뱅이’ 지역은 시신수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림 7] 연기군 남면 수명재 희생현장



[그림 8] 연기군 전동면 봉대리 떡뱅이



4) 사건 경위

가) 연기 국민보도연맹 조직

충남의 다른 지역 예로 미루어 늦어도 1950년 1~2월경에는 연기군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으리라고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연기군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시기와 관련된 문헌 자료나 증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예비검속

연기군의 예비검속은 전쟁 발발 이튿날 조치원경찰서로부터 ‘보도연맹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전화지시가 내려왔다는 당시 조치원경찰서 금남지서 주임 서○○의 진술로 미루어 6월 26일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¹⁸⁴⁾

연기군 동면 갈산리 2구 ‘불무골’ 주민 진태식(6351호) 등 약 15명은 전쟁 발발 며칠 후 동면지서 순경으로부터 소집을 명받았다.¹⁸⁵⁾ 조치원읍 신안동 2구 주민 김순경(미신청) 등 3~4명은 전쟁 발발 후 1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소집명령을 받고 나갔다.¹⁸⁶⁾ 참고인 이재복(30)에 의하면 이들은 전쟁 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집이 있었으며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진짜 빨갱이로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 소집에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한다.¹⁸⁷⁾

○ 구금

각 면단위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각 지서에서 조치원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치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또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경찰서 옆에 있는 임시창고에도 구금되었다.¹⁸⁸⁾ 당시 금남지서 주임이었던 서○○는 보도연맹원들을 ‘잠시 지서로 오라’고 통지하여 모아놓으면 몇 시간 있다가 경찰서에서 트럭으로 그들을 데려갔다고 한다.¹⁸⁹⁾

184) 참고인 서○○ 면담보고서(2009.3.24.).

185) 참고인 진태봉 면담보고서(2008.8.29.).

186) 참고인 김영자 진술조서(2009.3.6.)

187) 참고인 이재복 통화보고서(2009.4.24.).

188) 신청인 박영애 진술조서(2008.5.22.).

189) 참고인 서○○ 면담보고서(2009.4.9.).

서면 용암리 위즐마을 참고인 현승근(15)은 부(父) 현선복(미신청)의 생일인 음력 5월 22일(양력 7월 7일) 조치원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면회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였다.¹⁹⁰⁾

○ 사살 및 시신수습

현재까지 조사결과 희생자의 제삿날 등으로 미루어 이 지역의 사살일자는 1950년 7월 8일이 유력하다.¹⁹¹⁾ 당시 갈우리 '수명재' 현장 아랫마을에 살았던 참고인 신순용(13)에 따르면 사살당일 저녁 때 쫓 경찰들이 와서 '사격 훈련하니까 나오지 마라. 나오면 큰일 난다'며 주민들을 전부 집으로 들어가게 한 후 엄청난 총소리가 들렸다고 한다.¹⁹²⁾

이 지역의 희생자 유족들은 대부분 시신을 수습한 경우가 많았는데 사살현장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성골' 현장에서 형(兄)의 시신을 수습한 참고인 정○○에 의하면 '산등성 부근에 호를 약 60~70m 이상 길게 판 후 사람들을 꿰어얕힌 채 총으로 사살하여 파묻었으며 현장에는 약 100여 구 정도의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¹⁹³⁾ 당시 현장 근처에 살았던 갈우리 주민에 의하면 '비성골'에서 약 600~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은고개'에서는 더 많은 시신이 있었으며 여자도 있었다고 한다.¹⁹⁴⁾ 당시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참고인 송재진은 '구덩이 속에는 두 사람씩 손이 철사로 묶인 채 총을 머리에 맞아 죽어 있었다'고 한다.¹⁹⁵⁾

다) 희생규모와 희생자 신원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연기지역의 희생규모를 추정하면 수명재('은고개'와 '비성골')에서 최소 200~300여 명 정도가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성골' 현장에는 최소 100여 구 이상의 시신이 있었으며 인근 '은고개'에는 더 많은 시신이 있었다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¹⁹⁶⁾

반면 전동면 봉대리 '떡뱅이' 지역의 희생규모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 단지 당시 '트럭

190) 용암리 '위즐마을'에서는 현선복(玄善福), 현희복(玄喜福), 현후복(玄厚福), 현용희, 송신현(宋愼憲) 등이 연행되었다. 참고인 현승근, 송재진 면담보고서(2009. 7. 3.).

191) 대부분 희생자의 제삿날은 음력 5월 22일(양력 7월 7일)이며 제삿날을 그렇게 정한 기준은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 사살날짜를 물어서 정했다고 한다. 일부(미신청인 김순경)의 제삿날이 하루 뒤인 7월 8일이지만 이는 사살당일을 제삿날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192) 참고인 신순용 면담보고서(2009.7.1.).

193) 참고인 정○○ 면담보고서(2009.7.1.).

194) 참고인 신순용 면담보고서(2009.7.1.).

195) 참고인 송재진 면담보고서(2009.7.3.).

196) 참고인 정○○ 면담보고서(2009.7.1.); 참고인 신순용 면담보고서(2009.7.1.); 참고인 임동길 면담보고서(2009.7.2.)

제 4 권

한 대라는 소문을 들었다’거나 ‘현장 입구에 가지런히 벗어놓았던 고무신, 치약 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증언¹⁹⁷⁾으로 미루어 50여 명 내외의 희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떡방이’ 지역의 희생자들은 타지방의 보도연맹원이라는 진술이 있는데 위쪽의 천안이나 인근 충청지역의 보도연맹원일 가능성이 있다.

조사결과 확인된 연기지역의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한편, 참고인의 증언을 통하여 희생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유족에 대한 조사 및 제적부 등을 통한 신원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희생자로 최종 확인하였다.¹⁹⁸⁾

〈표 11〉 연기지역 희생자 명단

연번	사건 번호/ (미)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희생 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당시 주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관련 기록	
1	2425 박영애	박윤신 (朴潤信)	남	22	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	○199)	○		확인
2	6351 진근식	진태식 (진泰植)	남	20	백부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	○200)	○		확인
3	미신청 김영자	김순경 (金淳卿)	남	29	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동	○	○201)	○		확인
4	미신청 임동각	임낙우 (林洛禹)	남	39	부	충남 연기군 서면 기룡리	○	○202)	○		확인
5	미신청 송재진	송신헌 (宋慎憲)	남	47	부	충남 연기군 서면 용암리	○	○203)	○		확인
6	미신청 현승근	현선복 (玄善福)	남	45	부	”	○	○204)	○		확인
		현희복 (玄喜福)	여	40	고모	”	○	○205)	○		확인
7	미신청 현상근	현후복 (玄厚福)	남	38	부	”	○	○206)	○		확인
8	미신청 이완행	이재수 (李載秀)	남	23	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동	○	○207)	○		확인

197) 참고인 신항식 면담보고서(2009.7.1.).

198) 일부 유족은 아직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발언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은 희생자 확인을 위한 제적부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조사받기를 원하지 않는 유족도 있었다. 한편, 참고인의 진술로 보아 희생자일 개연성이 높으나 유족미확인 등으로 신원확인을 하지 못해 ‘희생자 확인’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동의 이재경·이철세·홍순천, 서면 용암리의 현용희, 서면 기룡리의 유치국·유진영·유진득, 연남초등학교 교사 정현모 등이다.

라) 가해주체

참전경찰과 현장 부근 마을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총살의 주체는 경찰(조치원경찰서 및 용진경찰서 직원일부)이며 일부 17연대 국군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참전경찰 홍○○(24, 종촌지서)에 의하면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그 후 처형명령이 내려와서 후퇴하던 용진서원들이 대리로 처형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²⁰⁸⁾ 참고인 김○○(28, 종촌지서)은 '당시 금강 외곽경비로 차출되어 보도연맹원 처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수복 후에 수명재에서 처형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²⁰⁹⁾ 당시 수명재 인근 갈운리 주민들도 경찰들이 '사격 연습한다면서 마을사람들을 다 들여보낸 후에 보도연맹원들을 사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²¹⁰⁾

또한 참전군인 김○○(23)에 의하면 후퇴하던 17연대가 연기군 대평리와 금강교 부근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중대장으로부터 피난민 중에 섞여 있는 보도연맹원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²¹¹⁾

당시 이 지역 주민 송인수(20)에 의하면 17연대 군인들이 연기와 공주의 접경지역인 나성리 부근에 주둔하였으며 이들이 장기면 산학리의 지방빨갱이(보도연맹원)들을 사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²¹²⁾ 이러한 여러 증언을 고려할 때 당시 연기지역에 후퇴하여 머물던 국군 17연대와 용진경찰서 경찰이 조치원경찰서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 참고인 박순래(신청인 박영애 진술조서(2008.5.22.)).

200) 참고인 진태봉 면담보고서(2008.8.29.).

201) 참고인 이재복 통화보고서(2009.4.24.); 참고인 이재국 면담보고서(2009.4.29.).

202) 참고인 임동길·임병석 면담보고서(2009.7.2.).

203) 참고인 현승근 면담보고서(2009.7.3.).

204) 참고인 송재진 면담보고서(2009.7.3.).

205) 참고인 송재진 면담보고서(2009.7.3.).

206) 참고인 현승근 면담보고서(2009.7.3.).

207) 참고인 이재복 통화보고서(2009.4.24.); 참고인 이재국 면담보고서(2009.4.29.).

208) 참고인 홍○○ 진술녹취록(2009.2.24.).

209)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4.29.).

210) 참고인 신순용 면담보고서((2009.7.1.): 참고인 신순용 면담시 갈운리 주민 3인도 동참하였음.

211) 참고인은 그 명령을 마친 아현동에 살던 친구의 형(이름모름, 현재 사망)이 전투경찰이 되어 그곳으로 후퇴하여 있던 차에 그에게 부탁하였다고 하며 친구 형이 색출한 보도연맹원들은 수명재 등 처형장소로 보내졌다고 하였다.(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9.8.28.)).

212) 참고인 송인수 면담보고서(2009.6.12.).

제 4 권

5) 요약

조사결과 연기지역 보도연맹원 200~300여 명은 1950년 6월 26일경부터 지서 별로 소집·체포되어 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송되고, 나머지는 조치원경찰서 유치장 및 인근 창고 등에 얼마간 구금되었다가 7월 8일경 연기군 남면 갈우리 수명재(‘은고개’와 ‘비성골’)에서 제17연대(웅진부대) 및 웅진경찰서·조치원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사살되었다.

라. 예산(군)지역

1) 신청인 조사

예산군의 신청건은 1건이다. 그것도 유족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평소에 향토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시민이 신청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표 12〉 예산지역 신청인 조사내용

연번	신청인 (사건번호)	조사일시 조사장소	출생 연도	진술 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이대열 (10778)	2008.8.27. 예산군청 상황실	59년생	진술 조서	• 신청인은 향토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예산군민 성백환이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으로 예비검속되어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함.

2) 참고인 조사

예산지역은 박헌영의 고향으로 좌익세가 강했던 곳이다. 신청인 수에 상관없이 실제 사건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그중 좌익이 성했던 대술면 마전리와 예산읍 손지리 주민을 탐문, 조사하였다.

〈표 13〉 예산지역 참고인 조사내용

연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성부제 (3)	성백환 희생증언	2008.8.27. 면담보고서	• 참고인은 내포문화연구회 이사로 예산지역의 향토사를 연구하였음. 성백환(成百煥, 다-10778호)이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신양국민학교 한문교사로 있다가 보도연맹사건으로 ‘화천리 뒷산’에서 희생되었다 함.
2	방한수 (18)	마전리 주민	2009.4.27. 면담보고서	• 대술면 마전리의 경우 수복 후에는 약 2~30명의 희생자가 있었으나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실은 모름.

연 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3	박우윤 (24)	마전리 주민	2009.4.27. 면담보고서	• 대술면 마전리의 주장세가 경찰 후퇴할 즈음 ‘선들깡변’에서 사살당했음.
4	윤○○ (20)	참전경찰 (예산서)	2009.4.27. 면담보고서	• 예산서에 배명된 것이 ‘51년 11월경으로 전쟁 초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당시 예산지역에는 군인은 없었으며 주로 경찰들이 전투를 담당했음.
5	윤용진 (23)	손지리 주민	2009.4.27. 면담보고서	• 예산읍 손지리는 강모, 조모 등의 영향으로 남로당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6	성희제 (13)	성백환 희생증언	2009.5.20. 2009.6.15. 면담보고서	• 성백환(成百煥, 10778호)은 참고인의 부로 전쟁 발발 후 연행되어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뒷산에서 사살됨. 현장에는 12~3구의 시신이 논 옆 야산에 그대로 널려 있었음.(시신수습)
7	한○○ (25)	참전경찰 (예산서 희남지서)	2009.6.15. 진술녹취록	• 예산의 보도연맹원들은 예비검속 후 전부 석방하였음. 예비검속지시는 상부(충남경찰청)에서 내려 왔음. 전쟁전에도 보도연맹원들은 수시로 소집되었음. 오기면 인민위원장 조보원의 활동으로 인민군 점령기에 경찰가족들이 살아났음.

3) 현장 조사

조사결과 예산지역의 희생현장은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차동고개²¹³⁾가 아닌 ‘화천리 뒷산’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예산-공주간 32번 국도에서 대술면소재지 방향으로 300~400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한 곳으로 행정구역은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이다. 인근 지역에 ‘선들’이란 지명이 있기 때문인지 일부참고인들은 ‘작은선들’ 혹은 ‘선들깡변’으로 불렀으나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한 참고인 성희제(13)는 둘 다 정확한 이름은 아니라고 했다. 이곳에서는 편의상 ‘화천리 뒷산’으로 칭하기로 한다. 화천리 뒷산의 경우는 보통 호를 파고 시신을 파묻었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곳의 희생자들은 논 옆 야산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한다.²¹⁴⁾

213) 유관시민단체에서는 예산지역의 보도연맹원 희생지로 차동고개를 들고 있다.(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민간인 학살 주요사건』, 우인미디어, 2006, 105쪽.), 한편, 인류학자 윤택림은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에서 예산의 좌익(보도연맹원)이 학살된 장소를 차동고개와 예산읍 시장근처 시냇가라고 언급하고 있다.(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역사비평사, 2004, 136쪽.)

214) 참고인 성희제 면담보고서(2009.5.20.).

[그림 9] 예산군 화천리 뒷산



4) 사건 경위

가) 예산 국민보도연맹 조직

예산 국민보도연맹 결성식은 1950년 2월 3일 하오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예산극장에서 거행되었다. 참석자는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장 김태동(金○東), 국민보도연맹 충청남도 보도부장 이진구(李○求)등이며, 여기서 선임된 임원으로는 고문 윤병구의 3인, 지도위원장 김태동, 지도위원 김종걸외 8인, 상임지도위원 손완면, 김영철 등이다.²¹⁵⁾

나)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참고인 성부제에 의하면 ‘예산에서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1차로 석방되었으나 그들 중 일부가 예산읍 쌍소무배기 하천에서 『인민군 환영』이라는 대자보를 붙이다 잡혀서 경찰에 인계되었고 어쩔 수 없이 희생되었다’고 한다.²¹⁶⁾

예산지역에서 1차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이 풀려났으나 그들 중 일부(12명)가 다시 잡혀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은 기존의 연구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²¹⁷⁾

215) 동방신문, 1950.2.9.

216) 참고인 성부제 면담보고서(2008.8.27.).

217) 예산 현지에서 머물며 인류학적 연구를 했던 윤택림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예산경찰은 보도연맹원 약 100여 명을 체포하였으나 경찰이 7월 8일 예산읍에서 퇴각하게 되자 이들은 경찰서 감방을 열고 나왔다. 그들은 적당한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읍사무소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경찰은 홍성경찰서로부터 너무 일찍 퇴각했다는 질책을 받고는 그 다음날 다시 예산으로 돌아와 죄익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경찰이 돌아오자 도망갔던 죄익들은 읍사무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중 12명은 인민군을 환영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여관에 투숙하고 있다가 무장한 대한청년단에게 붙잡혀 경찰

참전경찰 한○○(25, 예산경찰서)의 진술도 윤택림의 연구나 다른 참고인의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에 의하면 예산군 전체 보도연맹원은 대략 100명이 넘었으며, 그들은 상부(충남경찰청)의 지시로 예비검속되었으나 전부 석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차로 잡혀 사살된 보도연맹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민군 점령기에 경찰가족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을 때 오가면 인민위원장이었던 조보원(사망)이 이를 막았는데 그 이유가 경찰 후퇴시에 보도연맹원들을 석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²¹⁸⁾

다) 희생 규모와 희생자 신원

‘화천리 뒷산’에서 아버지 성백환(10778호)의 시신을 수습한 성희제는 당시 현장에 12~3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²¹⁹⁾ 참고인 성희제에 따르면 예산군에서 희생된 보도연맹원 숫자가 적은 이유는 당시 경찰 중 성백환이나 박선생(죽천리)의 제자가 많이 있어서 1차로 많은 사람을 석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²²⁰⁾ 그러나 각 마을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희생된 보도연맹원수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산지역의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표 14〉 예산지역 희생자 명단

연번	사건 번호/ (미)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희생 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당시 주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관련 기록	
1	10778 이대열	성백환 (成百煥)	남	34	예산 군민	충남 예산군 신양면	○221)	○222)	○	제적부 ²²³⁾	확인

감방으로 연행되었다. 7월 10일 인민군이 예산을 점령하려 할 때, 경찰과 그 대한청년단원들은 이들 12명을 차동고개로 데려가서 죽여 버렸다. 그들은 또한 예산을 시장 근처 냇가옆에서 다시 잡은 보도연맹원들도 모두 죽여버렸다.”고 한다.(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4, 136쪽.).

218) 참고인 한○○ 면담보고서(2009.6.15.).

219) 참고인 성희제 면담보고서(2009.6.15.).

220) 죽천리의 박선생도 성백환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하나 이름이나 나이 등을 전혀 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참고인 성부제 면담보고서(2008.8.27.)).

221) 참고인 성희제 면담보고서(2009.5.20.).

222) 참고인 성부제 면담보고서(2008.8.27.).

223) 제적부 사망일: 단기 4283(1950)년 5월 25일(양 7.10).

라) 가해주체

참고인 성부제에 따르면 1차로 석방된 보도연맹원들이 예산읍 쌍소무배기 하천에서 ‘인민군 환영’이라는 대자보를 붙이다 잡혀서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한다. 또한 인류학자 윤택림의 연구에 의하면 1차로 석방된 보도연맹원들은 대한청년단에게 잡혀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인민군이 내려올 때쯤 경찰과 대한청년단에게 사살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산지역의 가해주체는 이 지역 경찰과 대한청년단원이 행한 것으로 보인다.

5) 요약

조사결과 예산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1차로 석방되었으나 그들 중 일부가 예산읍 쌍소무배기 하천에서 ‘인민군 환영’이라는 대자보를 붙이다 잡혀서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이 중 12~3명은 경찰의 후퇴 직전(7월 11~12일경²²⁴)에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뒷산에서 사살되었다.

마. 청양(군)지역

1) 신청인 조사

청양지역의 신청인은 1건이나, 청양읍에서 연행되어 간 인원은 총 9명²²⁵이며 이들은 한낱한시에 잡혀가서 학살당했다고 한다.

〈표 15〉 청양지역 신청인 조사내용

연번	신청인 (사건 번호)	조사일시 조사장소	출생 연도	진술 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이필재 (6131)	2008.8.28. 청양읍 자택	37년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兄) 이경재(李景載)는 전쟁 전에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잡혀 갔던 적이 있으며 그 후 경찰의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 함. 1950년 6월 27일경에 경찰의 1차 소환이 있었으나 그때는 전부 풀려났으며 6월 30일경 경찰의 2차 소환에 의해 출두한 후 대전이나 옥천에서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224) 예산경찰서는 1950년 7월 12일 오후 6시 30분 보령 쪽으로 후퇴하였다.(예산경찰서, 『경찰연혁사』, 국가 기록원소장자료, 1951.).

225) 9명의 명단은 이경재, 원용목, 박운익, 이승문, 김인식, 최홍룡, 조용호, 이귀범(청양면 장승리), 조춘희(조천희: 화성면 신정리)이다.(신청인 이필재 진술조서(2008.8.28.)).

2) 참고인 조사

희생자확인 및 사건현장 관련 일반 참고인을 조사하였다.

〈표 16〉 청양지역 참고인 조사내용

연번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조중섭 (19)	이경재 희생증언	2008.8.28. 면담보고서	• 조춘희(참고인의 작은아버지), 이경재, 원용묵 등이 보도연맹으로 희생당함.
2	이도재 (29)	이경재 희생증언	2008.8.28. 진술조서	• 이경재(6131호), 조춘희, 원용묵, 박운익 등의 희생사실 확인. 보도연맹학살지로 알려진 쓰리티골은 1.4후퇴 직후 부역자 처형한 곳임.
3	조강식 (28)	비봉면 주민	2009.4.28. 면담보고서	• 보도연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으며 비봉면 양사리의 경우 수복 후에 빨갱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함.
4	정재권 (13)	청양문화 원 원장	2009.4.28. 면담보고서	• 참고인은 현재 청양문화원 원장으로 재직 중임. 청양지역의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음.
5	고용성 (17)	쓰리티 고개 인근주민	2009.4.28. 면담보고서	• 29번 국도변에 있는 쓰리티고개에 6.25 당시 빨갱이들을 잡아다 총살시켰으나 구체적으로 경찰 후퇴 시인지 1.4후퇴 시인지는 모름. 당시 죽은 사람들이 타 지방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음.
6	안중운 (21)	이경재 희생증언	2009.4.28. 면담보고서	• 이경재(6131호)는 공산주의에 밝았으며 그를 따른 사람들은 그 사상에 몰들었음. 구체적인 사망경위나 청양의 보도연맹에 관한 것은 모름.
7	이계복 (26)	이경재 희생증언	2009.4.28. 면담보고서	• 청양에서 보도연맹으로 희생당한 사람은 이경재(6131호), 이귀범 등임. 당시 경찰이 쓰리티 고개에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고 남하했다는 소문이 있었음.

3) 현장 조사

청양지역의 희생현장으로 알려진 쓰리티고개는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에 위치하며 청양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부여 쪽으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그러나 신청인 이필재와 참고인 이계복(26) 등은 보도연맹원들이 쓰리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한 반면,²²⁶⁾ 참고인 이도재(29)는 쓰리티고개는 1.4후퇴 당시 부역자들이 처형된 곳으로 보도연맹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²²⁷⁾ 이에 대해 쓰리티고개 인근 주민인 고용성(17)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사살당한 곳은 쓰리티고개가 아니라 쓰리티고개에서

226) 참고인 이계복 면담보고서(2009.4.28.)

227) 참고인 이도재 진술조서(2008.8.28.): 이필재 진술조서에 포함되어 있음.

제 4 권

29번 국도를 타고 청양쪽으로 약 2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금정리 돌레골이라고 증언하였다. 금정리 돌레골은 예전에 사금을 채취하던 야산이었는데 6.25 당시(전쟁 발발 직후인지 수복 후인지는 불분명함) 민간인들이 사살당한 곳으로 당시 후배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올라가서 탄피를 줬다고 한다.²²⁸⁾

현재까지 조사로는 청양지역의 희생현장은 싸리티고개에서 멀지 않은 금정리 돌레골이 유력해 보이나 그곳이 보도연맹원이 희생된 곳인지, 부역자나 기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림 10] 청양 싸리티고개(좌)와 금정리 돌레골(원안이 민간인 희생된 곳)



4) 사건 경위

가) 청양 국민보도연맹 조직

청양 국민보도연맹 군지부결성식은 1950년 1월 14일 오전 11시 청양국민학교에서 공주지청장을 비롯하여 7~800명의 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여기서 선임된 임원으로는 위원장 김항진(金晃鎭), 지도위원장 김창기(金昌起), 간사장 원용묵(元容默) 등이다.²²⁹⁾

나)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청양지역은 신청건수는 1건이나 진실규명대상자 이경재(6131호)의 예비검속 과정을 추적하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경재는 1946년 11월 20일 원용묵, 김동섭

228) 참고인 고용성 면담보고서(2009.4.28.).

229) 동방신문, 1950.1.20.

등과 함께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에 청양군 대표로 참석할 정도로 이 지역의 대표적 좌익계인사였기 때문이다.²³⁰⁾

참고인 이도재에 따르면 형(兄) 이경재의 1차 소환은 6월 27일경이었는데 당시 부재중인 이경재 대신 참고인이 잡혀갔다 풀려나왔다고 한다. 2차 소환은 6월 30일경에 이루어졌으며 청양경찰서에 2~3일간 구금되었다고 한다. 이후 이경재의 부인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대전이나 충북 옥천으로 끌려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²³¹⁾

다) 희생규모와 희생자 신원

청양지역의 희생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언이나 조사로는 알 수 없다. 단지 인근의 부여, 논산, 서천 등에 비추어 보도연맹원 중 주동자²³²⁾ 급은 검속 후 대전으로 이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당시 이경재와 함께 끌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원용묵과 이귀범은 9.28 수복 후에 사살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신청인이나 참고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청양경찰서에서 생산된 「신원기록존안대상자명부」(1981년)에는 6.25 당시 처형된 것으로 보이는 처형자 95명의 명단이 들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9.28 수복 후 부역혐의로 처형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명단에 이경재는 없음) 그러나 동 기록은 구체적 처형일시나 장소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으며 초기에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²³³⁾ 현재까지 확인된 청양지역의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²³⁴⁾

〈표 17〉 청양지역 희생자 명단

연번	사건번호/ (미)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희생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당시 주소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	관련기록	
1	6131 이필재	이경재 (李景載)	남	32	형	충남 청양군 청양읍	○	○ ²³⁵⁾			확인

230) 강성현, 『전쟁과 지역사회』, 제노사이드 연구회 2006 하계워크샵, 15쪽.

231) 신청인 이필재 진술조서(2008.8.28.): 이도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은 이필재의 진술조서에 함께 기록하였다.

232) 참고인 여운형 면담보고서(2009.6.17.): 참고인 김동현 면담보고서(2009.6.18.).

233) 원용묵(元容默, 1911년생)의 처형심사기준은 '청양군 남로당 창설자 6·25 당시 보도연맹 9·28수복 후 처형'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귀범(李貴範, 1908년생)의 처형심사기준은 '6·25 당시 보도연맹 약질부역, 9·28수복 후 처형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밖에 보도연맹관련자로는 장세창(張世昌, 1924년생)이 있으며 처형심사기준은 이귀범과 동일하다.

234) 신청인이 이경재와 같이 잡혀갔다고 진술한 사람 중 원용묵, 이귀범 등이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다른 사람(조훈희 등)에 대해서도 사망의 개연성은 높으나 보도연맹희생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 4 권

라) 가해주체

청양지역의 가해주체 역시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보령 등 충남의 중서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찰로 추정된다. 이유는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이 청양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사라졌으며, 지역적으로 인민군의 주 진로인 경부축선에서 빗겨나 있어 경찰이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5) 요약

조사결과 청양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중 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은 다른 지역의 예에 비추어 주동자급 일부라고 추정된다. 한편, 청양 관내의 희생현장으로 알려진 싸리티골은 보도연맹원들이 사살된 곳이라는 주장, 부역자들이 사살된 곳이라는 주장, 외지의 빨갱이들이 사살되었다는 주장 등이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바. 기타 지역(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서천군)

1) 참고인 조사

진실규명 신청권이 없는 천안, 아산, 논산, 서천 지역은 보도연맹사건의 실재(實在)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참전경찰, 미신청인, 기초사실조사결과 보도연맹사건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을 조사하였다.

〈표 18〉 기타지역 참고인 조사내용

지역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천 안	홍○○ (21)	참전경찰 (치안본부 전투경찰)	2008.10.23. 통화보고서	· 천안에서 인민군들에 의한 우익인사 희생사실이 적은 이유가 당시 천안 경찰서장 김종대가 후퇴할 때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을 전부 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음.
	주○○ (26)	참전경찰 (천안 경찰서)	2009.4.8. 면담보고서	· 천안경찰서 유치장(5개 정도)에 수감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4~50여 명을 김종대 서장이 후퇴시에 전부 풀어주었음.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에 대해서는 위에서 명령이 있었을 것임.
	윤○○ (21)	참전경찰 (천안 경찰서)	2009.5.20. 면담보고서	· 경리업무를 맡았으므로 보도연맹관련사항은 잘 모르나 당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유치장에 가두어 두었던 보도연맹원들을 후퇴하면서 풀어주었다고 함.

235) 참고인 이도재(신청인 이필재 진술조서(2008.8.28.)): 참고인 이계복 면담보고서(2009.4.28.).

지역	성명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진술일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아산	임○○ (21)	참전경찰 (온양 경찰서)	2009.5.20. 면담보고서	· 전쟁 발발 후 경찰들 후퇴할 때 지방뺑깡이들을 저녁에 잡아다가 온양 읍 풍기리 냇가에서 처형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들이 보도연맹원인지에 대해서는 모름.
	최○○ (19)	참전경찰 (치안국 전투경찰)	2009.6.15. 면담보고서	· 49년도에 온양경찰서에 배명받았으나 전쟁 당시는 치안국 소속이었음. 온양(아산)의 보도연맹원들은 예산서원들이 홍성쪽으로 후퇴하면서 그 쪽 어디서 처형했을 것으로 추측됨.
논산	배정태 (23)	연무읍 봉동리 주민	2009.6.16. 면담보고서	· 논산시 연무읍은 전쟁 당시에는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에 속하였음. 당시 보도연맹원들은 '회의하러 오라'고 해서 나간 다음 돌아 오지 않음. 보도연맹원인 이필구가 오전 일 마치고 나갔음.
	이규정 (12)	이윤중 유족	2009.6.16. 면담보고서	· 부 이윤중(26세)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데 전쟁 발발 후 강경경찰서에 연행된 후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었음. 제삿날은 음력 5월 25일(양 7월 10일)로 잡았는데 대전 산내 근처에 살던 당고모가 사살된 날짜를 알려주었기 때문임.
	한○○ (23)	참전경찰 (강경 경찰서)	2009.6.15. 면담보고서	· 강경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중 주동자급은 대전으로 보냈음. 그 후 그들은 대전형무소에서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백○○ (27)	참전경찰 (강경서 성동지사)	2009.6.16. 면담보고서	· 성동면의 죄익 중 일부만이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으며, 잡아들였던 사람들을 후퇴하기 전에 풀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성동지사에 근무하였기에 강경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름.
	성은영 (24) 이정욱 (22)	이윤중 희생증언	2009.6.16. 면담보고서	· 참고인들은 전쟁 당시에도 연무읍 소룡리에 거주하여 동네사정을 잘 알고 있음. 소룡리에서 보도연맹으로 잡혀간 사람은 이윤중, ○회도, 회덕 형제가 있음.
	여운형 (23)	성동면 주민	2009.6.17. 면담보고서	· 참고인은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했었으나 예비검속 당하지는 않았음.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핵심간부들(20여 명)이며 이들은 강경역 앞의 에이메어관에 일주일 정도 집단 수용되었음. 그 후 이들을 대전형무소로 이송하였고 후에 산내에서 다 죽었음. 그중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성근, 김용환, 이승춘 등이 기억남.
서천	이봉원 (17)	장항읍 주민	2009.6.18. 면담보고서	· 인민군 점령기에 서천등기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화양면등 금강연안에서 수복 후에 많은 죄익들이 죽었음. 그러나 보도연맹 희생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는 것이 없음
	김○○ (21)	참전경찰 (서천 경찰서)	2009.6.18. 면담보고서	·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 20여 명을 잡아서 대전으로 보냈으며 서천에서 처형한 것은 없음. 당시 서천에서 대전을 가려면 판교-부여-논산을 거쳐서 대전까지 6시간 정도 걸렸음.
	김경환 (20)	비인면 주민	2009.6.19. 면담보고서	· 보도연맹사건인지 모르나 경찰 후퇴 전에 서면사람 몇 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갔으며, 이들은 웅천 남포사이 이어나재에서 학살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음. 한편 보도연맹 희생자로 추정된 비인면의 김동준은 9.28수복 후 대전으로 압송되었다 함.

2) 국민보도연맹 사건 실재(實在) 여부

○ 천안(시)지역

국민보도연맹 천안지부결성식은 1950년 2월 1일 천안극장에서 오후 1시~4시 사이 관내 맹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임원으로는 간사장 양태빈, 지도위원장 김태동(천안지청장), 이사장 정성봉(천안경찰서장) 등이 선임되었다.²³⁶⁾

현재까지 조사결과 천안지역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경찰 후퇴시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전경찰 주○○(26), 윤○○(21), 홍○○(21)은 천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보도연맹원을 김종대 서장이 풀어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²³⁷⁾ 또한 전쟁 당시 천안 상황을 관련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근거로 사실대로 기록한 기록물 『六·二五와 天安』²³⁸⁾에도 보도연맹원들이 석방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수복 후 경찰조사에 의하면 천안지역에서 복귀에 의하여 학살된 사람은 5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인근 아산 지역에 비하여 혹은 전국적으로 비교하여 학살된 사람이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은 7월 7일 경찰의 마지막 후퇴 당시 상부로부터 보도연맹(좌익분자)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들을 처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당시 천안경찰서에는 조사 중인 좌익분자 60여 명과 요시찰인 300여 명 중 김종대(金鍾大) 경찰서장이 주동자 소수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석방함으로 복귀군 점령시 그들의 보복과 학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것으로 세칭 톱질보복이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⁹⁾

한편, 주동자 처리와 관련하여 『六·二五와 天安』에 의하면 천안경찰서 관내에서 이들(22명의 범죄자라고 표현됨)을 처리하면 민심이 동요될 것을 우려하여 전투지역인 평택에서 처형하려 하였으나, 미군에게 무장 해제되어 천안으로 되돌아오게 된 사실과 그 후 이 계획이 ‘특별히 처리(처리내용은 언급되지 않음)’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²⁴⁰⁾ 이러한

236) 동방신문, 1950.2.9.

237) 참고인 주○○ 면담보고서(2009. 4. 8.); 참고인 윤○○ 면담보고서(2009.5.20.); 참고인 홍○○ 통화보고서(2008.10.23.).

238) 『六·二五와 天安』은 천안문화원 원장을 역임한 전병규가 1988년 당시 천안에 생존해 있던 관련자들을 면담하여 기록한 생생한 체험담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을 집필하는 데는 반공연맹 지부장, 전직 천안경찰서장, 향토문화연구회 등이 관계하였다. 지은이는 “~참고자료로써 사건내용이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책을 읽는 데는 흥미가 적으나 내용은 사실에 하나도 보탬이 없는 실화이므로(하략)”라고 하여 실화에 바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전병규, 『六·二五와 天安』, 人文堂, 1988.)

239) 전병규, 앞의 책, 113쪽.

240) 상부로부터의 보도연맹원 조치 명령에 따라 천안경찰서에 파견된 전시 지휘관 육군 중위와 당시 정모 사찰주임 등 5명의 경찰관이 22명의 범죄자를 포박하여 경찰트럭에 싣고 평택 지역에서 사살하기 위해 갔다

사실들은 천안 지역에서 일부 주동자급에 대한 희생사실이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 아산(시)지역

국민보도연맹 온양(현재 아산)지부 결성식은 1950년 2월 2일 하오 1시에 온양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²⁴¹⁾ 당시 온양경찰서장 주신곤(朱信坤)이 이사장을 맡았으리라 추측된다.

전쟁 당시 온양경찰서에 근무했던 참전경찰 임○○(21)은 전쟁 발발 후 경찰 후퇴시에 지방빨갱이들을 저녁에 잡아다가 온양읍 풍기리 냇가에서 처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으나,²⁴²⁾ 참전경찰 최○○(19)은 온양경찰서 관내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후퇴 경로인 홍성쪽 어디서 처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²⁴³⁾

당시 상황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아산지역에도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희생 규모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로는 알 수 없다.

○ 논산(시)지역

논산지역의 국민보도연맹 조직결성과 관련된 문헌자료는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논산지역은 주동자급 20여 명이 예비검속되어 강경경찰서를 거쳐 대전형무소로 이송된 뒤 대전 산내 낭월동 골령골에서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당시 강경경찰서(현, 논산경찰서)에 근무했던 한○○(23)에 의하면 강경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중 주동자급은 대전으로 보냈다고 하며 그 후 그들이 대전형무소에서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²⁴⁴⁾ 성동지서에 근무했던 백○○(27)에 의하면 성동면의 좌익중 일부만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며 잡아들였던 사람들도 후퇴 전에 전부 풀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²⁴⁵⁾

전쟁 전에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나 예비검속에서 제외된 참고인 여운형에 의하면 논산 지역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핵심간부들 20여 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강경역 앞의 에이메여관에 일주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는데 구금상태는 자유로웠으며 대우도 좋

가 미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여 다시 천안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되돌아온 경찰관들은 범죄자들의 처형장소를 평택으로 내정한 것은 작전착오였다고 느꼈다. 천안경찰서 관내는 피난민으로 꽂차 있는 관계로 혹시 천안 부근에서 많은 사람을 사살하면 민심의 동요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투지구인 평택지역을 택하게 된 것이라 한다. 이 계획은 그 후 특별히 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전병규, 앞의 책, 69~70쪽).

241) 동방신문, 1950. 2. 2.

242) 참고인 임○○ 면담보고서(2009.5.20.).

243) 참고인 최○○ 면담보고서(2009.6.15.).

244) 참고인 한○○ 면담보고서(2009.6.15.).

245) 참고인 백○○ 면담보고서(2009.6.16.).

제 4 권

았다고 한다. 논산지역 관내에서 보도연맹원 학살은 없었으며, 예비검속된 연맹원들은 그 후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산내에서 사살당했다고 한다.²⁴⁶⁾

동 참고인에 따르면 보도연맹에 가입할 때는 자수서만 쓰고 가입했으며 가입비는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인민군 진주시에 보도연맹원 가족들이 우익들에게 보복을 가하였으며, 수복 후에는 희생된 우익의 가족들이 보복을 가하는 등 서로 죽고 죽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한다.²⁴⁷⁾ 한편,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비밀해제된 문서속에는 ‘논산읍’이라고 씌여진 트럭에서 사람들을 내리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동 장면의 트럭이 논산의 보도연맹원들을 이송한 트럭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한편, 기초사실조사결과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3건(논산 2건, 계룡 1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건은 전북보도연맹사건으로 분류되어 여기서는 다루지 아니하였고,²⁴⁸⁾ 또 다른 한 건은 예비검속된 곳이 대전이어서 대전지역 희생자에 포함시켰다.²⁴⁹⁾ 나머지 1건은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에서 예비검속된 것으로 논산 지역 미신청 사건으로 다루었다. 연무읍 소룡리의 참고인 이규정, 성은영 등에 따르면 이윤중(26)은 전쟁 전에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며 전쟁 당시 논산에서 예비검속된 후 대전으로 이송되어 산내에서 총살되었다고 한다.²⁵⁰⁾

〈표 19〉 논산지역 희생자 명단

연번	사건 번호/ (미)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희생 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당시 주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관련기록	
1	미신청인 이규정	이윤중 (李崙鍾)	남	26	부	충남 논산군 연무읍	○	○ ²⁵¹⁾			○

246) 참고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현장을 빠져나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참고인의 진술로 보아 희생자일 개연성이 높으나 유족미확인(제적부 부재) 등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희생자 확인’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들로써 논산군 성동면 병촌리의 이성근·이승춘, 성동면 월성리의 김용환 등이 있다.(참고인 여운형 면담보고서(2009.6.17.)).

247) 참고인 여운형 면담보고서(2009.6.17.).

248) 논산시 연무읍 봉동6리(당시 전라북도 익산군 황하면)에서 예비검속된 이필구는 ‘회의하러 오라’해서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도연맹으로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참고인 배정태 면담보고서(2009.6.16.)).

249) 계룡시의 참고인 조재희(78)에 의하면 형(兄) 조용희(22)는 대전시 대흥동에 거주하다가 전쟁 전에 경찰에 잡혀 갔다 나온 적이 있으며, 전쟁 발발 후에 경찰에 연행된 이후 행방되었다고 한다.(참고인 조재희 면담보고서(2009.6.17.)).

250) 이윤중의 제삿날은 음력 5월 25일(양 7월 10일)로 당시 골령골 주변에 살던 참고인의 당고모가 그 날짜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참고인 이규정 면담보고서(2009.6.16.); 참고인 성은영·이정옥 면담보고서(2009.6.16.).

○ 서천(군)지역

국민보도연맹 서천지부결성식은 1950년 1월 27일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²⁵²⁾ 서천경찰서장 정성모(鄭成謨)가 이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서천관내에서 보도연맹원의 희생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서면 등 북쪽지역에서 일부 보도연맹원이 보령의 이어나재에서 사살당한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 장항읍에 거주하는 이봉원(17)은 서천 화양면 등 금강연안에서 수복 후에 좌익들이 많이 죽었으나 보도연맹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²⁵³⁾ 서천군 비인면에 거주하는 김경환(20)은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단지 경찰 후퇴 전에 서면사람 몇 명이 웅천 남포 사이 이어나재에서 학살당했다는 소리는 들었다고 한다.²⁵⁴⁾

그러나 서천에서도 보도연맹원 중 일부 주동자급들(20여 명)이 대전으로 이송된 사실은 확인되었다. 전쟁 당시 서천경찰서 길산지서에 근무했던 참전경찰 김○○(21)에 의하면 서천지역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20여 명을 대전으로 보냈으며 서천에서 처형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²⁵⁵⁾

3) 요약

조사결과 천안지역에서는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중 20여 명의 주동자들이 희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보도연맹원들은 경찰 후퇴시에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천안지역에서는 이러한 보도연맹원의 석방으로 인해 인민군 점령기에 우익인사에 대한 대량의 보복 사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²⁵⁶⁾

아산지역의 경우에도 정황상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그 규모나 구체적 장소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로는 알 수 없다.

논산지역의 경우 주동자급 20여 명이 예비검속되어 강경경찰서를 거쳐 대전형무소로 이송된 뒤 대전 산내면 낭월동에서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천지역의 경우도 일부 북쪽 지역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이 보령의 이어나재

251) 참고인 성은영·이정욱 면담보고서(2009.6.16.).

252) 동방신문, 1950.1.24.

253) 참고인 이봉원 면담보고서(2009.6.18.).

254) 참고인 김경환 면담보고서(2009.6.19.).

255)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9.6.18.).

256) 전병규, 앞의 책, 113쪽.

에서 사살된 것으로 사료되나 그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동자급 20여 명은 대전형무소로 이송된 뒤 산내면 낭월동에서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충남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Ⅱ)의 내용

충남지역(Ⅱ)은 전체 희생규모에 비해 신청건수가 극히 적은데다 현장 목격자나 가해자 또한 거의 나타나지 않아 사건의 재구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당시 신문기사와 미국문서 및 관련 참고인의 증언을 통해 충남지역(Ⅱ) 대부분에서 보도연맹원 희생사건이 실재(實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내용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충남의 각 지역에서 보도연맹원들이 예비 검속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 사살되었고, 일부는 해당지역의 경찰서나 지서 및 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경찰(일부 지역은 군(軍))의 후퇴 직전에 사살되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충남지역(Ⅱ)에서 추정되는 희생규모는 대전 최소 1,400여 명(미군 CIC 보고서 기준) 이상, 공주 250~300여 명, 연기 200~300여 명, 예산 12~3여 명, 천안 20여 명 등이다. 기타 논산, 서천 등에서는 최소 20여 명 이상의 보도연맹원이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총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충남지역(Ⅱ)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살해 행위는 그 후 인민군 진주시 보도연맹원 가족들의 우익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초래하였고, 9.28수복 후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어 수많은 민간인 희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²⁵⁷⁾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경찰의 후퇴시 보도연맹원등을 살해하지 않은 천안의 경우는 인공치하에서 우익에 대한 보복학살도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고 한다.²⁵⁸⁾ 또한, 예산의 경우도 1차로 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을 경찰이 석방하였기 때문에 그 후 인공시절에 경찰가족 등이 참변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²⁵⁹⁾

257) 참고인 여운형 면담보고서(2009.6.17.).

258) 전병규, 앞의 책, 113쪽.

259) 참고인 한○○ 면담보고서(2009.6.15.).

나. 희생자 확인

진실화해위원회는 충남지역(Ⅱ)에서 보도연맹사건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한 진실규명대상자 35명(일부는 대표자 신청)과 미신청인 중 우편·전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23명에 대해 희생자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참고인의 증언을 통하여 희생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유족에 대한 조사 및 제적부 등을 통한 신원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희생자로 최종 확인하였다.²⁶⁰⁾ 현재까지 확인된 충남지역(Ⅱ)의 지역별 희생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0〉 충남지역(Ⅱ)의 지역별 확인된 희생자 수

지역		대전	공주	연기	예산	청양	기타(논산)
희생자 수(계:58명)		23명	23명	9명	1명	1명	1명
신청사건	확인	12명	18명	2명	1명	1명	
	추정	1명					
미신청사건	확인	7명	5명	7명			1명
	추정	3명					

다. 희생자 특징

충남지역(Ⅱ)의 희생자들 대부분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소지자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가 가장 많다. 희생사실이 확인된 58명을 대상으로 직업과 학력 및 기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대상자 58명 중 농업종사자는 37명(전체의 64%)이며, 초졸 이하(무학·한학 포함)가 36명(전체의 62%)이다. 나이는 18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며, 여성은 3명(전체의 5%)이다.

희생자들 중 일부는 좌익경력자로 자수·전향 후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도 있으나,²⁶¹⁾ 상당수는 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장이나 이웃의 권유로 도장을 찍은 경

260) 참고인의 증언을 통해 희생자로 나타난 경우에도 일부 유족은 희생자 확인을 위한 제적부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참고인의 증언이 있거나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명확한 증언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족에 대한 조사와 제적부 확인을 거치지 않고는 희생자 확인을 하지 않았다.

261) 진실규명 대상자 중 신청사건 25건의 행형기록을 조회하여 희생자들의 좌익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나 포고령 위반 사건 1건을 발견하였다. 우창규(다-7948호)가 1948년 1월 포고령 제2호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록으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우창규는 일찍부터 공산주의를 신봉하여 ○○좌익정당인 남

제 4 권

우도 많이 있었다.²⁶²⁾

〈표 21〉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성별: 남성 55, 여성 3명)

연령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인원(비율)	3(5%)	23(40%)	17(29%)	12(21%)	3(5%)

〈표 22〉 희생자의 학력별 분포(성별: 남성 55, 여성 3명)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한학	모름
인원(비율)	14(24%)	18(31%)	2(3%)	5(9%)	1(2%)	4(7%)	14(24%)

〈표 23〉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성별: 남성 55, 여성 3명)

직업	농업	상업	양복점 (양품점)	옹기점	산림청/ 철도국	교사	양계업	주부	남선전 기	무직 (모름)
인원(비율)	37 (64%)	2 (3%)	3 (5%)	2 (3%)	2 (3%)	1 (2%)	1 (2%)	1 (2%)	1 (2%)	8 (14%)

라. 희생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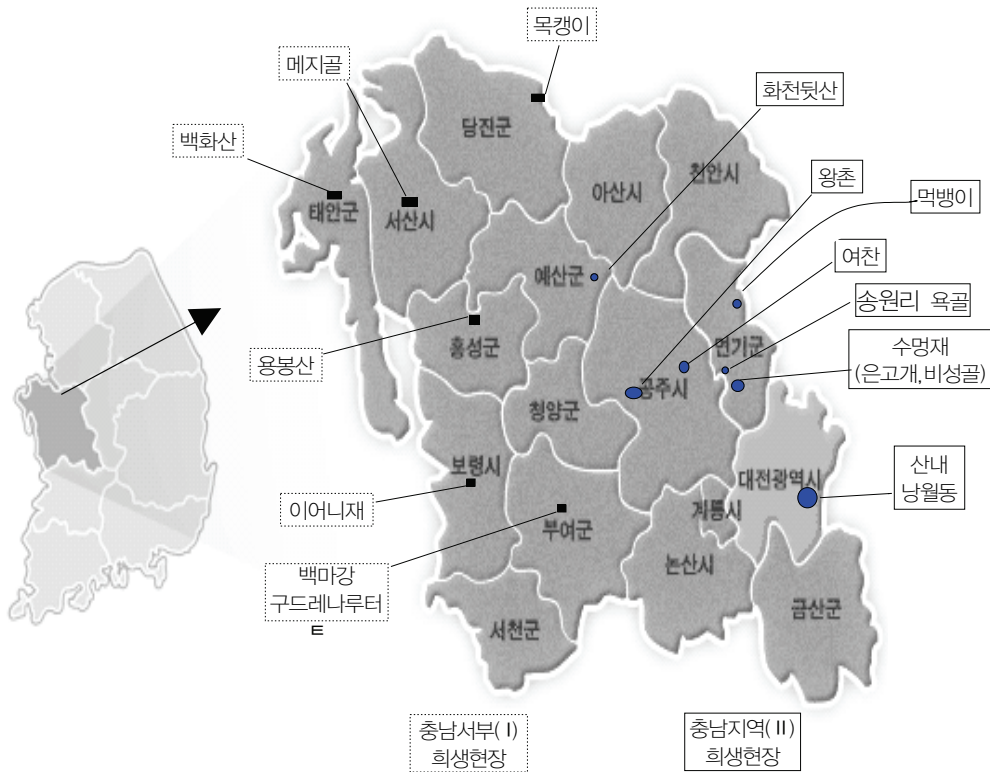
신청인과 참고인조사에서 드러난 사건 현장은 대체로 대전 1곳(산내면 골령골), 공주 3곳(왕촌, 여찬, 송원리 옥골(연기)), 연기 2곳(남면 갈운리(수명재 혹은 은고개), 전동면 봉대리)), 예산 1곳(대술면 화천리 뒷산), 청양 1곳(싸리티골-추정)등이다. 그밖에 보령의 이어나재(서천)등과 같이 타 지역에서 희생된 경우도 있으며,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희생되었다는 진술도 있다. 확인된 사건현장은 다음 그림과 같다.²⁶³⁾

로당에 가입하여”라고 되어 있어 보도연맹 가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48.1.28. 형공제388호)

262) 참고인 이장직 통화보고서(2009.3.25.): 참고인 양두이는 해방 후 남로당에 가입할 때 학교운동장에서 투표하듯이 줄지어 서서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참고인에 따르면 당시 마을사람들은 그것이 나라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알았다고 한다.(참고인 양두이 통화보고서(2009.7.7.)).

263) 여기 표시된 지역은 대규모 집단 희생지역이며 이외에도 소규모 희생이 있었던 곳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림 11] 충남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현장



마. 가해주체와 지휘명령체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충남지역(Ⅱ) 보도연맹원 사살의 주된 주체는 주로 지역경찰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주공인 경부축선²⁶⁴⁾에 위치한 공주, 연기, 대전지역에서의 집단희생 사건은 당시 이 지역에서 금강방어전을 펼치던 국군 제17연대가 관여하였음이 지역 주민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났다.²⁶⁵⁾ 또한 공주, 대전지역은 형무소에 구금된 보도연맹원 사살에 헌병대가 관여한 것이 각종 증언과 기록으로 나타났다.²⁶⁶⁾

264)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차후작전의 기본방침은 '미군이 증원되기 전에 한국군의 주력을 수원 이북에서 포위한 후 평택-안성-충주-제천-영월에 이르는 선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주공을 경부축선에 두었다.(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부도』, 황금알, 2005, 30쪽.).

265) 참고인 송인수 면담보고서(2009.6.12.).

266) 공주경찰서, 『경찰연혁사』, 국가기록원소장자료, 1951.; 서덕순, 『피난실기』, 웅진문화 13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3.;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1952.

1) 경찰

지금까지 조사한 경찰 측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충남 각 지방 경찰은 충남경찰국의 지시에 의해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하였으며, 7월 이후 경찰 후퇴 직전에 이들을 사살하였다. 조치원경찰서 금남지서장이었던 서○○(26)에 의하면 '전쟁 발발 다음날 조치원 경찰서로부터 『보도연맹원들을 지서로 모아 놓아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치원경찰서 역시 충남경찰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²⁶⁷⁾ 온양경찰서로 배명받았으나 전쟁 직전 치안국 전투경찰대로 배치되었던 최○○(19)은 '보도연맹원들이 서울에서 우익들을 많이 학살했다. 그래서 저 위(충남경찰국, 치안국)에서 보도연맹원들을 모두 없애 버려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하였다.²⁶⁸⁾ 조사에 응한 참전경찰 상당수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²⁶⁹⁾ 이러한 진술로 미루어 보도연맹원의 예비검속과 사살은 일차적으로 상급기관인 충남경찰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6월 25일 치안국장 명의로 하달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을 제1799호)을 시작으로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의 치안국장 통첩을 연이어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²⁷⁰⁾

상명하복의 경찰조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시 충남 각 지방경찰서에 하달된 지휘·명령체계를 살펴보면 내무장관 백성욱(1950.2.7~7.17) → 치안국장 장석운(1950.6.17~7.17) → 충청남도경찰국장 이순구(1949.6.20~1950.7.20) → 각 경찰서장²⁷¹⁾ → 각 지서주임으

267) 참고인 서○○ 면담보고서(2009.3.24.).

268) 참고인 최○○ 면담보고서(2009.6.15.).

269) 공주경찰서 신흥지서에 근무했던 권○○(26)은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서에서 전부 붙잡아 가두어 두었다가 저 사람들(인민군)이 어디쯤 내려왔을 때 산골에다 전부 데려가서 처형했다. 위에서 『좌익사상범들을 전부 처벌하고 가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참고인 권○○ 면담보고서(2009.4.10.)).; 유성경찰서(이후 서대전경찰서) 기성지서에 근무했던 정○○(25)은 '경찰서에서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서로 가봐라'고 전해주었다'고 한다.(참고인 정○○ 면담보고서(2009.6.13.)).; 예산경찰서 회남지서의 한○○(25)은 '예비검속 지시는 제3관구 충남경찰청(충남경찰국의 이전 명칭)에서 내려왔다'고 하였다. (참고인 한○○ 면담보고서(2009.6.15.)).

270)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입수한 경찰문서 '예비검속명부 제출의 건(제 호, 1950. 8. 6.)'에 의해 이러한 통첩들이 하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71) 대전경찰서장 박몽실(1949.9.16~1950.9.24.), 유성(서대전)경찰서장 조시원(1949.7.21~1950.10.11.), 천안경찰서장 김중대(1950.5.8~1952.12.10.), 강경경찰서장 정성봉(1950.5.8~1950.7.19.), 온양경찰서장 오치운(1950.5.18.~7.9.), 서천경찰서장 정성모(1949.7.3~1950.10.6.), 공주경찰서장 전봉수(1949.9.16~1950.9.25.) 조치원경찰서장 차석태(1950.4.7~1951.4.25.), 예산경찰서장 이세환(1950.2.6~7.9), 청양경찰서장 김인진(1950.5.8~1951.4.25.).

로 내려졌다. 이러한 지휘·명령체계는 1950년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찰도 군의 지휘·명령체계에 속하게 되어 계엄사령관(정일권)이나 헌병사령관(송요찬)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²⁷²⁾

2) 헌병대·제17연대

현재까지 조사결과 헌병대가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공주, 대전 등은 형무소가 있던 지역이다. 북한군의 주공격 선상에 있던 지역에서는 후퇴하던 제17연대도 부분적으로 가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공주에 제17연대(웅진부대)와 헌병대가 주둔했다는 것은 『경찰연혁사』, 서덕순의 『피난실기』, 『한국헌병사』 등의 기록과 참전군인 및 지역주민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²⁷³⁾

공주와 대전에서 보도연맹원 사살에 관여한 헌병대의 소속부대는 육군형무소 헌병대가 유력하나, 제2사단 헌병대나 제1군단 헌병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대전형무소 특경대 부대장 이○○의 진술에 의하면 ‘헌병대 심용현 중위가 7월 7일경 형무소로 찾아와서 특경법 위반자, 국방경비법 위반자, 보도연맹원, 10년 이상 강력범 등을 인도하라’고 했다고 한다.²⁷⁴⁾ 대전형무소 정치범들을 ‘처형’한 시기가 만약 이○○의 증언대로 7월 8~10일이면 심용현의 근무시기²⁷⁵⁾로 볼 때 제1군단 헌병대가, 워닝턴의 기사대로 7월 4~6일이 맞다면 제2사단 헌병대가 개입했을 것이다.²⁷⁶⁾

한편, 17연대는 웅진반도에서 대전으로 후퇴한 후 일시 금강방어전에 투입되었다. 이 시기에 공주, 연기지역의 일부 지방 보도연맹원 사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장기면 산학리(현재 연기군 남면 나성리) 주민 송인수(20)는 ‘대평리 다리 부근에 육군 제17연대가 주둔하여 마을주민들이 밥을 해다 날랐으며, 17연대 군인들이 마을 뒤편 옥골(현재 연기군 남면 송원리)에서 장기면 산학리의 보도연맹원 10여 명을 처형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제17연대의 주둔 사실과 가해 사실을 확인해주었다.²⁷⁷⁾ 또한, 당시 17연대 소

272) 1949년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계엄법 제9조)

273) 군사편찬위원회, 『한전 HA01501』, 17연대 2대대 7중대(당시 소속), 하사 이성기 증언: 참고인 송○○ 통화보고서(2009.7.8.); 참고인 송인수 면담보고서(2009.6.12.);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9.8.28.).

274) 충북대학교 박물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지행생관련 2007년 유해발굴보고서』(이하 ‘2007년 유해발굴보고서’), 2008, 249쪽.

275) 각주 103) 참조

276)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형무소 사건’에서 조사 중에 있다.

277) 송인수에 따르면 당시 잡혀온 산학리 사람들 중 두 사람은 상복차림이었다고 한다.(참고인 송인수 면담

속이었던 김○○(23)은 ‘대평리 부근에서 일주일 정도 머문 사실과 중대장으로부터 보도연맹원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²⁷⁸⁾

3) 기타

일부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공주 등 일부지역에서 CIC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²⁷⁹⁾ 특무대는 1950년 10월 21일 육군특무부대가 창설되어 독립조직이 되기 전에는 육군정보국 산하에 있었다.²⁸⁰⁾ 방첩대(SIS)시절인 1949년 육군정보국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15개 지역에 첩보수집 및 방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대를 설치하였다.²⁸¹⁾ 그러므로 전쟁초기에 충남지역에서 활동했던 특무대라면 방첩대(SIS) 대전파견대 소속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결과 충남서부지역인 홍성²⁸²⁾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특무대가 보도연맹원 사살과정에 직접 가담했다는 진술이나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 해제된 육군무관 밥 에드워드의 보고서에는 미군에 의해 촬영된 현장사진이 설명과 함께 동봉되어 있다. 이것은 사살현장에 미 대사관 직원과 미 극동사령부(FEC) 소속의 장교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은 워닝턴의 이야기를 ‘학살 조작(atrocity fabrication)’이라며 부인하였다.²⁸³⁾

바. 예비검속과 총살행위의 불법성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범죄예방을 구실로 실시한 「조선정치범예비구금령」

보고서(2009.6.12.)).

278)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9.8.28.)

279) 『피해자현황조사』, 공주지역조사일지, 296쪽.

280) 특무대는 1948년 5월 27일 특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본부에 설치된 정보국 제3과(특별조사과)에서 기원한다. 그 후 여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 제971 CIC요원에 의한 국군 CIC요원(33명)의 교육이 있었으며, 교육 직후 1948년 11월 1일 특별조사과는 방첩대(SIS)로 개칭되며 기구를 확대 조직하였다. 그 후 1949년 10월 20일 방첩대(SIS)는 명칭을 CIC로 변경하였다. CIC로 개칭한 정보국산하 방첩대는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6.25를 맞게 되었고, 9.28 수복 직후에 중령 김창룡을 중심으로 경인지구 CIC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50년 10월 21일 國本 一般命令 第91號에 의거 방첩대를 정보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시켜 육군본부 직할로 육군특무부대(통상명칭 1348부대)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초대 부대장으로 당시 대령 김형일이 임명되었다.(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36쪽 이하.)

281) 국군보안사령부, 앞의 책, 34쪽.

282) 진실화해위원회, 『충남서부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78쪽.

283) Bruce Cumings, 앞의 책, 699쪽.

(1941.5.5.)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1945년 10월에 대부분 폐지되었다.²⁸⁴⁾ 결국, 헌병사령관 송요찬이 1950년 7월 12일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기 전까지는 예비검속의 법적인 근거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신체의 자유를 규율할 수 있는 몇몇 법률들로 (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²⁸⁵⁾ 등이 있었으나 이들 규정 어디에도 현행법이 아닌 일반 민간인을 예비검속하여 구금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전쟁 발발과 동시에 행해진 충남 각 지역의 예비검속은 불법이다.

제헌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전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이 아닌 민간인들을 어떠한 재판절차도 없이 즉결 사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III.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충남지역(Ⅱ)에서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이 예비 검속되었고, 이 중 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 사살되었고, 일부는 해당지역의 경찰서나 지서 및 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군(軍)·경(警)의 후퇴 직전에 사살되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추정되는 희생규모는 대전 최소 1,400여 명(미군 CIC 보고서 기준) 이상, 공주 250~300여 명, 연기 200~300여 명, 예산 12~3여 명, 천안 20여 명 등이다. 기타 논산, 서천, 청양 등에서는 최소 20여 명 이상의 보도연맹원이 대전형무소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284) 미군정은 1949년 10월 9일 아놀드 군정장관의 이름으로 ‘日政법규일부개정 법령 폐기의 건’(법령제11호)을 공포하여 예비검속법 등을 폐기하였다.(매일신보, 1945.10.13.).

285) 이 특별조치령의 공포일과 관련해서 법령집 등 각종자료집에는 1950년 6월 25일 공포하였다고 명기하고 있지만 6월 25일과 27일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의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1년지』(1951) 일지편 1950년 6월 28일자에는 이 조치령을 공포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바, 결국 6월 28일에 공포한 것을 3일 소급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한다.(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1999, 678~679쪽.).

제 4 권

나.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34명은 박준(朴準, 다-661호), 박만호(朴萬鎬, 다-1480호), 박윤신(朴潤信, 다-2425호), 고광선(高光善, 다-2843호), 김용호(金龍虎, 다-3982호), 유을득(柳乙得, 다-4064호), 서창원(徐昌源, 다-5187호), 이경재(李景載, 다-6131호), 허정(許挺, 다-6137호), 윤청림(尹淸林, 다-6210호), 정필창(鄭必昌, 다-6288호), 정필준(鄭必俊, 상동), 정의상(鄭翊相, 상동), 정필용(鄭必龍, 상동), 정필배(鄭○, 상동), 정일각(鄭一珏, 상동), 박병덕(朴丙憲, 상동), 박덕중(朴憲鍾, 상동), 진태식(陳泰植, 다-6351호), 김진태(金進泰, 다-6407호), 이창림(호적:이영식(李永植), 다-6761호), 조성갑(趙成甲, 다-6907호), 김용진(金容鎭, 다-7535호), 김순한(金順韓, 상동), 우창규(禹昶圭, 다-7948호), 고영원(高泳源, 다-8047호), 고영균(高泳均, 다-8755호), 김동석(金童錫, 다-8797호), 김동찬(金童瓚, 상동), 김동수(金東洙, 상동), 김우영(金宇泳, 다-8991호), 허준(許焮, 다-8992호), 이용중(李龍重, 다-9846호), 성백환(成百煥, 다-10778호)이다.

희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박봉양(朴鳳陽, 다-8300호) 1명이다.

또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20명은 문충환(文忠煥), 류주열(호적:류성업(柳聖業)), 윤석보(尹錫輔), 고태준(高泰準), 고연수(高連壽), 김백현(金百鉉), 조용희(趙容喜), 박동면(朴東冕), 김관국(金觀局), 김중관(金重寬), 유희중(劉熙鍾), 소구섭(蘇龜燮), 김순경(金淳卿), 임낙우(林洛禹), 송신헌(宋愼憲), 현선복(玄善福), 현희복(玄喜福), 현후복(玄厚福), 이재수(李載秀), 이윤중(李崙鍾)이다.

미신청인 중 희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3명으로 김사예(金四禮), 송준호(宋俊鎬), 박관하(朴觀夏)이다.

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좌익경력자로 자수·전향 후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도 있으나, 좌익 활동과 무관하게 심지어는 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장이나 이웃의 권유로 가입된 사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에 예비검속과 살해행위를 담당한 측은 주로 경찰과 헌병대였으며, 공주·연기 등 주(主)전투지역에서는 제17연대도 부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과 헌병대의 가해행위는 희생자의 불법행위유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예비검속 후 사살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라. 사살명령이 언제 누구로부터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예비검속에 이은 총살행위가 대전·충남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점과 상명하달식의 군·경 지휘명령체계를 고려한다면, 불법사살에 대한 지시나

명령은 상부기관인 내무부와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이며 따라서 그 책임은 이들을 관리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권력이 비무장 민간인을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살한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건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국가는 그 후 반세기 이상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많은바, 유족들이 원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위령사업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넋과 유족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예컨대 위령탑 설립, 위령제 지원, 독거 유족에 대한 국가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연기군 전동면 봉대리 ‘떡방이’의 경우 유해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발굴작업도 필요하다.

라. 역사기록 정정

국가는 역사교과서 등에 이 사건 내용을 추가 하는 등 역사기록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전, 공주, 연기 등에서 대규모 희생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지역 지방사에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

국가는 군인과 경찰 등 인권보호와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4 권

[별첨자료]

2007년 피해자현황조사결과(공주)
-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추정) 현황 -

연번	조사지역		희생자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가해자	피해일시	피해장소	비고
1	공주시	읍내	유혁	20대초반	남	학생	군경	1950. 7.	왕촌 살구쟁이	
2	공주시	읍내	송석진		남		군경	1950. 7.	왕촌 살구쟁이	
3	유구읍	노동리	김지웅	50후반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초	왕촌 살구쟁이	
4	유구읍	신영리	윤광현 부친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초	왕촌 살구쟁이	
5	유구읍	입석리	박만세	40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초	왕촌 살구쟁이	
6	유구읍	입석리	송윤섭	30대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초	왕촌 살구쟁이	
7	유구읍	입석리	정배근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초		
8	유구읍	입석리	정승환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초	왕촌 살구쟁이	
9	유구읍	입석리	정두환	40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초	왕촌 살구쟁이	
10	"	구암리	최기석		남	농업	경찰	7. 초경		
11	"	삼각리	이용준	37	남	농업	경찰	5. 28.경	왕촌	
12	"	삼각리	이용중		남		경찰	7. 초		진실위 신청자
13	"	장선리	송기중	30대중반	남	농업	경찰	7. 초경	공주형무소	
14	"	"	이중하	40대중반	남	농업	경찰	7. 초경	공주형무소	
15	"	남산리	김명환	21	남	농업	헌병	5. 26.경	왕촌	
16	"	"	김종관	22	남	농업	헌병	5. 26.경	왕촌	
17	"	덕지리	심우석	30대중반	남	농업	경찰		왕촌	
18	"	"	심준석	30대중반	남	농업	경찰		왕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

연번	조사지역		희생자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가해자	피해일시	피해장소	비고
19	"	"	김재복	30대중반	남	농업	경찰		왕촌	
20	"	화정리	박병호 (박병오)	20대중반	남	농업	경찰	7. 초경	탄천지소	
21	"	"	김덕배	30대	남	농업	경찰	7. 초경	탄천지소	
22	"	화정리	오세대	30	남	농사	군경합동	7. 초경	왕촌살구	
23	"	"	장영덕	30	남	농사	군경합동	7. 초경	왕촌살구	
24	계룡면	기산리	오세억	20대	남	교사	경찰	1950. 7. 초경	왕촌추정	
25	"	금대리	정일각	24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진실위 신청자
26	"	"	정익상	42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
27	"	"	박덕중	25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
28	"	"	정필창	26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
29	"	"	정필용	24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
30	"	"	정필준	27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
31	"	"	박병덕	20대후반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
32	"	"	정필배	20대중반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
33	"	항지리	곽소현	28	남	농업	경찰	7. 초	왕촌	
34	"	중장리	소병완	43	남	무직	경찰	음 5. 25.	왕촌	
35	"	"	소병문	43	남	무직	경찰	음 5. 25.	왕촌	
36	"	"	소구섭	47	남	무직	경찰	음 5. 25.	왕촌	
37	"	구왕리	김창수	31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38	"	"	김천수	48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39	"	내흥리	장기현	75	남	농업	경찰	음 5. 26.	왕촌	
40	"	"	지규옥	75	남	농업	경찰		왕촌	

제 4 권

연번	조사지역		희생자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가해자	피해일시	피해장소	비고
41	"	"	오인표		남	농업	경찰	7. 초	왕촌	
42	"	"	오세옥		남	농업	경찰	음 5. 25.~26.	왕촌	
43	계룡면	구왕리	백이선	45	남	농사	군경합동	음 5. 25.경	왕촌	
44	"	"	양휴석	29	남	농사	군경합동	음 5. 25.경	왕촌	
45	"	"	이갑종	28	남	농사	군경합동	음 5. 25.경	왕촌	
46	"	"	최정봉	43	남	농사	군경합동	음 5. 25.경	왕촌	
47	"	"	최한갑	60	남	농사	군경합동	음 5. 25.경	왕촌	
48	"	월암리	김병철	35	남	농사	군경합동	음 5. 25.경	왕촌	
49	반포면	송곡리	이재덕		남	농업	군경합동	음 5. 25.경	산내	
50	"	"	이재만	21	남	농업	군경합동	음 5. 25.경	산내	
51	"	"	안기호	23	남	농업	군경합동	음 5. 25.경	산내	
52	"	"	임헌주	20대후반	남	농업	군경합동	음 5. 25.경	산내	
53	"	"	박상규	20대중반	남	농업	군경합동	음 5. 25.경	산내	
54	"	"	이만중	20대후반	남	농업	군경합동	음 5. 25.경	산내	
55	"	"	유영식	20대후반	남	농업	군경합동	음 5. 25.경	산내	
56	"	"	임철수		남	농업	경찰	7. 초	산내	
57	"	"	임봉수	20대초반	남	농업	경찰	7. 초	산내	
58	"	"	임헌주	31	남	농업	경찰	7. 초	산내	
59	"	"	서경식	20대후반	남	농업	경찰	7. 초	산내	
60	"	"	서해옥	20대중반	남	농업	경찰	7. 초	산내	
61	"	하신리	김종남	20대중반	남	농업	공주형무소	7. 초	공주형무소 뒤편	
62	장기면	도계리	박종열	57	남	무직	경찰, 우익	1950. 7.	왕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

연번	조사지역		희생자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가해자	피해일시	피해장소	비고
63	장기면	봉안리	이상태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64	장기면	산학리	남구현	5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	
65	장기면	산학리	허개명	5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	
66	장기면	산학리	김관구	56	남	농업	경찰, 우익	음 1950. 5. 26.	송원리 욱골	
67	장기면	산학리	엄주동	3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	
68	장기면	산학리	임인수	3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	
69	장기면	도계리	장칠봉	5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	
70	장기면	도계리	전상옥	5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	
71	장기면	은용리	김홍찬	4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	
72	장기면	산학리	김동원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	
73	장기면	은용리	백남복	24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	
74	장기면	은용리	이윤근	25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송원리 욱골리	
75	의당면	울정리	김정애	19	여	무직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76	의당면	울정리	김용태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77	의당면	울정리	김정애父	40중반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78	의당면	울정리	박동면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79	의당면	울정리	박진태	22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80	의당면	울정리	유희종	28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81	의당면	울정리	이광래 父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제 4 권

연 번	조사지역		희생자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가해자	피해일시	피해장소	비고
82	의당면	울정리	이석하	19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83	의당면	울정리	이성동	35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84	의당면	울정리	이보국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85	의당면	울정리	이상덕 兄	30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86	의당면	울정리	이순남 오빠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87	의당면	울정리	이상덕 父	60 정도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88	의당면	울정리	김동석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진실위 신청자
89	의당면	울정리	김동수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
90	의당면	울정리	김동찬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
91	의당면	울정리	김순한	19	여	결혼준 비중	공주, 경찰	1950. 7. 10.	도살장 뒷산	”
92	의당면	울정리	김용진	60	남	농업	공주, 경찰	1950. 7. 10.	도살장 뒷산	”
93	의당면	울정리	조성갑	43	남	농업	공주경찰	1950. 7. 10.	도살장 뒷산	”
94	의당면	울정리	김재관	40후반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95	의당면	울정리	김창화	28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96	의당면	울정리	윤재덕	40중반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97	의당면	울정리	한석중	30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98	의당면	울정리	이관용	40중반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99	의당면	울정리	김근한父	35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00	의당면	도신리	강원식	30후반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

연번	조사지역		희생자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가해자	피해일시	피해장소	비고
101	의당면	용현리	이명렬	20대후반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02	의당면	용현리	이장하	20대후반	남	한문선생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03	의당면	월곡리	김수동	42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04	의당면	월곡리	윤성록	29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05	의당면	월곡리	서병기	30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06	의당면	용현리	박창선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07	의당면	용현리	박창근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08	의당면	용암리	박창근	25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09	의당면	용암리	박창선	24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10	의당면	용암리	이대하	21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11	의당면	용암리	이호준	22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12	의당면	용암리	성기영	30	남	농업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13	의당면	중흥리	구자성	31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14	의당면	중흥리	맹선술	29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15	의당면	중흥리	이정호	25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10.	도살장 뒷산	
116	의당면	월곡리	윤청림	27	남	농업	경찰	1950. 7. 10.	도살장 뒷산	진실위 신청자
117	정안면	광정리	정관익	21	남		경찰, 우익	1950. 7.		
118	정안면	광정리	정원보		남	의사	경찰, 우익	1950. 7.		
119	정안면	보물리	홍순표	3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제 4 권

연번	조사지역		희생자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가해자	피해일시	피해장소	비고
120	정안면	광정리	김대수	22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121	정안면	화봉리	이명옥	5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122	정안면	광정리	홍사용	50	남	의사	경찰, 우익	1950. 7.	왕촌	
123	정안면	화봉리	신구현	30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124	정안면	광정리	김대섭	25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의당 청룡	
125	정안면	광정리	심명호	25	남	농업	경찰, 우익	1950. 7.	의당 청룡	
126	우성면	방문리	오씨	30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초	왕촌 살구쟁이	
127	우성면	방문리	오씨	30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초	왕촌 살구쟁이	
128	우성면	방문리	오종택	28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초	왕촌 살구쟁이	
129	우성면	동대리	박동은	33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9.	왕촌 살구쟁이	
130	우성면	동대리	변종여	30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9.	왕촌 살구쟁이	
131	우성면	동대리	이갑석	33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9.	왕촌 살구쟁이	
132	우성면	동대리	김경배	39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9.	왕촌 살구쟁이	
133	사곡면	화월리	우창규	39	남	농업	경찰, 지방우익	1950. 7.		진실위 신청자
134	읍내	중동	이영식	미상	남					"